연구자료 22-11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대러시아 제재가 중동부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이철원
김초롱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외부적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1989년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발족하였습니다.

본 연구원은 국제거시금융, 무역통상, 세계지역연구, 경제안보전략, 국제개발협력 등과 관련된 문제를 조사 · 분석하고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연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는 [연구보고서], [연구자료], [Working Paper] 등 각종 국 · 영문보고서, 웹진 [오늘의 세계경제], World Economy Brief, 학술지 *East Asian Economic Review* (ESCI,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등의 형태로 발간되고 있으며, 그 원문을 본 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對外經濟政策研究院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 044-414-1114 F. 044-414-1001
www.kiep.go.kr

연 구 자 료
22-11

대러시아 제재가 중동부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이철원·김초롱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연구자료 22-11

대러시아 제재가 중동부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인 쇄 2022년 12월 26일
발 행 2022년 12월 30일
발행인 김흥종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주)계문사

ⓒ20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7,000원
ISBN 978-89-322-2493-0 94320
978-89-322-2064-2 (세트)

국문요약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로 인한 EU의 대러 제재는 러시아는 물론 EU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2023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러시아와의 무역, 기업 활동 및 에너지 부문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큰 중동부유럽 국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교역 관계 측면에서도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

중동부유럽의 대러시아 정책은 반러 기조를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폴란드로부터 대표적인 친러 국가 헝가리에 이르기까지 국별로 다양한 정책 기조가 유지되거나 최근 들어 기조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EU 내 중동부유럽 국가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거나 근접해 있고 과거 사회주의 동맹의 유산도 일부 남아 있어 친러시아 혹은 반러시아 관계와 상관없이 대체로 러시아와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의 대러시아 제재는 우선 직접적으로 단기 충격이 예상되는 에너지 부문은 물론 무역, 투자, 금융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중동부유럽 국가에 심각한 영향이 불가피하다.

한국기업은 2004년과 2007년 EU의 중동부유럽으로 확대과정에서 비세그라드 4국(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을 비롯한 중동부유럽에 대거 진출, 유럽의 생산거점을 구축하고, 그 후 추가 투자와 교역확대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비세그라드 4국(V4)은 2020년 우리의 대EU 수출의 28.3%를 점하고 있는 EU 내 최대 수출시장으로 특히 최근 우리 기업의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수출 및 투자 진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유럽 내에서 우리와

가장 활발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동부유럽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가장 심각하고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감안한 우리의 새로운 전략모색이 필요하다. 중동부유럽 주요국들은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대러 정책 성향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는바, 이에 따른 우리 기업의 차별화된 대응책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중동부유럽 국가의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관련하여 심도 깊은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대유럽 전략이 재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발발 이후 EU의 대러시아 제재가 중동부유럽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우리의 중동부유럽과의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이슈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첫째, 중동부유럽 국가가 러시아와 얼마나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지, 둘째, 그래서 러시아발 지정학적 위기가 중동부유럽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마지막으로 셋째, 한국 기업과 정부는 중동부유럽과의 경제관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이다. 따라서 서론 1장에 이어 2장에서는 교역, 투자, 에너지 등 중동부유럽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 조명하였다. 그리고 3장에서는 EU의 대러 제재와 파급 경로, 중동부유럽 경제에 대한 영향 및 진출기업 현지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전술한 분석과 함께 한국과 중동부유럽 경제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 및 정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 2022년 2월 24일 개시되었

으며, EU는 미국보다 늦은 2월 말부터 대러 제재를 본격화하였는바,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이루어지기에는 너무 기간이 짧아 3월 이후 현안 대응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서방의 대러 제재가 한국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동태적 연산가능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CGE 모형을 활용한 제재 혹은 제재 해제의 경제적 영향 분석에는 분명 현실적인 제약이 명확하다. CGE 분석에서는 대러 제재에 대한 모든 국면을 수치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모형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수출 및 수입에 대한 장벽을 높이는 방법 외에는 없다. 또한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대러 제재는 여러 단계에 걸쳐 거의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CGE 모형과 같은 정량적 분석을 지양하고 정성적 분석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즉, 대러 제재의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유럽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중동부유럽 경제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한국 진출기업 면담을 비롯한 현지조사를 통해 정성적 분석 방법으로 중동부유럽 비즈니스 환경 변화를 살펴보았다. 한편 정량적 분석의 보조적인 방법으로 IMF, OECD 등 국제기구가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와 최근 발표한 전쟁과 제재의 영향을 고려한 경제전망을 적극 활용하였다. 전쟁 발발 직후 전망치 수정과 최근 전망치 수정 등을 주요 지표로 활용하여 중동부유럽 경제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2023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과 함께 전술한 바와 같이 현지조사 출장을 통해 중동부유럽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현지 비즈니스 상황의 변화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정성적으로 현지 비즈니스 애로 요인을 분석, 검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과 중동부유럽의 교역관계와 우리 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현황을 고려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즉, 중동부유럽 기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정성적인 파급 영향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 기업의 대중동부 전략을 재검토하였다.

현지 진출기업 면담 결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중동부유럽 진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는 공급망 문제, 에너지 가격 급등, 고용난 등의 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우리 정부의 중동부유럽과 경제협력에서 상기 부문에 대해 협력 상대국 정부에 분명한 문제제기와 함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 기업들도 기진출기업의 경험을 참고하여 상기 부문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와 해결방안을 가지고 중동부유럽 진출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문제가 되었던 글로벌 공급망이 어느 정도 정상화 추세를 보이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다시 악화되었다. 전쟁 발발 초기에 급격히 상승하였던 해상운송 비용은 다시 안정세를 찾았지만,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철도운송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심화되었다. 또한 전쟁의 여파로 트럭 운전사가 부족하여 육상운송 비용이 계속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부유럽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주로 아시아발 물류운송이 해상, 항공, 철도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는 해상운송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하지만 우리 업체 입장에서 중동부유럽으로 보내는 물류에 한국 국적 선사를 이용할 수 없어 주로 덴마크, 이탈리아, 독일 등의 외국 선사를 이용하고 있어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폴란드 진출기업 A사는 우리 정부의 대유럽 정책이 주로 서유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최근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중동부유럽에 더욱 관심을 가져줄 것을 희망하였다. 즉, 현재 중동부유럽에 삼성, LG, 현대, SK 등 대기업과 협력 업체들이 대거 진출해 있어 폴란드의 경우에만 한정해도 연간 약 500~700개 컨테이너 정도의 기본 수요가 보장되는바, 이 지역을 겨냥한 한국 국적 선사를 운영할 만하다는 것이다. 중동부유럽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서유럽 시장을 겨냥한 네덜란드와 독일의 항만보다는 남쪽으로는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그리고 북쪽으로는 폴란드 항만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EU 핵심국 정부 및 기업들은 최근 EU 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해 중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저렴한 V4로 관련 공급망을 이전하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EU 역내 공급망 강화 차원에서 자동차·배터리, 전자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도 최근 V4 진출이 활발하다. 특히 최근 들어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에너지가격 급상승에도 불구하고 V4 진출에 적극적인 것은 유럽의 전기차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확대 전망이 분명하고 EU의 배터리 공급망 강화 움직임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투자를 통한 EU 내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투자기업에 안정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과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며, 차세대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U의 공급망 재편에 참여하는 투자기업은 거대시장을 안

정적으로 확보하고, 투자유치국의 인센티브 혜택을 통해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한국은 이미 V4를 비롯한 중동부유럽에 자동차, 전자 등의 생산거점을 구축하고 있는바, 이를 유럽의 공급망 재편사업 참여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헝가리 진출기업을 비롯한 V4 진출기업이 공통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현지 비즈니스 환경 변화 중 에너지 가격 급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생산비의 급격한 증가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비즈니스 계획 수립을 가장 어렵게 하는 불확실성의 확대로 이어지는 문제이다. 이에 따라 최근 현지 진출 입지 가운데 전력 사정이 가장 안정적인 산업단지를 선호하는 경향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와 함께 현지 경영에서 에너지 비용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소를 비롯한 현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진출을 병행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지 정부는 이러한 병행 투자에 대해 일괄적인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매우 인색한 편이며 각각 별개의 투자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향후 중동부유럽 주요국 정부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이러한 병행 투자의 중요성을 이슈화할 필요가 있다. 즉, 한·중동부유럽 경제협력에 있어 주요 축인 현지 생산거점 투자와 신재생에너지 부문 투자를 패키지화하면 양국의 협력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중동부유럽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있어 현지의 고용난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다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CIS 출신 노동자의 공급이 병목현상을 보여 더욱 심화되었으며, 물가상승

으로 인한 임금인상 압력도 최근 들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헝가리 정부가 최근에 시행한 외국인노동자 고용 여건 개선과 노동공급 대상국 확대 조치를 폴란드 등 여타 V4 정부에도 정부간 경제협력기구를 통해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 진출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우리의 정부기관에 현지 고용 전문가를 파견하여 이와 같은 고용난 타개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의 중소기업에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한국과 중동부유럽의 경제협력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앞으로 우리의 유럽시장 겨냥 생산 거점은 주로 헝가리와 폴란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협력을 중심으로 향후 한·중동부유럽 경제협력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셋째, 양측의 경제협력 틀이 방산협력이나 정부조달시장 등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EU 및 셍겐 역내에서 생산비, 고용인력, 현지 정부의 투자인센티브, 한국과의 협력 의지 등으로 V4 중 2개국은 지속적인 협력 강화 추세이나, 나머지 2개국은 기존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선에 머물러 있다. 헝가리와 폴란드에는 최근까지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폴란드와는 방산, 원전 등 협력 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소득수준과 인건비 수준이 거의 선진국에 육박한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경우 이들의 EU 가입 초기에는 우리 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하였으나, 최근에는 기진출기업의 재투자 혹은 대체투자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V4 진출에 있어 이러한 각국의 공통성과 차별성

을 고려하여 진출 업종에 가장 적절한 국가에 투자 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의 유럽 시장을 겨냥한 생산 거점은 당분간 헝가리와 폴란드를 중심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중동부유럽 국가는 공통적으로 에너지 집약적 산업 기반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바, 이에 대한 단기적, 중장기적 대응은 유사한 정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공통적으로 V4를 비롯한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감축해야 하는 석탄 등 에너지 자원의 활용을 단기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성 증대와 에너지 소비 감소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V4 국가들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에너지의 새로운 공급원과 새로운 공급루트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폴란드는 최근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소비 급증, 저탄소 경제 전환, 신재생에너지 공급 불안정성 등으로 최근 원전 개발을 계획, 추진하고 있다. 폴란드의 1인당 평균 에너지 소비량은 아직까지 EU 최하 수준이나, 최근 들어 급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폴란드는 현재 국내 전력생산의 약 70% 정도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데, 2050년까지 석탄 자원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기준 폴란드의 대러시아 석탄 수입은 국내 생산의 15%에 달한다. 유럽 그린딜에 따른 2050년 탄소 제로 대안인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는 공급 측면에서 불안정성을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1단계 폴란드 원전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 미국과 프랑스 업체의 입찰가격을 인하 정도의 기능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으나, 총 6단계에 걸쳐 전개되는 폴란드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수주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결국 폴란드의 최초 원자력발전소 건설인 400억 달러 규모의 1단계 사업은 미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로 선정되었으나, 1단계 사업 수주의 성공 여부를 떠나 2단계를 비롯 향후 지속될 폴란드의 원전사업 참여와 함께 한국과 폴란드 간의 중장기 경제협력 틀에서 폴란드 원전 수주에 대해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폴란드와 미국 정부 간 원자력 협약(agreement) 내용을 검토하여 한·폴란드 정부 간 원자력 협약 체결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전반적인 한·폴란드 경제협력 방안과 폴란드 원전 수주 방안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기업의 유럽 생산거점을 폴란드에 구축한 상황을 적극 활용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공급망 협력 방안과 연계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한국형 혁신 소형 원자로 i-SMR 폴란드 진출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소형원전 도입을 고려하는 폴란드 대형 기업들과 초기 단계부터의 협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한국형 SMR 모델의 시장 선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한국산 방산물자 폴란드 수출 성공 사례에서 어떤 틈새전략이 유효하였는지, 기술이전 조건 등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검토도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즉, 폴란드 국민이 선호하는 미국산 및 유럽산 방산물자와의 경쟁에서 우리가 승리한 요인, 예를 들면 납기 조건과 기술이전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이처럼 총 6단계에 달하는 폴란드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중, 폴란드 정부는 첫 원전 건설인 1단계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2단계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폴란드 민간 주도 원전 건설에 관한 협정은 한국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지난 2022년 10월 31일 부총리 겸 폴란드 국가자산부 장

관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울에서 퐁트누프(Pątnów)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 협력,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폴란드의 최대 민간 에너지사 제 파크(ZE PAK: Zespół Elektrowni Pątnów-Adamów-Konin), 폴란드 국영 에너지그룹(PGE: Polska Grupa Energetyczna S.A.)이 참여하며 곧 사업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 2022년 말까지 예비 개발 계획을 준비하기로 합의하였다. 퐁트누프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는 제 파크사가 퐁트누프 지역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석탄화력발전소를 2024년까지 폐쇄하고 원자력발전소로 대체하는 사업이며, 1400MW급 원자로 최소 2기에서 최대 4기가 건설될 예정이다.

최근 한수원 중심의 해외 원전 협력은 인근 체코와 루마니아에서도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폴란드에서의 원전 협력은 우리 원전 기술의 유럽 진출에 그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수원은 한전기술 등 관련 회사들과 지난 11월 9일 부지 조사단을 구성, 신규 원전부지인 퐁트누프 발전소를 방문하였다. 또한 폴란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정부 및 민간주도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한 양국 기업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11월 10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정부와 사업 관계자 및 현지 공급사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APR1400 공급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와 함께 한수원은 지난 11월 7일과 8일, 체코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하여 협력하고 있는 체코 현지 기업 12곳을 방문해 사업 진행 현황을 설명하고 사업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였다.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국과 중동부유럽은 최근 한국의 무기 등을 비롯한 방산물자 및 정부조달시장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폴란드는 미국 무기 선호 현상이 존재하나, 미국, 독일 등 국가의 공급기한이 길어 한국을 선택하게 되었다. 폴란드 사정에 정통한 폴란드 학자 Nicolas Levi 교수(Vistula University)와의 면담에서 그는 최근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방산 부문에서 기술력과 신속한 공급능력을 갖춘 국가는 없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이번 한국산 무기 공급은 이상이 없을 경우 향후 30년간 한·폴란드 경제 관계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양국 정부가 주도하는 발전, 송배전, 통신, 교통, 물류, 의료 등 정책성 공공사업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기술 및 생산기반을 토대로 양국의 민관이 공동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최근 폴란드 정부가 주도하는 원전, 화력 등 발전시설 구축과 의료시설 현대화, 신공항 건설 등 공공사업에 한국정부는 국내기업이 해외진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상대국의 협력수요 파악과 공동연구개발 확대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차례

국문요약 ····· 3

제1장 서론 ····· 1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9
2. 선행연구 ····· 22
3. 연구 방법 및 구성 ····· 24

제2장 중동부유럽 주요국의 대러시아 경제관계 ····· 26

1. 교역 ····· 26
   가. 폴란드 ····· 31
   나. 체코 ····· 33
   다. 슬로바키아 ····· 36
   라. 헝가리 ····· 39
2. 투자 ····· 41
   가. 러시아의 대중동부유럽 투자 ····· 41
   나. 중동부유럽의 대러 투자 ····· 44
3. 에너지 ····· 53
   가. 폴란드 ····· 56
   나. 체코 ····· 58
   다. 슬로바키아 ····· 59
   라. 헝가리 ····· 60

제3장 EU 대러 제재의 중동부유럽 경제 영향 ····· 62

1. EU의 대러 제재 주요 내용 ····· 62
   가. 대러 제재 주요 내용 ····· 62
   나. 주요 파급 경로 ····· 67

2. 중동부유럽 경제 영향 ····· 70
가. 성장 및 물가 ····· 70
나.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 74
3. 진출기업의 현지 비즈니스 환경 변화 ····· 75
가. 현지 비즈니스 환경 변화의 공통점과 차별성 ····· 77
나. 주요국별 현지 비즈니스 환경 변화 주요 내용 ····· 81

제4장 한국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 ····· 100
1. 한국과 중동부유럽의 경제관계 ····· 100
가. 폴란드 ····· 100
나. 체코 ····· 104
다. 슬로바키아 ····· 108
라. 헝가리 ····· 109
2. 한·중동부유럽 경제협력 방향 ····· 115

참고문헌 ····· 122

Executive Summary ····· 128

표 차례

표 2-1. 중동부유럽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 품목 비중(SITC 3단위) ····· 29
표 2-2. 중동부유럽의 대러시아 주요 수입 품목 비중(SITC 3단위) ····· 30
표 2-3. 폴란드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 품목 비중(SITC 3단위) ····· 32
표 2-4. 폴란드의 대러시아 주요 수입 품목 비중(SITC 3단위) ····· 33
표 2-5. 체코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 품목 비중(SITC 3단위) ····· 35
표 2-6. 체코의 대러시아 주요 수입 품목 비중(SITC 3단위) ····· 35
표 2-7. 슬로바키아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 품목 비중(SITC 3단위) ····· 37
표 2-8. 슬로바키아의 대러시아 주요 수입 품목 비중(SITC 3단위) ····· 38
표 2-9. 헝가리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 품목 비중(SITC 3단위) ····· 40
표 2-10. 헝가리의 대러시아 주요 수입 품목 비중(SITC 3단위) ····· 41
표 2-11. 러시아의 국가별 대중동부유럽 해외직접투자(2012~21년) ····· 43
표 2-12. 중동부유럽 11개국의 분야별 대러시아 직접투자 (2022년 1월 1일 기준) ····· 44
표 2-13. 폴란드의 상위 10개 투자국 및 투자분야 ····· 46
표 2-14. 폴란드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추이(2016~21년) ····· 46
표 2-15. 폴란드의 대러시아 투자분야 ····· 47
표 2-16. 체코의 상위 10개 투자국 및 투자분야 ····· 48
표 2-17. 체코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순유출 및 순유입액 변동 추이 (2016~21년) ····· 48
표 2-18. 체코의 대러시아 투자분야 ····· 49
표 2-19. 슬로바키아의 상위 10개 투자국 및 투자분야 ····· 50
표 2-20. 슬로바키아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순유출 및 순유입액 변동 추이 (2016~20년) ····· 50
표 2-21. 슬로바키아의 대러시아 투자분야 ····· 51
표 2-22. 헝가리의 상위 10개 투자국 및 투자분야 ····· 52

표 2-23. 헝가리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순유출 및 순유입액 변동 추이 (2016~20년) ····· 52
표 2-24. 헝가리의 대러시아 투자분야 ····· 53
표 2-25. 폴란드의 연도별 대러시아 원유 수입액(2012~21년) ····· 57
표 2-26. 체코의 연도별 대러시아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액(2012~21년) ··· 59
표 2-27. 슬로바키아의 연도별 대러시아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액 (2012~21년) ····· 60
표 2-28. 헝가리의 연도별 대러시아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액(2012~21년) ····· 61
표 3-1. EU의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제재 현황 ····· 63
표 3-2. IMF의 중동부유럽 주요국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변화 ····· 74
표 3-3. IMF의 중동부유럽 주요국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변화 ····· 74
표 3-4. 면담기업의 주요 현황 ····· 76
표 4-1. 한국-폴란드 교역 현황 ····· 100
표 4-2. 한국의 대폴란드 투자 현황 ····· 103
표 4-3. 한국-체코 교역 현황 ····· 105
표 4-4. 한국의 대체코 품목별 수출입(2021년 기준) ····· 106
표 4-5. 한국의 대체코 투자 현황 ····· 106
표 4-6. 한국-슬로바키아 교역 현황 ····· 108
표 4-7. 한국-헝가리 교역 현황 ····· 110
표 4-8. 한국의 대헝가리 품목별 수출입(2021년 기준) ····· 111
표 4-9. 한국의 대헝가리 투자 현황 ····· 112
표 4-10. 한국의 대슬로바키아 품목별 수출입(2021년 기준) ····· 113
표 4-11. 한국의 대슬로바키아 투자 현황 ····· 114

그림 차례

그림 2-1. 중동부유럽-러시아, EU-러시아 교역액(2012~21년) ····· 27
그림 2-2. 중동부유럽-러시아 무역수지(2012~21년) ····· 28
그림 2-3. 폴란드-러시아 수출입 추이(2012~21년) ····· 31
그림 2-4. 체코-러시아 수출입 추이(2012~21년) ····· 34
그림 2-5. 슬로바키아의 대러시아 수출입 추이(2012~21년) ····· 37
그림 2-6. 헝가리-러시아 수출입 추이(2012~21년) ····· 39
그림 2-7. 러시아 해외직접투자(Outward FDI)(2012~21년) ····· 43
그림 2-8. 중동부유럽의 대러시아 에너지 수입액 ····· 54
그림 2-9. 중동부유럽의 대러시아 석탄 수입액 ····· 55
그림 2-10. 중동부유럽의 대러시아 석유 수입액 ····· 55
그림 2-11. 중동부유럽의 대러시아 가스 수입액 ····· 56
그림 2-12. 폴란드의 2012~20년 에너지믹스 ····· 57
그림 2-13. 체코의 2012~20년 에너지믹스 ····· 58
그림 2-14. 슬로바키아의 2012~20년 에너지믹스 ····· 59
그림 2-15. 헝가리의 2012~20년 에너지믹스 ····· 60
그림 3-1. GDP에 미치는 영향 ····· 71
그림 3-2. 인플레이션 영향 ····· 72
그림 3-3. V4 환율 변동 추이 ····· 78
그림 3-4. V4 물가상승률 ····· 79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로 인한 EU의 대러 제재는 러시아는 물론 EU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2023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러시아와의 무역, 기업 활동 및 에너지 부문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큰 중동부유럽 국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OECD의 거시모형 시뮬레이션[1]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발발 이후 1년간 전 세계 성장률을 1%p 이상 하락시키고 인플레이션은 약 2.5%p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OECD는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와 접경 국가를 중심으로 유럽 국가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교역 관계 측면에서도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

중동부유럽의 대러시아 정책은 반러 기조를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폴란드로부터 대표적인 친러 국가 헝가리에 이르기까지 국별로 다양한 정책 기조가 유지되거나 최근 들어 기조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국민들의 반러 감정이 매우 강한 폴란드는 높은 대러 에너지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중동부유럽에서 가장 단호한 반러시아 정책 기조를 고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가 2022년 초에 폴란드에 대한 가스공급 중단을 일찌감치 선언한 바 있다. 폴란드와 함께 EU 집행위원회와 대립 구도에 있는 헝가리는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가장 친러

1) OECD(2022a).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 헝가리는 EU 회원국 중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공급받고 있다. 이 밖에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최근 들어 반러 기조로 전환하였으며, 가장 최근에는 친러 성향의 불가리아가 반러 성향으로 급전환하면서 러시아로부터 가스공급 중단 조치를 통보받기도 하였다.

EU 내 중동부유럽 국가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거나 근접해 있고 과거 사회주의 동맹의 유산도 일부 남아 있어 친러시아 혹은 반러시아 관계와 상관없이 대체로 러시아와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다. 에너지 부문에서 특히 중동부유럽의 대러 의존도가 높아 EU의 러시아 에너지 수출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기 어려운 국가가 상당수이다. 전통적인 반러 국가인 폴란드와 최근 반러 성향으로 전환한 불가리아에 대해 러시아는 2022년 초에 가스공급을 중단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대표적인 친러 국가 헝가리와 중립적인 슬로바키아는 EU의 대러 가스 수입 루블화 결제 금지 관련 제재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하였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의 다섯 차례에 걸친 대러시아 제재는 우선 직접적으로 단기 충격이 예상되는 에너지 부문은 물론 무역, 투자, 금융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중동부유럽 국가에 심각한 영향이 불가피하다. 6차 제재에서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EU는 중동부유럽의 이러한 취약성을 감안, 신중한 검토와 협의 끝에 중동부유럽의 파이프라인에 의한 석유 및 가스 수입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국기업은 2004년과 2007년 EU의 중동부유럽으로의 확대과정에서 비세그라드 4국(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을 비롯한 중동부유럽에 대거 진출, 유럽의 생산거점을 구축하고, 그 후 추가 투자와 교역확대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비세그라드 4국(V4)은 2020년 우리의 대EU 수출의 28.3%를 점하고 있는 EU 내 최대 수출시장으로 특히 최근 우리 기업의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수출 및 투자 진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V4는 2020년 한국의 대EU 수출 477억 달러 중 28.3%에 해당하는 135억 달러의 수출 시장이며, 101

억 달러의 무역흑자로 EU 최대 무역흑자 대상 시장이다. 2000년대 후반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우리의 대V4 투자는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6월 누계 기준 84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2)]

이처럼 유럽 내에서 우리와 가장 활발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동부유럽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위기에 가장 심각하고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감안한 우리의 새로운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중동부유럽 주요국들은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대러 정책 성향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는바, 이에 따른 우리 기업의 차별화된 대응책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중동부유럽 국가에 대한 지정학적 위기의 경제적 영향과 관련하여 심도 깊은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대유럽 전략이 재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발발 이후 EU의 대러시아 제재가 중동부유럽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우리의 중동부유럽과의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최근 러시아발 지정학적 위기가 러시아와 가장 밀접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중동부유럽 경제에 교역, 투자 및 에너지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경제 전반에 대한 러시아와의 밀접 정도를 기반으로 서방의 대러 제재가 중동부유럽 경제와 산업에 상대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즉, 중동부유럽 주요국 경제의 대러 의존도와 경제구조의 특징을 기반으로 교역, 투자, 인플레이션 등에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와 함께 우리와 중동부유럽 국가와의 경제협력 현황을 바탕으로 상기 분석 결과를 감안한 새로운 대유럽 전략을 모색한다.

2) 한국수출입은행(2022), 「해외직접투자통계」,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1. 22).

2. 선행연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 2022년 2월 24일 개시되었으며, EU는 미국보다 늦은 2월 말부터 대러 제재를 본격화하였는바, 이에 대한 연구가 심도 깊게 분석이 이루어지기에는 너무 기간이 짧아 3월 이후 현안 대응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2022년 3월 21일 박정호 외(2022)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우크라이나 사태의 현황과 전망 시나리오를 먼저 살펴보고 국제사회의 대러 경제제재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제재가 러시아, 국제거시경제, 주요국 및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을 차례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자료의 중점 분석대상인 중동부유럽에 대한 영향은 언급이 전혀 없으며,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러시아와 한국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그 영향이 제한적임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조동희, 이현진, 윤형준(2022)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EU 제재의 제약요인과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EU의 러시아 제재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는데, EU 대러 제재에 대한 제약요인을 분석하였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EU에 미칠 영향과 시사점에 대해 연구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도 중동부유럽에 대한 영향은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미 의회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정책적 질의를 제시하기 위해 수행한 'Russia's War on Ukraine: The Economic Impact of Sanctions'를 들 수 있다.[3] 우크라이나 사태가 러시아 경제-금융, 실물, 에너지수출-에 미치는 영향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이 미 의회 입장에서 정책 제안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3) US Congress(2022).

서방의 대러 제재(Sanction) 영향에 대한 분석은 러시아가 2014년 3월 크림반도를 병합함에 따라 이루어진 대러 제재의 효과에 대한 연구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엄구호 외(2017)의 '대러 제재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서방의 대러 제재가 러시아 경제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서방의 대러 제재가 한국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동태적 연산가능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서방의 대러 제재는 당사자가 아닌 우리의 제조업 부문에서 약간의 위협요인을 감수하고라도 반사이익과 같은 기회요인이 존재하지만 서비스 부문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연구 중의 하나로 Ianchovichina, Devarajan, and Lakatos(2016)를 들 수 있다. 이 연구 역시 CGE 모형을 활용한 것으로 대이란 제재 해제의 경제적 영향 분석을 수행하였다. 즉,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가 이란의 후생은 물론 EU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CGE 모형을 활용한 제재 혹은 제재 해제의 경제적 영향 분석에는 분명 현실적인 제약이 명확하다. CGE 분석에서는 대러 제재에 대한 모든 국면을 수치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모형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수출 및 수입에 대한 장벽을 높이는 방법 외에는 없다. 또한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대러 제재는 여러 단계에 걸쳐 거의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자료의 분석 대상은 러시아 경제와 이를 통한 한국에 대한 영향이 아니라 제재 당사자이면서 이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동부유럽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CGE 모형과 같은 정량적 분석을 지양하고 정성적 분석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즉, 대러 제재의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유럽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중동부유럽 경제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우리의 진출기업 면담을 비롯한 현지조사를 통해 정성적 분석 방법으로 중동부유럽 비즈니스 환경 변화를 살펴본다. 한편

정량적 분석의 보조적인 방법으로 IMF, OECD 등 국제기구가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와 최근 발표한 전쟁과 제재의 영향을 고려한 경제전망을 적극 활용한다. 전쟁 발발 직후 전망치 수정과 최근 전망치 수정 등을 주요 지표로 활용하여 중동부유럽 경제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2023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

3. 연구 방법 및 구성

중동부유럽 주요국의 경제 전반에 걸쳐 대러 의존도를 조사하여 EU의 대러시아 제재를 비롯한 지정학적 위기가 중동부유럽 주요국 경제와 산업에 상대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중동부유럽 주요국 경제의 대러 의존도와 대외의존도를 비롯한 경제구조 등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국별 영향의 차별성을 분석한다. 또한 이러한 중동부유럽 주요국의 국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비교 분석과 함께 전술한 바와 같이 현지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정성적으로 현지 비즈니스 애로 요인을 분석, 검토한다. 이를 위해 현지조사 출장을 통해 중동부유럽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현지 비즈니스 상황의 변화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과 중동부유럽의 교역관계와 우리 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현황을 고려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즉, 중동부유럽 기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정성적인 파급 영향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 기업의 대중동부 전략 재검토를 모색한다.

이는 향후 우리의 대EU 및 대중동부유럽 경제협력 방향성 재검토 및 우리 기업의 유럽진출 전략 모색에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유럽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경제안보 전략 검토에 필요한 분석 자료로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보다 직접적으로 이러한 연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유럽의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고 중동부유럽 중심의 우리 기업 유럽 GVC에 대한 재검토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광범위하게는 우리의 대EU 및 대중동부유럽 경제협력 제고 방안 및 한국기업의 새로운 유럽시장 진출전략 모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자료는 크게 세 가지 이슈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첫째, 중동부유럽 국가가 러시아와 얼마나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지, 둘째, 그래서 러시아발 지정학적 위기가 중동부유럽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마지막으로 셋째, 한국 기업과 정부는 중동부유럽과의 경제관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이다. 따라서 서론 1장에 이어 2장에서는 교역, 투자, 에너지 등 중동부유럽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 조명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EU의 대러 제재와 파급 경로, 중동부유럽 경제에 대한 영향 및 진출기업 현지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전술한 분석과 함께 한국과 중동부유럽 경제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 및 정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2장 중동부유럽[4] 주요국의 대러시아 경제관계

1. 교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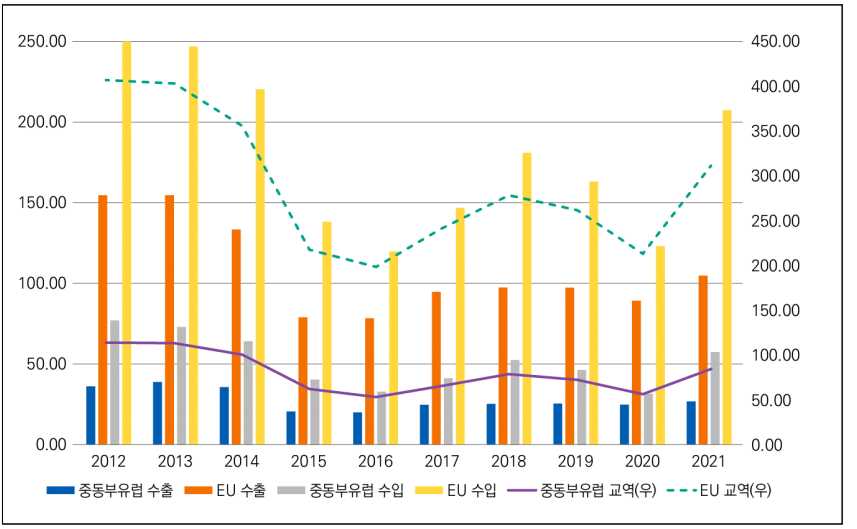
중동부유럽 국가의 대러시아 교역(수출과 수입을 합한 금액)은 EU의 대러시아 교역에서 2012년 28.11%, 2015년 28.14%, 2021년 27.08%를 차지하면서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중이다(그림 2-1 참고). 다만 2021년 EU의 대러시아 교역액이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 대비 중동부유럽의 대러시아 교역액의 변동폭은 크지 않다.

연도별로 중동부유럽과 러시아의 교역액을 비교해보면, 2012년 최고치를 달성한 이후 2016년까지 하락했다. 2012년 양국의 교역액은 1,141억 7,000만 달러를 달성했으나, 이후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EU의 대러 경제제재와 러시아의 수입대체정책 등으로 양측의 교역액은 2015년 612억 6,000만 달러, 2016년은 528억 1,000만 달러까지 떨어졌다. 이후 2018년 782억 달러까지 증가하면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다시 563억 8,000만 달러까지 하락했다. 2021년 일상회복, 이동 증가 등으로 교역액은 846억 4,000만 달러까지 반등했으나,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다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4) 본 장에서 중동부유럽은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총 11개국이며, 중동부유럽 주요국은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4개국이다.

그림 2-1. 중동부유럽-러시아, EU-러시아 교역액(2012~21년)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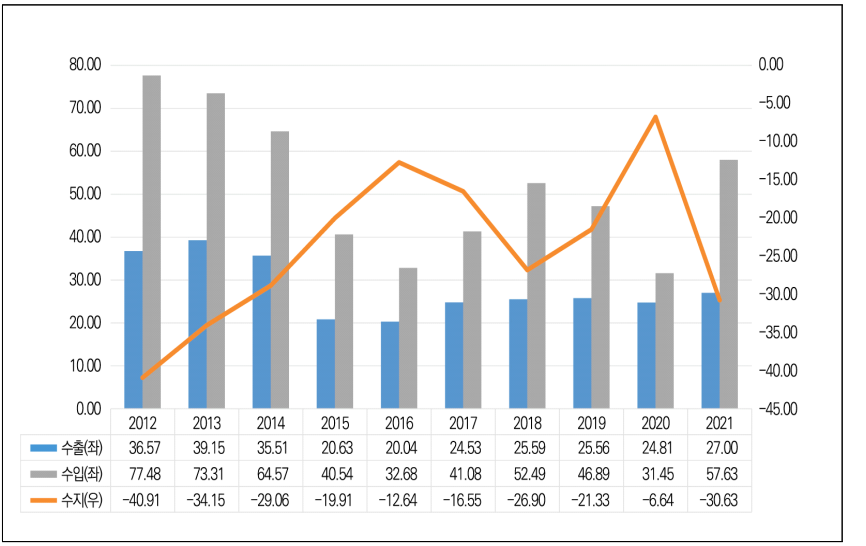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 DB(검색일: 2022. 12. 6).

중동부유럽의 대러시아 무역수지 적자는 수입액 증감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2015년과 2016년 양국 간 교역액이 대폭 감소했는데, 그 기간에 무역수지는 개선되었다. 수출은 2013년 391억 5,000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2016년 200억 달러에 그치면서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러시아 수입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2012년 776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최저치는 2020년 315억 8,000만 달러에 그쳤다.

그림 2-2. 중동부유럽-러시아 무역수지(2012~21년)

(단위: 십억 달러)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출(좌)	36.57	39.15	35.51	20.63	20.04	24.53	25.59	25.56	24.81	27.00
수입(좌)	77.48	73.31	64.57	40.54	32.68	41.08	52.49	46.89	31.45	57.63
수지(우)	-40.91	-34.15	-29.06	-19.91	-12.64	-16.55	-26.90	-21.33	-6.64	-30.63

자료: UN Comtrade DB(검색일: 2022. 12. 6).

품목별로 살펴보면 중동부유럽의 대러시아 수출은 자동차, 의약품, 기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입품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원자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징적인 점은 대러시아 수입품목이 매우 편중되어 있는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살펴보면 점차 석유 수입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천연가스의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EU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연계해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각 회원국별로 에너지원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2012년과 비교했을 때 전체 교역액이 줄어든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자재의 특성상 가격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수입액만으로 전체적인 수입량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중동부유럽의 대러시아 수출 품목은 2021년 기준으로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6.4%), 의약품(5.2%), 승용차(3.6%),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장치(3.2%), 향수 및 화장품, 화장용품(3.2%)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측의 교역액이 가장 많

았던 2012년과 교역액이 가장 적은 2016년 10대 대러시아 수출 품목을 살펴보면 큰 변동이 없이 자동차와 관련품, 의약품, 알콜음료, 화장품, 기계류 등으로 이루어진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중 신선, 건조 과실 및 견과류는 2012년 전체 2.2%, 6위 수출 품목이었으나, 2016년과 2021년에는 각각 0.1%로 급감했다. 러시아가 2014년 미국과 EU의 경제제재에 대응 차원에서 미국산 식품과 유럽산 과일 수입을 금지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5)]

표 2-1. 중동부유럽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 품목 비중(SITC 3단위)

	2012년		2016년		2021년	
	품목명	%	품목명	%	품목명	%
1	승용차	6.7	의약품	6.8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	6.4
2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	6.5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	5.5	의약품	5.2
3	통신장비	6.1	향수 및 화장품, 화장용품	3.4	승용차	3.6
4	의약품	5.6	승용차	3.4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장치	3.2
5	알콜음료	2.3	알콜음료	3.2	향수 및 화장품, 화장용품	3.0
6	신선, 건조 과실 및 견과류	2.2	통신장비	3.0	알콜음료	2.8
7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장치	2.2	냉동공조기계	2.7	가정용 기기	2.5
8	냉동공조기계	2.1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장치	2.7	전기기계 및 장치	2.4
9	내연기관	1.9	가정용 기기	2.3	기타 특수산업용 기계	2.3
10	향수 및 화장품, 화장용품	1.8	기체 및 가스펌프	2.1	냉동공조기계	2.2

자료: UN Comtrade DB(검색일: 2022. 12. 6).

2021년 중동부유럽 지역의 대러시아 수입 품목은 원유(33.3%), 천연가스(18.5%), 정제 석유제품(8.7%), 기타 상품(7.7%), 석탄(2.1%), 비료(1.9%), 기타 석유생산품(1.9%)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듯 중동부유럽은 러시아에서

5) Reuters(2014. 8. 6), "Russia bans all U.S. food, EU fruit and veg in sanctions response: NATO fears invasion,"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12. 8).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원과 고무, 철, 알루미늄 등의 철광 및 미네랄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또한 대러 수입 품목 중 비료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폴란드의 경우 넓은 영토를 보유한 국가로 농업이 발달되어 있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비료 수입이 중단되어 2023년 이후 사용할 비료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6)]

표 2-2. 중동부유럽의 대러시아 주요 수입 품목 비중(SITC 3단위)

	2012년		2016년		2021년	
	품목명	%	품목명	%	품목명	%
1	역청광물에서 획득한 석유 원유	59.2	역청광물에서 획득한 석유 원유	48.5	역청광물에서 획득한 석유 원유	33.3
2	액화 또는 비액화 천연가스	15.3	액화 또는 비액화 천연가스	16.0	액화 또는 비액화 천연가스	18.5
3	종류에 따라 분류되지 않은 특별 거래 및 상품	6.0	종류에 따라 분류되지 않은 특별 거래 및 상품	5.9	역청광물에서 획득한 정제 석유제품	8.7
4	역청광물에서 획득한 정제 석유제품	4.2	역청광물에서 획득한 정제 석유제품	5.3	종류에 따라 분류되지 않은 특별 거래 및 상품	7.7
5	가정용 기계	1.6	비료	1.9	비응결 분쇄 및 미분쇄 석탄	2.1
6	비응결 분쇄 및 미분쇄 석탄	1.3	알루미늄	1.9	비료	1.9
7	합성고무, 재생고무	1.1	비응결 분쇄 및 미분쇄 석탄	1.6	달리 명시되지 않은 잔여 석유생산물 및 관련물질	1.9
8	철광석 및 정광	0.9	가정용 기계	1.5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1.7
9	비료	0.8	합성고무, 재생고무	1.3	알루미늄	1.5
10	무기화학원소,산화물 및 할로겐염	0.8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1.2	무기화학원소,산화물 및 할로겐염	1.3

자료: UN Comtrade DB(검색일: 2022. 12.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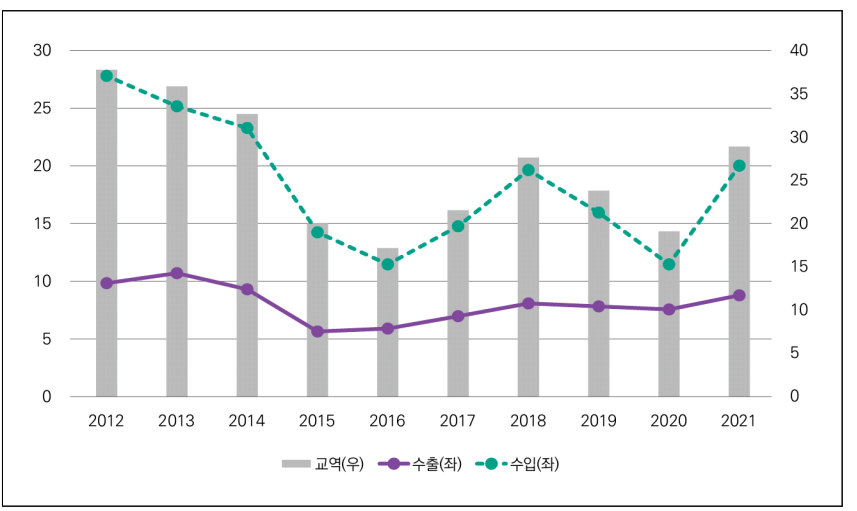
6)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출장(2022. 10. 16~27) 중 간담회 진행. 폴란드 Vistula 대학 Nicolas Levi 교수 간담회(2022. 10. 19, 폴란드 바르샤바).

가. 폴란드

폴란드와 러시아의 교역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수출 87억 8,938만 달러, 수입 201억 1,428만 달러 수준이다. 폴란드의 대러시아 무역수지는 분석 기간 동안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수출액의 변동보다 수입액의 변동폭이 더 큰데, 이는 원자재가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수입구조상 수입량과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2012년 양국의 교역액은 수출 98억 9,826만 달러, 수입 279억 5,618만 달러를 달성해 현재까지 최고액을 기록한 기간이다. 앞서 살펴본 중동부유럽 국가의 흐름과 같이 2016년 수출은 57억 8,791만 달러, 수입 115억 3,697만 달러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림 2-3. 폴란드-러시아 수출입 추이(2012~21년)

(단위: 십억 달러)



자료: UN Comtrade DB(검색일: 2022. 12. 6).

폴란드의 대러시아 수출 품목은 2021년 기준으로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장치(4.8%),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4.7%), 가정용 기기(4.5%), 향수 및 화장품,

화장용품(4.2%), 의약품(3.5%) 순이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자동차부품, 향수 및 화장품, 가정용 기기, 의약품, 안료, 페인트 니스 등을 꼽을 수 있다. 같은 기간 연도별 상위 10개 품목이 평균적으로 전체 대러시아 수출의 약 33%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바, 수출품목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SITC 1단위 기준 식품 및 살아있는 동물(0), 화학물 및 관련제품(5), 재료별 제조제품(6), 기계 및 운수장비(7) 등 여러 산업군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3. 폴란드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 품목 비중(SITC 3단위)

	2012년		2016년		2021년	
	품목명	%	품목명	%	품목명	%
1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	5.9	향수 및 화장품, 화장용품	5.6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장치	4.8
2	향수 및 화장품, 화장용품	4.0	선박, 보트 및 부유구조물	4.7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	4.7
3	통신장비	4.0	의약품	4.3	가정용 기기	4.5
4	신선, 건조 과실 및 견과류	3.5	가정용 기기	3.3	향수 및 화장품, 화장용품	4.2
5	가정용 기기	2.9	제지 및 판지	2.8	의약품	3.5
6	제지 및 판지	2.7	안료, 페인트 니스 및 관련물질	2.8	달리 명시되지 않은 금속 제품	3.0
7	선박, 보트 및 부유구조물	2.5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	2.5	기타 특수산업용 기계	2.8
8	가구, 침구류	2.2	종이 및 판지, 섬유사	2.5	안료, 페인트 니스 및 관련물질	2.5
9	안료, 페인트 니스 및 관련물질	2.2	기타 특수산업용 기계	2.4	가구, 침구류	2.2
10	의약품	2.1	달리 명시되지 않은 플라스틱제의 물품	2.2	종이 및 판지, 섬유사	2.1

자료: UN Comtrade DB(검색일: 2022. 12. 6).

반면 대러시아 수입 품목은 주로 원자재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 수입 품목은 원유(32.7%), 기타 상품(22.1%), 석유제품(11.5%), 석탄(3.9%), 탄화수소(2.9%), 철(2.8%), 알루미늄(2.0%), 비료(1.8%)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폴란드는 지난 10년간 러시아에서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류를 주로 수입하였다.

표 2-4. 폴란드의 대러시아 주요 수입 품목 비중(SITC 3단위)

	2012년		2016년		2021년	
	품목명	%	품목명	%	품목명	%
1	역청광물에서 획득한 석유 원유	67.1	역청광물에서 획득한 석유 원유	49.6	역청광물에서 획득한 석유 원유	32.7
2	종류에 따라 분류되지 않은 특별 거래 및 상품	16.7	종류에 따라 분류되지 않은 특별 거래 및 상품	15.7	종류에 따라 분류되지 않은 특별 거래 및 상품	22.1
3	가정용 기계	3.2	역청광물에서 획득한 정제 석유제품	5.0	역청광물에서 획득한 정제 석유제품	11.5
4	비응결 분쇄 및 미분쇄 석탄	2.3	알루미늄	3.3	비응결 분쇄 및 미분쇄 석탄	3.9
5	합성고무, 재생고무	1.1	가정용 기계	3.1	석유 가스 및 기타 가스 탄화수소	2.9
6	선박,보트 및 부유구조물	0.9	비응결 분쇄 및 미분쇄 석탄	2.8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2.8
7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0.9	비료	2.2	알루미늄	2.0
8	무기화학원소,산화물 및 할로겐염	0.9	선박,보트 및 부유구조물	1.6	비료	1.8
9	알루미늄	0.8	합성고무, 재생고무	1.5	무기화학원소,산화물 및 할로겐염	1.4
10	비료	0.7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1.3	철 또는 강철 주괴 및 기타 1차 형상; 반제품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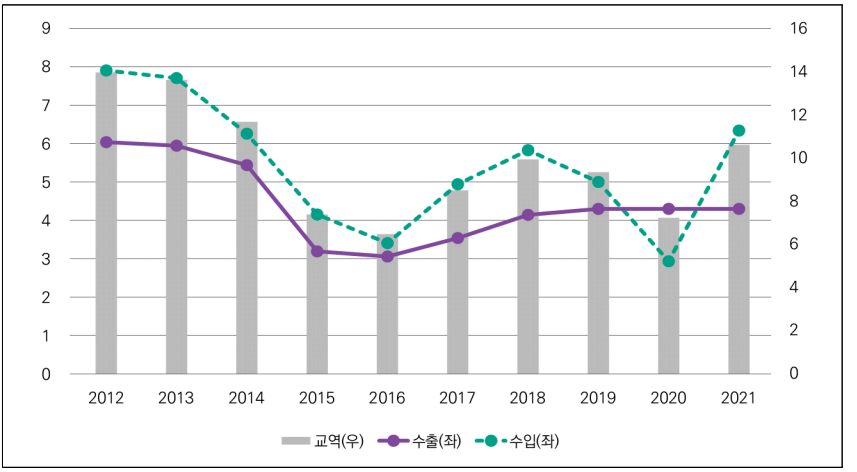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 DB(검색일: 2022. 12. 6).

나. 체코

체코와 러시아의 교역은 2021년 기준 수출 43억 2,024만 달러, 수입 63억 2,910만 달러 수준이다. 체코의 대러시아 무역수지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2020년을 제외하고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앞서 살펴본 폴란드와 비교했을 때 체코의 대러시아 무역수지 적자 폭은 크지 않다. 2012년 양국의 교역액은 수출 60억 3,312만 달러, 수입 79억 377만 달러를 기록했다. 앞서 살펴본 중동부유럽 국가 전체와 폴란드의 흐름과 같이 2016년 수출은 30억 7,415만 달러, 수입 34억 1,141만 달러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림 2-4. 체코-러시아 수출입 추이(2012~21년)

(단위: 십억 달러)



자료: UN Comtrade DB(검색일: 2022. 12. 6).

체코의 대러시아 수출 품목을 먼저 살펴보면, 2021년 기준으로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17.7%),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장치(7.1%), 유모차, 장난감, 게임 및 스포츠 용품(4.3%), 전기기계 및 장치(4.1%),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기기(3.5%), 내연기관(3.4%), 냉음극관(3.0%) 순이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승용차, 자동차부품, 자동자료처리기계, 장난감·게임·스포츠 용품 등을 꼽을 수 있다. 폴란드와 달리 체코의 대러시아 수출품 중 승용차와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체코의 수출품은 SITC 1단위 기준 화학물 및 관련제품(5), 기계 및 운수장비(7), 기타 제조제품(8)에 집중되어 있다.

표 2-5. 체코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 품목 비중(SITC 3단위)

	2012년		2016년		2021년	
	품목명	%	품목명	%	품목명	%
1	승용차	19.5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	10.4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	17.7
2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장치	9.5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장치	9.4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장치	7.1
3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	7.3	유모차, 장난감, 게임 및 스포츠 용품	5.5	유모차, 장난감, 게임 및 스포츠 용품	4.3
4	냉동공조기계	3.8	전기기계 및 장치	4.1	전기기계 및 장치	4.1
5	통신장비	3.2	승용차	3.9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기기	3.5
6	전기기계 및 장치	3.1	냉동공조기계	3.6	내연기관	3.4
7	기타 특수산업용 기계	2.7	의약품	2.9	냉음극관	3.0
8	의약품	2.5	기체 및 가스펌프	2.5	기체 및 가스펌프	2.5
9	유모차, 장난감, 게임 및 스포츠 용품	2.2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기기	2.4	통신장비	2.4
10	내연기관	2.1	감압밸브, 유압, 공기압밸브 등	2.2	냉동공조기계	2.2

자료: UN Comtrade DB(검색일: 2022. 12. 6).

반면 대러시아 수입 품목은 다른 중동부유럽과 같이 주로 원자재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 수입 품목은 천연가스(44.7%), 원유(27.6%), 철(5.6%), 무기화학원소(3.2%), 철광석(2.2%)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코는 다른 국가와 유사하게 지난 10년간 러시아에서 원유, 천연가스를 비롯한 원자재류를 주로 수입하였다.

표 2-6. 체코의 대러시아 주요 수입 품목 비중(SITC 3단위)

	2012년		2016년		2021년	
	품목명	%	품목명	%	품목명	%
1	역청광물에서 획득한 석유 원유	46.8	액화 또는 비액화 천연가스	35.3	액화 또는 비액화 천연가스	44.7
2	액화 또는 비액화 천연가스	36.5	역청광물에서 획득한 석유 원유	31.8	역청광물에서 획득한 석유 원유	27.6
3	철광석 및 정광	2.3	기타 발전 기계	4.9	철 또는 강철 주괴 및 기타 1차 형상; 반제품	5.6

표 2-6. 계속

	2012년		2016년		2021년	
	품목명	%	품목명	%	품목명	%
4	기타 발전 기계	2.2	철 또는 강철 주괴 및 기타 1차 형상; 반제품	4.6	무기화학원소, 산화물 및 할로겐염	3.2
5	합성고무, 재생고무	1.8	알루미늄	3.0	철광석 및 정광	2.2
6	무기화학원소,산화물 및 할로겐염	1.6	철광석 및 정광	2.2	기타 발전 기계	2.2
7	철 또는 강철 주괴 및 기타 1차 형상; 반제품	1.4	무기화학원소,산화물 및 할로겐염	2.2	알루미늄	1.6
8	알루미늄	0.7	합성고무, 재생고무	1.5	합성고무, 재생고무	1.0
9	고무 타이어 등	0.6	보석류, 금세공품 등	1.3	고무 타이어 등	0.8
10	선철, 스폰지 철, 등; 합금철	0.6	고무 타이어 등	1.2	베니어판, 합판, 파티클 보드 등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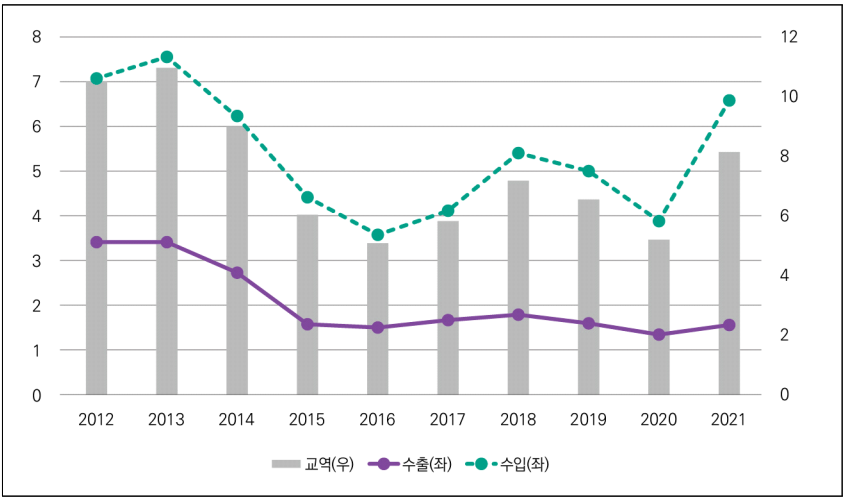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 DB(검색일: 2022. 12. 6).

다.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와 러시아의 교역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수출 15억 8,258만 달러, 수입 65억 8,711만 달러 수준이다. 슬로바키아의 대러시아 무역수지는 분석기간동안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슬로바키아와 러시아의 교역액은 앞서 살펴본 폴란드, 체코와 달리 2013년 교역액이 수출 34억 1,089만 달러, 수입 75억 7,499만 달러 최고 수준이다. 2012년과 2013년 교역액은 큰 차이가 없는데, 2012년 대비 2013년 수출액이 소폭 증가해 교역액도 동시에 증가했다. 반대로 앞서 살펴본 중동부유럽 국가의 흐름과 같이 2016년에 수출 14억 7,718만 달러, 수입 36억 1,182만 달러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림 2-5. 슬로바키아의 대러시아 수출입 추이(2012~21년)

(단위: 십억 달러)



자료: UN Comtrade DB(검색일: 2022. 12. 6).

슬로바키아의 대러시아 수출 품목을 먼저 살펴보면, 2021년 기준으로 승용차(48.8%), 기체 및 가스펌프(3.7%),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3.1%), 위생, 배관 및 난방기구(2.6%), 고무 타이어(2.4%) 순이다. 슬로바키아의 수출 품목은 폴란드, 체코와 비교했을 때 승용차, 자동차부품 등에 집중되어 있다.

표 2-7. 슬로바키아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 품목 비중(SITC 3단위)

	2012년		2016년		2021년	
	품목명	%	품목명	%	품목명	%
1	통신장비	25.0	승용차	22.1	승용차	48.8
2	승용차	21.1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	21.6	기체 및 가스펌프	3.7
3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	18.2	통신장비	11.6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	3.1
4	내연기관	8.9	내연기관	6.5	위생, 배관 및 난방 기구	2.6
5	위생, 배관 및 난방 기구	1.8	텔레비전 수신기	3.6	고무 타이어 등	2.4
6	텔레비전 수신기	1.7	기체 및 가스펌프	3.4	가구, 침구류	1.7
7	기체 및 가스펌프	1.6	위생, 배관 및 난방 기구	2.6	전기기계 및 장치	1.7
8	의약품	1.4	고무 타이어 등	1.7	텔레비전 수신기	1.7

표 2-7. 계속

	2012년		2016년		2021년	
	품목명	%	품목명	%	품목명	%
9	가구, 침구류	1.3	제지 및 판지	1.6	기타 특수산업용 기계	1.5
10	달리 명시되지 않은 금속 제품	1.0	운반하역기계	1.6	농업용 기계	1.4

자료: UN Comtrade DB(검색일: 2022. 12. 6).

반면 대러시아 수입 품목은 주로 원자재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 수입 품목은 천연가스(46.3%), 원유(37.9%), 철광석(6.6%), 석탄(1.6%), 고무(1.0%)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8. 슬로바키아의 대러시아 주요 수입 품목 비중(SITC 3단위)

	2012년		2016년		2021년	
	품목명	%	품목명	%	품목명	%
1	역청광물에서 획득한 석유 원유	60.3	역청광물에서 획득한 석유 원유	47.6	액화 또는 비액화 천연가스	46.3
2	액화 또는 비액화 천연가스	27.2	액화 또는 비액화 천연가스	35.4	역청광물에서 획득한 석유 원유	37.9
3	철광석 및 정광	3.2	철광석 및 정광	4.1	철광석 및 정광	6.6
4	기타 발전 기계	2.3	기타 발전 기계	2.8	비응결 분쇄 및 미분쇄 석탄	1.6
5	비응결 분쇄 및 미분쇄 석탄	2.1	비응결 분쇄 및 미분쇄 석탄	1.8	합성고무, 재생고무	1.0
6	합성고무, 재생고무	1.2	합성고무, 재생고무	1.3	기타 발전 기계	0.9
7	무기화학원소,산화물 및 할로겐염	0.5	무기화학원소,산화물 및 할로겐염	1.0	무기화학원소,산화물 및 할로겐염	0.8
8	철 및 강철봉, 봉, 앵글 등	0.4	철 및 강철봉, 봉, 앵글 등	0.9	철 및 강철봉, 봉, 앵글 등	0.6
9	알코올, 페놀 등 및 그 유도체	0.4	고무 타이어 등	0.6	알코올, 페놀 등 및 그 유도체	0.4
10	화물차, 특수 자동차	0.2	알코올, 페놀 등 및 그 유도체	0.4	고무 타이어 등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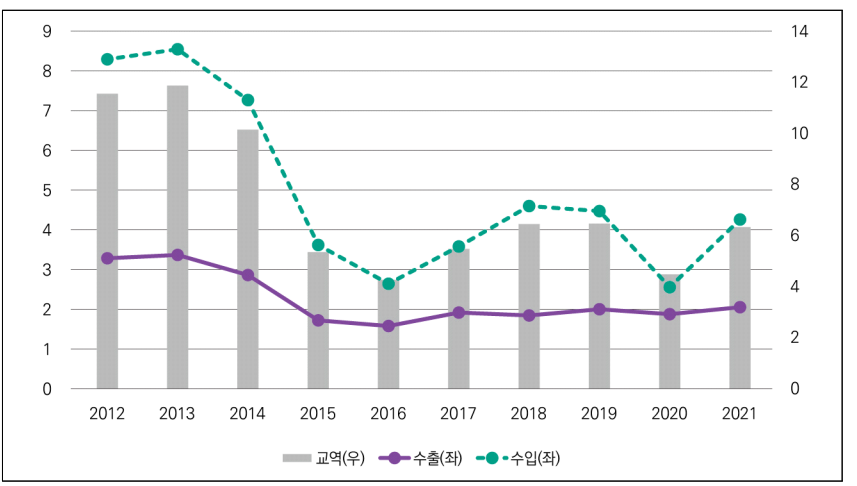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 DB(검색일: 2022. 12. 6).

라. 헝가리

헝가리와 러시아의 교역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수출 20억 6,758만 달러, 수입 42억 6,944만 달러 수준이다. 헝가리의 대러시아 무역수지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헝가리와 러시아의 교역액은 2013년 수출 33억 7,389만 달러, 수입 85억 4,071만 달러로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반면 2016년에는 수출 15억 9,536만 달러, 수입 26억 3,673만 달러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림 2-6. 헝가리-러시아 수출입 추이(2012~21년)

(단위: 십억 달러)



자료: UN Comtrade DB(검색일: 2022. 12. 6).

헝가리의 대러시아 수출 품목을 먼저 살펴보면, 2021년 기준으로 의약품(10.1%), 승용차(8.0%), 의료 및 제약제품(5.2%), 제지 및 판지(5.2%), 전기회로(4.6%), 통신장비(4.5%),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장치(3.7%) 순이다. 헝가리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 품목은 의약품이다. 2012년 18.2%, 2016년 18.6%,

2021년 10.1%로 전체적인 비중은 줄었지만,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수출품 1위를 유지 중이다. 같은 기간 연도별 상위 10개 품목이 평균적으로 전체 대러시아 수출의 약 57%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SITC 1단위 기준 식품 및 살아있는 동물(0), 화학물 및 관련제품(5), 재료별 제조제품(6), 기계 및 운수장비(7) 등 여러 산업군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9. 헝가리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 품목 비중(SITC 3단위)

	2012년		2016년		2021년	
	품목명	%	품목명	%	품목명	%
1	의약품	18.2	의약품	18.6	의약품	10.1
2	통신장비	15.1	제지 및 판지	7.8	승용차	8.0
3	승용차	6.0	의료 및 제약제품 (의약품 제외)	6.1	의료 및 제약제품 (의약품 제외)	5.2
4	사무기기	5.1	통신장비	5.7	제지 및 판지	5.2
5	제지 및 판지	4.7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기기	5.0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기기	4.6
6	의료 및 제약제품 (의약품 제외)	3.5	승용차	4.1	통신장비	4.5
7	텔레비전 수신기	3.1	제분되지 않은 옥수수	3.8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장치	3.7
8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장치	2.2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	2.7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	2.8
9	고무 타이어 등	1.9	동물용 사료	2.2	제분되지 않은 옥수수	2.6
10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	1.6	액체용 펌프	2.2	농업용기계	2.5

자료: UN Comtrade DB(검색일: 2022. 12. 6).

반면 대러시아 수입 품목은 주로 원자재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 수입 품목은 천연가스(42.5%), 원유(40.0%). 고무(2.2%), 무기화학원소(2.1%), 발전기계(1.3%), 가정용 기계(1.2%), 비료(1.1%), 철도차량 및 관련 장비(1.0%), 석탄(0.9%), 알루미늄(0.8%)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헝가리는 지난 10년간 러시아에서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류를 주로 수입하였다.

표 2-10. 헝가리의 대러시아 주요 수입 품목 비중(SITC 3단위)

	2012년		2016년		2021년	
	품목명	%	품목명	%	품목명	%
1	역청광물에서 획득한 석유 원유	53.1	역청광물에서 획득한 석유 원유	56.0	액화 또는 비액화 천연가스	42.5
2	액화 또는 비액화 천연가스	27.1	액화 또는 비액화 천연가스	24.3	역청광물에서 획득한 석유 원유	40.0
3	역청광물에서 획득한 정제 석유제품	9.1	합성고무, 재생고무	4.0	합성고무, 재생고무	2.2
4	합성고무, 재생고무	2.8	기타 발전 기계	2.5	무기화학원소,산화물 및 할로겐염	2.1
5	기타 발전 기계	1.6	무기화학원소,산화물 및 할로겐염	1.9	기타 발전 기계	1.3
6	무기화학원소,산화물 및 할로겐염	1.4	가정용 기계	1.6	가정용 기계	1.2
7	가정용 기계	0.8	비료	1.5	비료	1.1
8	비료	0.8	달리 명시되지 않은 탄화수소	1.5	철도 차량 및 관련 장비	1.0
9	달리 명시되지 않은 탄화수소	0.7	철광석 및 정광	1.2	비응결 분쇄 및 미분쇄 석탄	0.9
10	철광석 및 정광	0.6	알루미늄	1.1	알루미늄	0.8

자료: UN Comtrade DB(검색일: 2022. 12. 6).

2. 투자

가. 러시아의 대중동부유럽 투자

러시아의 대중동부유럽 투자는 2021년 말 기준 전체 0.2% 수준이다. 러시아는 중동부유럽 국가 중 비세그라드 4국(V4)에 대부분 투자를 하고 있다. 같은 기간 러시아의 대EU 투자는 전체 73.5%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2년 이후

2019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비중이다. 러시아의 대중동부유럽 투자 금액은 많지 않지만, 해당 지역은 러시아와 문화·지리·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온 점은 변함이 없으며, 러시아는 해당 국가에 정치·외교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부터 중동부유럽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러시아와의 경제·외교 관계를 축소하고자 EU와 협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고조화되면서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일부 국가는 EU 집행위에 대러 제재 강화를 촉구하기도 했다.[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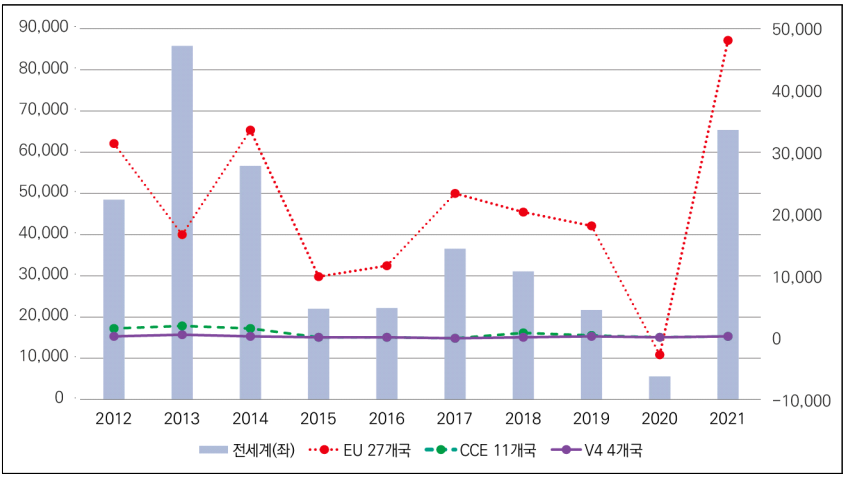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는 2013년 865억 700만 달러 기록 후 2014년부터 하락했다. 특히 2015년 투자금액이 급감한 것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서방국가의 경제제재 여파로 러시아 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것과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인한 자국화폐 가치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러시아의 투자액은 658억 8,276만 달러까지 증가했는데, 그중 71.5%에 해당하는 470억 달러가 사이프러스로 유입되었다.[8] 사이프러스를 제외하면 2021년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는 188억 500만 달러로 2020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7) The Office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Lithuania(2022. 3. 24), "Prime Ministers of Baltic States and Poland call on the EU to ban Russian and Belarusian road freight transport and to block ships from entering EU ports," 온라인 자료; European Council for an Energy Efficient Economy(2022. 4. 4), "Baltic states become first in Europe to stop Russian gas imports,"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2. 12. 8).

8) 사이프러스는 러시아의 대표 조세피난처로 소련 해체 직후부터 러시아 자금이 유입되었다. 러시아 개인 및 은행 자금이 사이프러스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데,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예치금액을 약 310억 달러, 사이프러스 소재 러시아 기업 대출금 약 400억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BBC(2013. 3. 18), "Russian money in Cyprus: Why is there so much?"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12. 8).

그림 2-7. 러시아 해외직접투자(Outward FDI)(2012~21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Центральный Банк России, Прямые инвестиции из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а рубеж,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2. 12. 8).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동부유럽 국가 중 분석기간 동안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가 가장 많이 유입된 곳은 체코다. 체코는 2015~16년, 2021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금액이 유입된 국가다. 체코의 대러시아 투자 금액 중 부동산 투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분야별 해외직접투자금액은 공개되지 않아 해당 자금의 주요 투자처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듯 투자분야에서 러시아와 중동부유럽은 밀접한 경제협력을 구축하고 있지 않다.

표 2-11. 러시아의 국가별 대중동부유럽 해외직접투자(2012~21년)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폴란드	-2	73	31	67	55	-15	-1	34	1	97
체코	265	340	277	24	43	-96	96	45	41	60
슬로바키아	49	32	28	12	5	31	4	25	32	10
헝가리	67	155	67	12	13	17	30	11	8	20

자료: Центральный Банк России, Прямые инвестиции из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а рубеж,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2. 12. 8).

나. 중동부유럽의 대러 투자

러시아중앙은행의 통계를 토대로 중동부유럽 11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는 2022년 1월 1일 잔액 기준으로 38억 2,021만 달러로 전체 대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의 약 0.63% 수준이다. 국가별로는 라트비아 7억 7,784만 달러(20.4%), 폴란드 6억 1,076만 달러(16.0%), 헝가리 5억 7,374만 달러(15.0%), 에스토니아 4억 2,879만 달러(11.2%), 슬로베니아 3억 7,001만 달러(9.7%) 순이다. 분야별로는 부동산업의 투자가 9억 2,024만 달러로 24.1%를 차지한다. 다만 대외비(Confidential) 정보와 50만 달러 이하 투자액은 관련 통계가 공개되지 않아 해석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라트비아는 미분류 투자액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업의 투자가 가장 많다.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잔액은 같은 기간 기준으로 15억 7,112만 달러로 전체 대러시아 직접투자의 0.26%, 중동부유럽 11개국 직접투자의 41.14%를 차지한다. 4개국 중 폴란드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잔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대외비 및 50만 달러 이하 투자액 정보가 부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국가별로 최대 투자 분야를 살펴보면 폴란드는 도소매업, 체코는 금융 및 보험업,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는 제조업이다.

표 2-12. 중동부유럽 11개국의 분야별 대러시아 직접투자(2022년 1월 1일 기준)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중동부유럽 11개국		중동부유럽 주요 4개국		전체 직접투자액	
	금액	%	금액	%	금액	%
부동산업	920.24	24.09	84.17	7.65	30654.16	5.02
제조업	742.49	19.44	286.52	26.05	111990.4	18.36
도매 및 소매업	680.96	17.83	467.54	42.51	100614.4	16.49
금융 및 보험업	378.4	9.91	187.97	17.09	103279.4	16.93
미분류 산업	373.92	9.79	*	0.00	5819.55	0.95

표 2-12. 계속

구분	중동부유럽 11개국		중동부유럽 주요 4개국		전체 직접투자액	
	금액	%	금액	%	금액	%
운수 및 창고업	31.14	0.82	4.05	0.37	16487.81	2.70
정보통신업	30.6	0.80	27.7	2.52	10394.92	1.70
건설업	29.69	0.78	13.1	1.19	7531.02	1.2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8.54	0.75	20.2	1.84	46939.39	7.69
농업, 임업 및 어업	13.98	0.37	5.95	0.54	3062.11	0.50
숙박 및 음식점업	2.74	0.07	**	0.00	1568.6	0.26
광업	2.19	0.06	2.19	0.20	159345.4	26.12
행정 및 관련 서비스업	0.45	0.01	0.06	0.01	2425.35	0.40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업	0.31	0.01	0.31	0.03	116.2	0.02
분야별 총계* **	**3820.21**	**0.63**	**1571.12**	**0.26**	**610082.5**	**100**

주: * 투자액이 50만 달러 이하인 관계로 관련 정보 비공개.
** 헝가리, 폴란드 대외비, 체코, 슬로바키아는 투자액이 50만 달러 이하인 관계로 관련 정보 비공개.
*** 분야별 총계는 국가별 소액투자액 등을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상위 14개 분야의 총합과 일치하지 않음.
자료: Центральный Банк России, Прямые инвестиции из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а рубеж,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2. 12. 8).

1) 폴란드

폴란드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은 2021년 말 기준 18억 1,860만 달러이며, 그중 러시아에 투자한 금액은 1억 6,780만 달러다. 2021년 폴란드가 투자한 상위 10개 국가는 노르웨이 8억 8,470만 달러, 스웨덴 6억 240만 달러, 리히텐슈타인 5억 8,300만 달러, 리투아니아 3억 2,560만 달러, 체코 3억 2,200만 달러, 크로아티아 1억 7,960만 달러, 러시아 1억 6,780만 달러, 우크라이나 1억 6,620만 달러, 인도 9,830만 달러, 독일 8,400만 달러 순이다. 폴란드가 투자한 분야는 제조업 20억 4,550만 달러, 광업 8억 3,750만 달러,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억 6,850만 달러, 도매 및 소매업 3억 2,770만 달러, 금융 및 보험업 1억 9,990만 달러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13. 폴란드의 상위 10개 투자국 및 투자분야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금액	비중	분야	금액
1	노르웨이	884.7	48.6	제조업	2,045.5
2	스웨덴	602.4	33.1	광업	837.5
3	리히텐슈타인	583.0	32.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68.5
4	리투아니아	325.6	17.9	도매 및 소매업	327.7
5	체코	322.0	17.7	금융 및 보험업	199.9
6	크로아티아	179.6	9.9	건설업	100.9
7	러시아	167.8	9.2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업	57.4
8	우크라이나	166.2	9.1	운송 및 보관업	48.8
9	인도	98.3	5.4	정보통신업	41.5
10	독일	84.0	4.6	보건 및 사회 서비스업	6.1
총액		1,818.6			

자료: Narodowy Bank Polski(검색일: 2022. 12. 11).

폴란드의 대러시아 해외직접투자액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2021년 최고액인 1억 6,78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8년 390만 달러로 최저액을 기록했다. 반대로 러시아에서 유입된 금액은 2017년 7,510만 달러로 최고액을 기록했다.

표 2-14. 폴란드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추이(2016~21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ODI	17.0	74.5	3.9	38.7	69.8	167.8
FDI	11.7	75.1	47.2	-237.2	50.8	17.0

주: 폴란드의 직접투자(Direct Investment) 유출(outflow, ODI) 및 유입(inflow, FDI).
자료: Narodowy Bank Polski(검색일: 2022. 12. 11).

폴란드의 대러시아 직접투자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과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폴란드의 유통업체가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면서 도소매업의 투자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쟁 발발 이후 폴란드 기업도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2022년과 이후 투자액은 큰 폭으로 변동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표 2-15. 폴란드의 대러시아 투자분야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	도매 및 소매업	220	240	214	173	322	398
2	제조업	255	259	186	185	162	127
3	부동산업	38	41	34	40	34	34
4	건설업	12	12	12	13	9	9
5	농업, 임업 및 어업	C	4	6	6	5	6
6	운수 및 창고업	9	17	7	10	7	4
7	금융 및 보험업	C	C	C	C	C	3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	1	1	1	1
9	행정 및 관련 서비스업	C	C	1	0	0	0
10	광업	C	0	C	C	0	C
11	숙박 및 음식점업	C	C	C	C	C	C
12	정보통신업	1	1	C	C	C	C
13	교육 서비스업	C	C	C	C	C	C

주: C는 대외비 자료.

자료: Центральный Банк России, Прямые инвестиции из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а рубеж,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2. 12. 8).

2) 체코

체코의 해외직접투자액은 2021년 말 기준 55억 8,180만 달러이며, 그중 러시아에 투자한 금액은 5,260만 달러다. 2021년 체코가 투자한 상위 10개 국가는 영국 13억 9,180만 달러, 룩셈부르크 10억 110만 달러, 사이프러스 9억 1,080만 달러, 네덜란드 8억 4,640만 달러, 미국 6억 2,500만 달러, 이탈리아 5억 2,870만 달러, 슬로바키아 4억 7,200만 달러, 헝가리 2억 3,820만 달러, 스위스 1억 8,440만 달러, 인도 1억 880만 달러 순이다. 체코가 투자한 분야는 금융 및 보험업 35억 1,760만 달러, 부동산업 11억 1,000만 달러,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억 550만 달러, 제조업 3억 6,060만 달러, 도소매업 1억 7,390만 달러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16. 체코의 상위 10개 투자국 및 투자분야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금액	비중	분야	금액
1	영국	1,391.8	24.9	금융 및 보험업	3,517.6
2	룩셈부르크	1,001.1	17.9	부동산 활동	1,110.0
3	사이프러스	910.8	16.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05.5
4	네덜란드	846.4	15.2	제조업	360.6
5	미국	625.0	11.2	도매 및 소매업	173.9
6	이탈리아	528.7	9.5	개인 부동산 거래	163.5
7	슬로바키아	472.0	8.5	정보통신	121.7
8	헝가리	238.2	4.3	건설	32.1
9	스위스	184.4	3.3	예술, 엔터테인먼트 및 레크리에이션	29.6
10	인도	108.8	1.9	행정 및 관련 서비스업	19.8
총액		5,581.8			

자료: Česká národní banka(검색일: 2022. 12. 11).

체코의 대러시아 해외직접투자 순유출액은 2019년 최고액인 2억 1,35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8년과 2020년 유출액보다 유입액이 더 많았다. 반대로 러시아에서 유입된 금액은 2021년 2억 5,830만 달러로 최고액을 기록했다.

표 2-17. 체코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순유출 및 순유입액 변동 추이(2016~21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ODI	33.4	51.3	-8.7	213.5	-111.4	52.6
FDI	-1.3	-123.8	103.2	189.3	12.6	258.3

자료: Česká národní banka(검색일: 2022. 12. 11).

체코의 대러시아 직접투자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금융 및 보험업과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금융 및 보험업의 투자는 지속되었는데, 2018년 이전 자료는 대외비 정보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제조업의 경우 2018년 최고치 달성 이후 2021년까지 하락하고 있다.

표 2-18. 체코의 대러시아 투자분야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	금융 및 보험업	C	C	C	117	143	185
2	제조업	181	239	242	190	110	61
3	도매 및 소매업	12	63	30	31	30	33
4	정보통신업	9	4	5	7	26	28
5	부동산업	19	26	25	24	15	24
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4	6	9	11	10
7	건설업	5	5	5	5	5	4
8	광업	1	1	2	3	2	2
9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업	0	0	0	0	0	0
10	농업, 임업 및 어업	0	0	0	0	0	0
1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C	C	C	C	C	C
12	운수 및 창고업	C	C	0	C	C	C
13	숙박 및 음식점업	C	C	C	C	C	C
14	행정 및 관련 서비스업	C	2	1	C	C	C
1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C	C

주: C는 대외비 자료.

자료: Центральный Банк России, Прямые инвестиции из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а рубеж,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2. 12. 8).

3)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9]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은 2020년 말 기준 2억 3,500만 달러이며, 그중 러시아에 투자한 금액은 200만 달러다. 2020년 슬로바키아가 투자한 상위 10개 국가는 체코 1억 7,600억 달러, 오스트리아 2,200만 달러, 영국 1,800만 달러, 튀르키예 1,400만 달러, 사이프러스 800만 달러, 덴마크, 중국 각 300만 달러, 세르비아, 헝가리, 러시아 각 200만 달러 순이다. 슬로바키아는 분야별 투자액을 공개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모두 대외비 및 미분류로 표시한다.

9) 슬로바키아중앙은행(Národná banka Slovenska)은 직접투자 관련 통계를 일부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 분석의 통일성을 위해 OECD 통계를 사용하였다.

표 2-19. 슬로바키아의 상위 10개 투자국 및 투자분야

(단위: 백만 달러)

	국가	금액	비중
1	체코	176	75.0
2	오스트리아	22	9.5
3	영국	18	7.6
4	튀르키예	14	5.9
5	사이프러스	8	3.6
6	덴마크	3	1.4
7	중국	3	1.4
8	세르비아	2	1.0
9	헝가리	2	0.9
10	러시아 연방	2	0.8
총액		235	

자료: OECD.Stat DB(검색일: 2022. 12. 11).

슬로바키아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순유출액은 2017년 최고액인 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대로 러시아에서 유입된 금액은 2020년 8,400만 달러로 최고액을 기록했다. 단, 슬로바키아에서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2016년은 대외비 정보로 분류되어 있다.

표 2-20. 슬로바키아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순유출 및 순유입액 변동 추이(2016~20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ODI	C	6	2	1	2
FDI	C	11	49	-39	84

주: C는 대외비 자료.
자료: OECD.Stat DB(검색일: 2022. 12. 11).

슬로바키아의 대러시아 직접투자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부동산업, 도소매업에 집중되어 있다. 제조업 투자액은 2016년 2,300만 달러에서 2017년 3,000만 달러 사이로 유지되고 있는데, 2018년과 2019년 자료는 비공개되어 있다. 부동산업 투자액은 600만~900만 달러, 도소매업 투자액은 300만~600만

달러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슬로바키아의 대러시아 투자통계는 대부분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다.

표 2-21. 슬로바키아의 대러시아 투자분야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	제조업	23	30	C	C	26	25
2	부동산업	9	8	6	7	7	7
3	도매 및 소매업	5	6	5	3	3	4
4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업	C	C	C	C	C	C
5	건설업	-	C	C	C	C	C
6	정보통신업	-	C	C	C	C	C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C	C	C	C	C	C

주: C는 대외비 자료.
자료: Центральный Банк России, Прямые инвестиции из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а рубеж,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2. 12. 8).

4) 헝가리

헝가리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은 2020년 말 기준 36억 1,530만 유로이며, 그중 대러시아 직접투자 순유출액은 -2,090만 유로다. 2020년 헝가리가 투자한 상위 10개 국가는 네덜란드 23억 9,600만 유로, 룩셈부르크 8억 3,190만 유로, 체코 6억 9,030만 유로, 미국 3억 4,750만 유로, 불가리아 1억 6,870만 유로, 이스라엘 1억 4,840만 유로, 세르비아 1억 4,360만 유로, 독일 9,690만 유로, 우크라이나 8,670만 유로, 슬로베니아 6,830만 유로 순이다. 헝가리가 투자한 분야는 금융 및 보험업 10억 8,230만 유로, 광업 8억 1,030만 유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억 660만 유로, 부동산업 2억 3,060만 유로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22. 헝가리의 상위 10개 투자국 및 투자분야

(단위: 백만 유로, %)

	국가	금액	비중	분야	금액
1	네덜란드	2,396.0	66.3	금융 및 보험업	1,082.3
2	룩셈부르크	831.9	23.0	광업	810.3
3	체코 공화국	690.3	19.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06.6
4	미국	347.5	9.6	부동산업	230.6
5	불가리아	168.7	4.7	건설업	49.4
6	이스라엘	148.4	4.1	도매 및 소매업	44.6
7	세르비아	143.6	4.0	정보통신업	18.9
8	독일	96.9	2.7	숙박 및 음식 서비스업	7.7
9	우크라이나	86.7	2.4	운송 및 보관업	2.4
10	슬로베니아	68.3	1.9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업	2.4
총액		3,615.3			

자료: MAGYAR NEMZETI BANK(검색일: 2022. 12. 11).

헝가리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유출액은 2017년 최고액인 1억 7,740만 유로를 기록했으며, 2020년은 유출액보다 유입액이 더 많았다. 반대로 러시아에서 유입된 금액은 2019년 1억 2,600만 유로로 최고액을 기록했다.

표 2-23. 헝가리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순유출 및 순유입액 변동 추이(2016~20년)

(단위: 백만 유로)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ODI	64.7	177.4	28.9	94.2	-20.9
FDI	139.3	56.2	141.5	126.0	-55.8

자료: MAGYAR NEMZETI BANK(검색일: 2022. 12. 11).

헝가리의 대러시아 직접투자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제조업 분야의 투자는 2019년까지 1억 유로 이상 유지되었는데, 이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을 제외하고는 대외비 자료로 분류되어 통계가 공개되지 않는다.

표 2-24. 헝가리의 대러시아 투자분야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	제조업	134	136	127	164	77	73
2	도매 및 소매업	9	22	31	32	50	34
3	부동산업	26	27	11	13	12	19
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3	C	10	4	9
5	농업, 임업 및 어업	C	C	C	C	C	C
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C	C	C	C	C	C
7	건설업	C	2	3	3	C	C
8	운수 및 창고업	C	C	C	C	C	C
9	금융 및 보험업	C	C	C	C	C	C
10	행정 및 관련 서비스업	C	C	C	C	C	C
1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C	C	C	C	C	C

주: C는 대외비 자료.

자료: Центральный Банк России, Прямые инвестиции из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а рубеж,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2. 12. 8).

3.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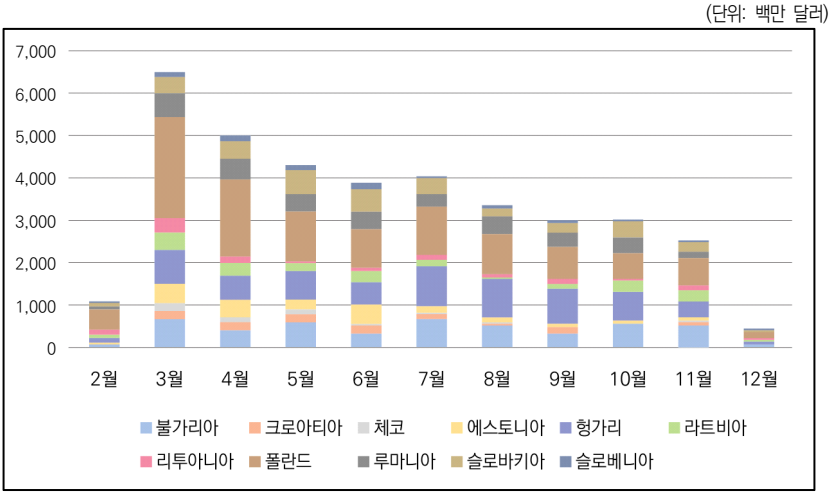
중동부유럽의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해당지역은 EU에서 러시아에 지급하는 화석연료(석탄, 석유, 가스) 수입액의 30~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중동부유럽 11개국의 대러시아 에너지 수입액은 3월 64억 7,977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하고 있다. 석탄 수입량은 9월부터 0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EU의 대러시아 5차 제재 중 지난 8월 시행된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조치에 따른 것이다.[10]

10) 자세한 내용은 3장(EU 대러 제재의 중동부유럽 경제 영향)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European Commission(2022. 4. 8), "Ukraine: EU agrees fifth package of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Russi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15).

석탄, 석유, 가스의 수입액을 나라별로 비교해보면 폴란드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폴란드는 2월 24일부터 부터 12월 8일까지 총액 110억 5,269만 달러, 석탄 5억 5,874만 달러, 석유 76억 7,307만 달러, 가스 28억 2,086만 달러를 러시아에서 수입했다. 그 다음은 헝가리(64억 8,068만 달러), 불가리아(48억 5,5008만 달러), 슬로바키아(34억 5,159만 달러), 루마니아(34억 4,449만 달러) 순이다. 체코는 11개국 중 대러시아 수입액이 가장 적은 5억 3,791만 달러 수준이다. 체코는 개전 이후 러시아에서 석유와 석탄은 수입하지 않고, 가스만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액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적다.

그림 2-8. 중동부유럽의 대러시아 에너지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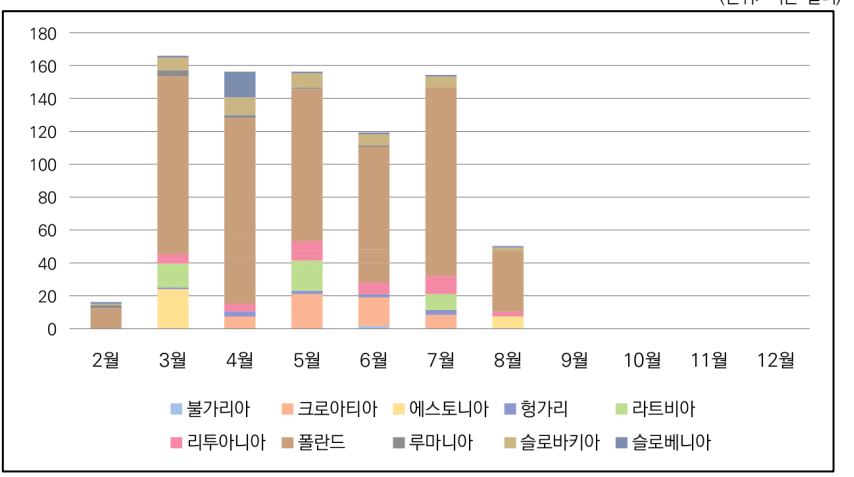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주: 2022년 2월 24일부터 2022년 12월 8일까지.
자료: Russia Fossil Tracker, "Payments to Russia for fossil fuel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15).

그림 2-9. 중동부유럽의 대러시아 석탄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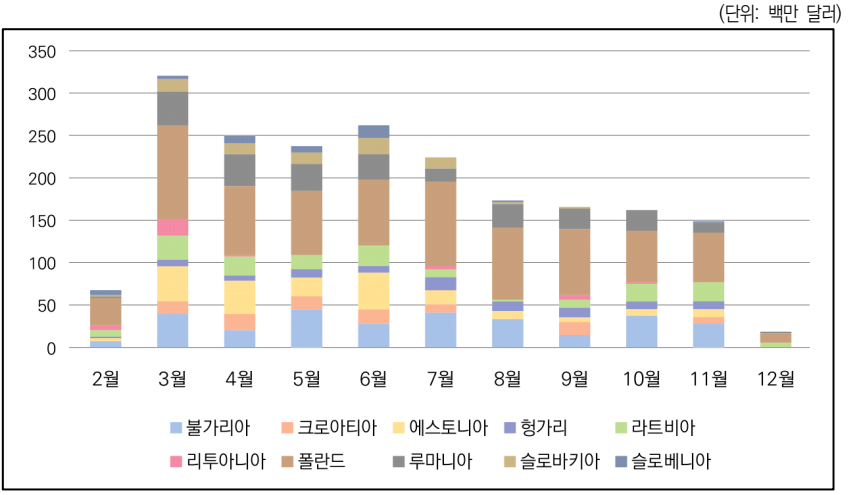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주: 2022년 2월 24일부터 2022년 12월 8일까지.
자료: Russia Fossil Tracker, "Payments to Russia for fossil fuel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15).

그림 2-10. 중동부유럽의 대러시아 석유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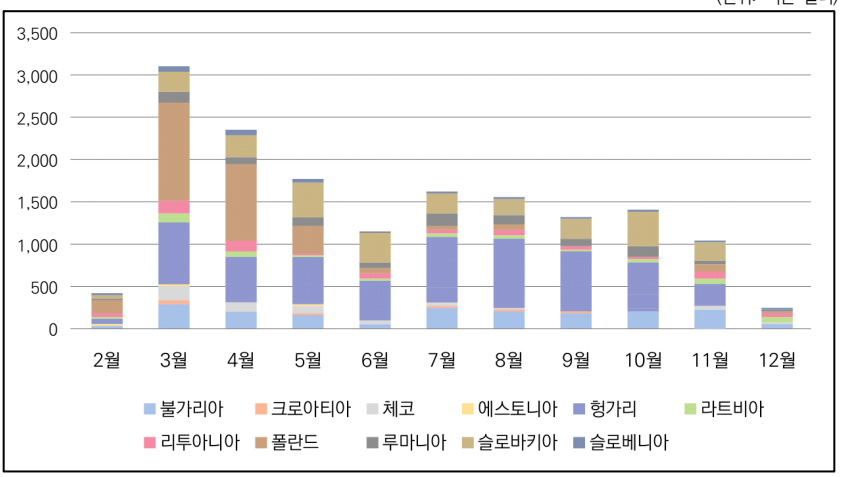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주: 2022년 2월 24일부터 2022년 12월 8일까지.
자료: Russia Fossil Tracker, "Payments to Russia for fossil fuel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15).

그림 2-11. 중동부유럽의 대러시아 가스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주: 2022년 2월 24일부터 2022년 12월 8일까지.
자료: Russia Fossil Tracker, "Payments to Russia for fossil fuel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15).

중동부유럽 4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폴란드 43%, 체코 39%, 슬로바키아 56%, 헝가리 57% 등으로 EU 전체 평균인 57%보다 낮지만, 그중 대러시아 의존도는 폴란드 35%, 체코가 24%, 슬로바키아 57%, 헝가리 54%로 EU 평균인 24%보다 높다.[11] 해당 지역이 러시아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역사적으로 구소련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립 후 각국은 석탄, 석유, 가스 비중 감소와 에너지 수입원 다각화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 폴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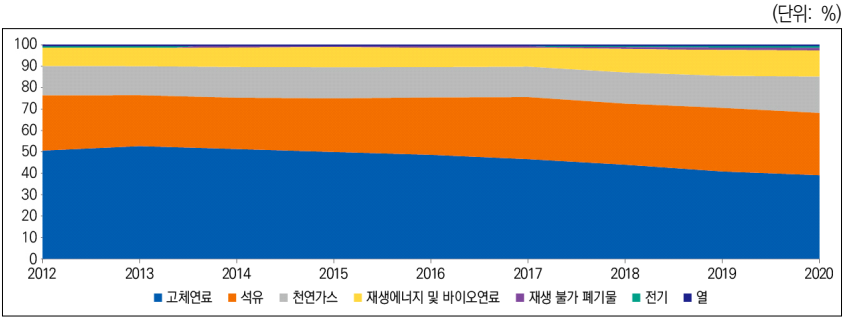
폴란드의 2020년 에너지믹스를 살펴보면, 고체연료(석탄)가 차지하는 비중이 39.6%로 가장 많다. 석유의 비중도 28.8%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주목할 점은 폴란드가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에너지원의 비중이 석탄(13.4%), 석유

11) Eurostat DB(검색일: 2022. 12. 15).

(76.3%), 천연가스(45.5%)로 상당히 높다.[12] 2012년부터 폴란드의 에너지믹스를 차지하는 주요 에너지원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인데, 앞선 언급한바와 같이 대러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폴란드 정부 입장에서는 수입원 다변화와 에너지원 다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림 2-12. 폴란드의 2012~20년 에너지믹스

(단위: %)



자료: Eurostat DB(검색일: 2022. 12. 12).

2021년 대러시아 수입품목 중 원유가 32.7%로 가장 많이 수입되었다. 원유 수입액을 살펴보면, 2012년 67.1%에서 2021년 32.7%까지 비중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표 2-25 참고). 하지만 수출액을 기준으로 한 통계이기 때문에 원자재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지 않는다.

표 2-25. 폴란드의 연도별 대러시아 원유 수입액(2012~21년)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원유	수입액	18.75	17.05	15.54	8.26	5.72	6.81	9.58	7.13	5.00	6.57
	비중	67.1	67.5	66.4	57.5	49.6	46.1	48.8	44.5	43.4	32.7

주: 비중은 연도별 폴란드의 전체 대러시아 수입액 중 원유 수입의 비중을 말한다.
자료: UN Comtrade DB(검색일: 2022. 12.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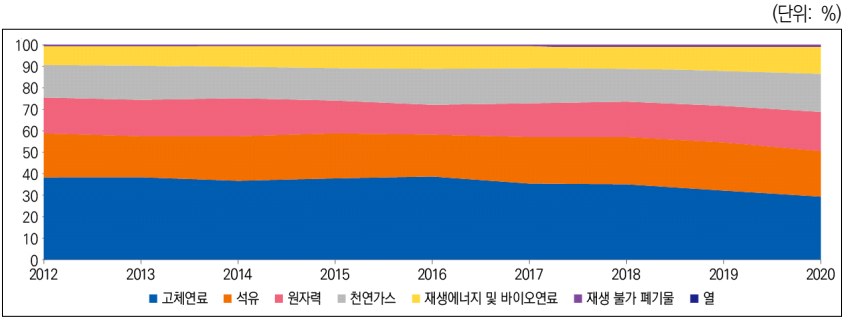
12) 가용 에너지 중 러시아 수입 비중을 나타낸다. Eurostat DB(검색일: 2022. 12. 15).

나. 체코

체코의 2020년 에너지믹스를 살펴보면, 고체연료(석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3%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석유의 비중도 21.4% 수준이다. 체코가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에너지원의 비중이 석탄(1.7%), 석유(35.7%), 천연가스(86%)로 폴란드와 비교했을 때 천연가스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13] 체코는 폴란드와 같이 석탄과 석유를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차이점은 원자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석탄과 석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림 2-13. 체코의 2012~20년 에너지믹스

(단위: %)



자료: Eurostat DB(검색일: 2022. 12. 12).

2021년 체코는 러시아에서 수입한 품목 중 천연가스를 44.7% 수입했다. 2012년부터 살펴보면 체코가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 원유와 천연가스가 1~2위 품목을 차지한다(표 2-26 참고).

13) 가용 에너지 중 러시아 수입 비중을 나타낸다. Eurostat DB(검색일: 2022. 12. 15).

표 2-26. 체코의 연도별 대러시아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액(2012~21년)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원유	수입액	3.70	3.43	3.06	1.58	1.08	1.61	2.05	1.76	0.97	1.75
	비중	46.8	44.2	49.0	37.8	31.8	32.5	35.0	35.1	33.0	27.6
천연가스	수입액	2.88	2.97	1.90	1.47	1.21	1.68	2.11	1.62	0.80	2.83
	비중	36.5	38.3	30.4	35.1	35.3	33.9	36.1	32.3	27.3	4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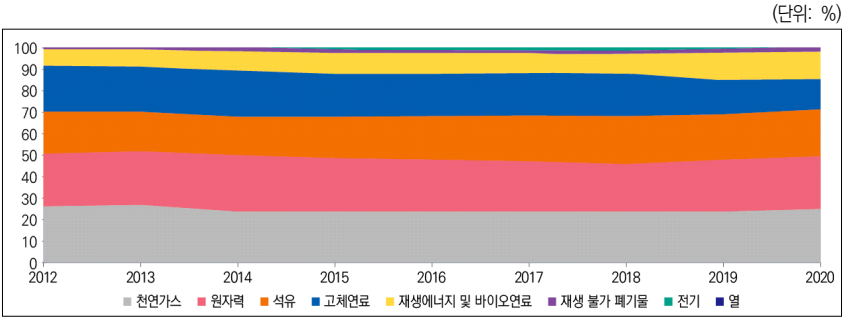
주: 비중은 연도별 체코의 전체 대러시아 수입액 중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의 비중을 말함.
자료: UN Comtrade DB(검색일: 2022. 12. 6).

다.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의 2020년 에너지믹스는 앞서 살펴본 폴란드, 체코와 달리 천연가스(24.9%), 원자력(24.6%), 석유(21.9%)가 비슷한 수준으로 분포되어 있다. 다만 다른 중동부유럽 국가와 유사하게 에너지원의 러시아 수입 의존도가 높다. 슬로바키아는 러시아에서 천연가스(75.2%), 석유(159.4%)를 수입했다.[14]

그림 2-14. 슬로바키아의 2012~20년 에너지믹스

(단위: %)



자료: Eurostat DB(검색일: 2022. 12. 12).

2021년 슬로바키아가 러시아에서 수입한 품목 중 천연가스가 46.3%를 차지했다. 슬로바키아도 다른 중동부유럽 국가들과 유사하게 러시아에서 석유와

14) 가용 에너지 중 러시아 수입 비중을 나타낸다. 100% 이상의 수치는 국내 사용량 대비 제3국 수출(통과 물량) 등을 위해 초과 수입한 것을 의미한다. Eurostat DB(검색일: 2022. 12. 15).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체코처럼 2012년에는 원유 수입량이 가장 많았던 반면 2021년에는 천연가스 수입량이 이를 추월하였다. 슬로바키아의 대러시아 수입액 중 원유와 천연가스 비중이 연도별로 평균 84.5% 수준이 될 정도로 집중되어 있다.

표 2-27. 슬로바키아의 연도별 대러시아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액(2012~21년)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원유	수입액	4.28	4.50	3.62	2.16	1.72	1.87	2.65	2.24	1.73	2.49
	비중	60.3	59.4	57.9	48.6	47.6	45.3	49.1	44.8	44.5	37.9
천연가스	수입액	1.93	2.24	1.67	1.62	1.28	1.54	1.75	1.94	1.52	3.05
	비중	27.2	29.6	26.7	36.5	35.4	37.4	32.4	38.9	38.9	4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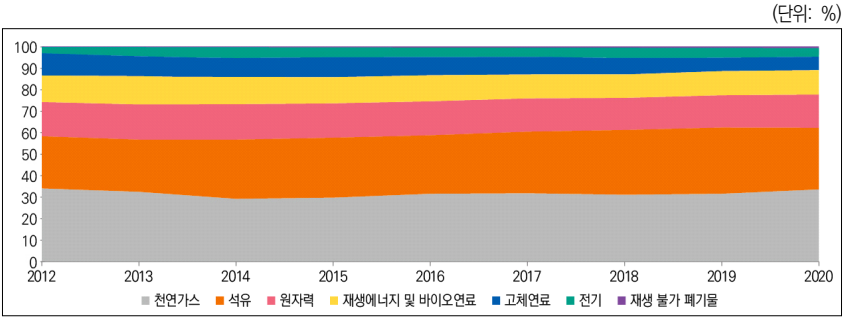
주: 비중은 연도별 슬로바키아의 전체 대러시아 수입액 중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의 비중을 말함.
자료: UN Comtrade DB(검색일: 2022. 12. 6).

라. 헝가리

헝가리도 슬로바키아와 같이 2020년도 에너지믹스에서 천연가스가 가장 큰 비중(33.5%)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석탄의 비중이 앞서 살펴본 3개국과 비교했을 때 6.4%로 미미한 편이다.

그림 2-15. 헝가리의 2012~20년 에너지믹스

(단위: %)



자료: Eurostat DB(검색일: 2022. 12. 12).

2021년 헝가리가 러시아에서 수입한 품목 중 원유를 42.5%로 가장 많이 수입했다.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품목 중 원유가 가장 많은데, 앞에서 살펴본 3개국과 달리 원유 수입 비중이 2012년 53.1%에서 2021년 40.0%로 크게 줄지 않았다(표 2-28 참고).

표 2-28. 헝가리의 연도별 대러시아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액(2012~21년)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원유	수입액	4.40	4.24	3.84	1.79	1.48	1.68	2.09	2.02	1.32	1.71
	비중	53.1	49.7	52.6	49.2	56.0	46.9	45.5	45.1	50.9	40.0
천연가스	수입액	2.25	2.58	2.18	1.16	0.64	0.92	1.40	1.48	0.60	1.82
	비중	27.1	30.3	29.9	31.9	24.3	25.8	30.4	33.0	23.1	42.5

주: 비중은 연도별 헝가리의 전체 대러시아 수입액 중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의 비중을 말함.
자료: UN Comtrade DB(검색일: 2022. 12. 6).

제3장 EU 대러 제재의 중동부유럽 경제 영향

1. EU의 대러 제재 주요 내용

가. 대러 제재 주요 내용

EU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점으로 러시아를 유럽 안보 및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 세력으로 보고 2014년 3월부터 점진적으로 엄격한 제재를 가하게 되었다.[15] EU는 2014년 9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 루한스크 인민 공화국 사이에 서명한 '민스크협정'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여 2017년 4월까지 에너지 설비 및 관련 서비스 수출 제한을 포함하여 38개의 '제재 정책'(sanction regimes)을 실시하였다. 특히 EU는 대러시아 에너지 분야 제재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3개 에너지 기업이 발행하는 만기 30일 이상의 신규채권, 주식 및 유사한 금융상품에 대한 매매를 금지하였고, 러시아의 에너지 설비 및 서비스 수출 시 EU 회원국 관련 기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도록 하였으며, 심해와 북극해 석유탐사 및 생산, 세일오일 프로젝트 관련 제품의 경우 수출 라이센서 발급을 금지하도록 하였다.[16]

바이든(Biden)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비정상적 움직임이 감지된 2021년 12월 7일부터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강력한 대러 제재 의지를 시

15) European Council and Council of the EU(2022), "EU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Russia over Ukraine(since 201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4. 1).
16) 강유덕(2017), pp. 96~98.

사한 바 있다. 결국 미국은 2022년 2월 21일에 푸틴(Putin) 러시아 대통령이 민스크 협정(Minsk Agreements)을 파기하며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Donetsk)와 루한스크(Luhansk) 독립을 승인하자 곧바로 제재를 적용하였다.[17] 반면 EU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심각성이 확대된 2022년 2월 말부터 대응을 시작하였고, EU의 이해관계가 큰 에너지 부문에 대해서는 3월 초 이후에야 제재를 거론하는 등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18]

표 3-1. EU의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제재 현황

날짜	주체	내용
2월 17일	EU 정상회의	우크라이나 국경의 러시아군 증강 배치 인지
2월 23일	EU 이사회	대러 1차 제재
2월 24일	EU 정상회의	러시아 규탄 및 추가 제재 부과, 우크라이나 지지 합의
2월 25일	EU 이사회	대러 2차 제재
2월 28일, 3월 2일	EU 이사회	대러 3차 제재
3월 8일	EU 집행위	대러 에너지 의존도 완화 계획인 'REPowerEU' 발표
3월 9일	EU 이사회	대벨라루스 금융제재 및 대러 추가 제재
3월 10일	EU 이사회	총 862명과 53개 기관에 대한 제재를 9월 15일까지 연장
3월 10~11일	EU 정상회의	'베르사유 선언(Versailles Declaration)' 발표
3월 15일	EU 이사회	대러 4차 제재
4월 8일	EU 이사회	대러 5차 제재
5월 30~31일	EU 정상회의	대러 6차 제재
10월 6일	EU 이사회	석유, 군사 등 무역 및 서비스 제재 추가

자료: European Council and Council of the EU, "Timeline – EU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Russia over Ukrain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15).

2022년 2월 23일 제재를 시작한 EU는 3월 17일 기준 877명, 62개 기관을 제재하고 있다.[19] 대러 1차 제재에서는 러시아 하원의원(State Duma) 351명과 27명의 주요 인사 제재, 러시아 정부 및 중앙은행 발행 채권과 금융상품의

17) Reuters(2021. 12. 8), "Biden warns Putin of sanctions, aid for Ukraine military if Russia in vades,"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3. 18).
18) European Council, "Statement by the Presidents of the European Council and European Commission on Russian aggression against Ukrain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3. 18).
19) 조동희, 이현진, 윤형준(2022), pp. 3~5.

매매 금지 등 금융 제재,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비정부 지역의 교역·투자 금지[20] 등이 이루어졌다. 2차 제재에서는 푸틴(Putin) 대통령, 라브로프(Lavrov) 외무장관, 전(全) 하원의원 등 개인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에너지·수송·기술(이중용도) 부문 거래 및 수출 제한 등 경제 제재와 함께 외교관·공무원·기업인에 대한 비자 특혜를 철회하였다.[21] 3차 제재에서는 우크라이나군에 '유럽 평화기금(European Peace Facility)'을 통한 50억 유로 규모의 장비 및 보급품 제공과 모든 러시아 수송기의 EU 영공 통과 및 공항 이용 금지가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러시아 중앙은행과 거래 금지, 기업인, 정부, 군 인사 26명과 1개 기관 제재 대상 추가, 7개 러시아 은행의 SWIFT(국제은행간 통신) 이용 금지, 러시아 국영 방송매체 Russia Today와 Sputnik의 EU 역내 방송 금지, 벨라루스 인사 및 경제 제재[22] 등도 대러 3차 제재에 포함되었다.

3차 제재 이후 벨라루스에 대한 금융제재와 러시아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가 바로 이어졌다. 3개 벨라루스 은행의 SWIFT 이용 금지, 벨라루스 중앙은행과 거래 금지, 4월 12일 이후 EU 거래소에서 벨라루스 국영기업 주식거래 금지, 벨라루스에서 EU로 금융흐름 제한, 벨라루스로 유로화 공급 금지 등의 대벨라루스 제재가 이루어졌다. 또한 러시아에 대해 항해용품 및 무선통신기술 수출 제한, 러시아 기업인 14명과 상원의원 146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등 대러 제재가 추가되었다.[23] 그리고 바로 이어진 EU 정상회의에서 대러 및 대벨라루

20) Council of the EU, "EU adopts package of sanctions in response to Russian recognition of the non-government controlled areas of the Donetsk and Luhansk oblasts of Ukraine and sending of troops into the reg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3. 18).
21) Council of the EU, "Russia's military aggression against Ukraine: EU imposes sanctions against President Putin and Foreign Minister Lavrov and adopts wide ranging individual and economic sanction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3. 18).
22) Council of the EU, "EU adopts new set of measures to respond to Russia's military aggressi on against Ukraine," 온라인 자료; "Russia's military aggression against Ukraine: EU bans ce rtain Russian banks from SWIFT system and introduces further restrictions," 온라인 자료; "EU imposes sanctions on state-owned outlets RT/Russia Today and Sputnik's broadcasting in the EU,"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2. 3. 18).
23) Council of the EU, "Russia's military aggression against Ukraine: EU agrees new sectoral measures targeting Belarus and Russi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3. 18).

스 제재 강화,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 대러 에너지 의존도 완화 의지 발표[24] 등을 포괄하는 베르사유 선언이 발표되었다.

3월 15일 대러 4차 제재에서는 우선 러시아 국영 기업들과 모든 거래 금지, 모든 러시아 국적자·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및 관련 서비스 제공 금지,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 철강 및 사치품 교역 제한 등이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아브라모비치(Abramovich), 칸(Khan) 등 러시아의 주요 신흥재벌 '올리가르히(Oligarch)', 로비스트,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를 옹호한 인사 등 15명, 항공, 군사, 조선, 기계 제조, 이중용도 부문의 주요 9개 기업들로 제재 대상이 확대되었다.[25]

전반적인 제재의 강도는 2014년 크림반도 사태 때보다 강해졌으나,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제재는 제한적이었다. EU는 대러 2차 제재를 적용하면서 EU의 제재가 러시아 은행부문의 70%와 주요 러시아 국영기업들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여하면서 2020년 8월 벨라루스 대통령선거 부정 관련 인권 탄압을 근거로 벨라루스에 가하고 있던 제재를 확대하였다. 한편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 기업(Rosneft, Transneft, Gazprom Neft 등)들에 대한 대출과 같은 금융 서비스 제공 금지, 신규 투자 금지, 기술이전 제한 등의 조치들이 취해지기는 하였으나, 러시아로부터의 석유 및 가스 수입에 대한 즉각적인 규제는 제시되지 않았다.[26]

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4차 제재 채택 이전에 대러 에너지 의존 감축을 위한 중·단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행동계획인 'REPowerEU Plan'을 2022년 3월 8일에 발표하였다.[27] 이후 본 계획은 3월

---

24) European Council, "The Versailles declaration, 10 and 11 March 202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3. 18).
25) Council of the EU, "Russia's military aggression against Ukraine: fourth EU package of sectoral and individual measur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3. 18).
26) Reuters(2022. 3. 15), "EU to tighten sanctions on Russian oil companies, but stops short of import ban – source,"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3. 21).
27) European Commission(2022. 4. 8), "Ukraine: EU agrees fifth package of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Russi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15).

24~25일 사이의 유럽이사회의 결정을 거쳐 5월 18일 최종안으로 제시되었다.[28] 본 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기적으로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축을 통하여 EU 회원국들의 에너지 안보를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REPowerEU'을 통하여 EU는 40%(연간 155Bcm)에 이르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2022년 말까지 3분의 2로 줄이고, 늦어도 2030년까지 완전히 중단 할 계획이다. 또한 석유, 석탄 등 러시아산 화석연료 수입을 2030년까지 큰 폭으로 감축시키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본 문서는 원래 2021년 하반기부터 촉발된 천연가스 상승에 따른 EU의 에너지 위기 극복을 목표로 하였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 감축을 위한 내용도 새로운 목표로 추가되어 큰 폭으로 수정된 것이다.[29] 'REPowerEU Plan'에서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 탈피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30년 이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가스 수입선 다변화, 바이오가스 및 그린수소 개발 촉진 등이 제시되었다.[30]

EU는 4월 8일 5차 대러 제재를 승인했다. 5차 제재는 석탄 및 고체화석연료 수입을 금지했다. 그 외 러시아 선박 EU 접근 금지, 러시아 및 벨라루스 영업용 차량의 EU 진입 금지, 목재, 시멘트, 해산물, 술 등 상품 수입 금지, 항공유 및 관련 상품 수출 금지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217명의 개인 및 18개의 법인에 대한 제재조치도 포함되었는데, 여기에는 시장점유율 23%를 차지하고 있는 4대 주요 은행에 대한 모든 거래 금지조치가 추가되었다.[31]

---

28)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022), 「EU, 러시아 화석연료 퇴출 위한 'REPowerEU' 계획 발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8. 10).
29) 정귀희(2022), p. 5.
30) European Commission(2022. 4. 8), "Ukraine: EU agrees fifth package of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Russi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15).
31) Council of the EU, "EU adopts fifth round of sanctions against Russia over its military aggression against Ukrain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15).

6월 3일 EU 이사회가 6차 대러 제재를 승인했다. 6차 제재는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한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기존 은행에 대한 제재에 러시아 은행 3개와 벨라루스 은행 1곳을 추가했다. 또한 러시아의 국영 매체 3곳에 대해 EU 역내 방송 중단 조치와 65명의 개인과 18명의 개인에 대한 제재도 포함되었다.[32]

EU는 10월 6일 러시아산 석유 해상운송 가격 상한 제한 조치를 추가했으며, 군사 및 관련 기술 개발 제품을 비롯한 러시아와의 무역 및 서비스 품목을 제재 목록에 추가했다. 30명의 개인과 7개의 법인에 대한 제재도 추가되었다.[33]

나. 주요 파급 경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서방과 러시아 측의 대립과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어 EU 대러 제재의 파급 경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각화되는 경향이 있다. EU의 대러 제재 영향만을 분류하여 전 세계 및 중동부유럽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다 명확하게는 본 연구자료의 연구 목적에서 대러 제재의 영향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져온 복합적인 파급효과의 일부분을 상징적으로 대표할 뿐, 실제로는 러시아발 지정학적 위기가 유발하는 모든 영향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러 제재의 주요 파급 경로는 국제 에너지시장, 글로벌 공급망 등과 같은 글로벌 파급 경로와 함께 제재의 당사자로서 중동부유럽 각국의 물가, 고용, 성장 등에 대한 파급 경로 등이 있을 수 있다.

---

32) European Council, "European Council conclusions, 30-31 May 202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12).

33) Council of the EU, "EU adopts its latest package of sanctions against Russia over the illegal annexation of Ukraine's Donetsk, Luhansk, Zaporizhzhia and Kherson region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12).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22년 3월 17일 OECD는 중간 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The war between Russia and Ukraine is a major humanitarian and economic shock)에 대해 국제기구 중 가장 빠르게 분석, 언급하였다.[34] 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일부 공급망 훼손이 개선되는 시점에서 전 세계 경제에 새로운 부정적 공급충격을 야기하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경제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35]이 그리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다수의 원자재 시장에서 중요한 공급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의 밀(30%), 옥수수·광물질비료·천연가스(20%), 원유(11%) 수출의 경우 전 세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점하고 있다. 또한 일부 품목의 경우 전세계적인 공급망이 러시아·우크라이나산 광물(팔라듐·니켈 등), 네온·아르곤 등 불활성 가스(inert gases), 티타늄 스펀지, 우라늄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해당 원자재가격은 전쟁 초기 생산 또는 수출 물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발발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한 바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산 밀 수출이 전면 중단될 경우 다수의 신흥국·개발도상국은 심각한 공급부족에 직면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다수 중동국가의 경우 밀 수입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의존도가 75% 수준에 달하고 있어 비료 제조에 차질이 생길 경우 2023년 농작물 공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어려움이 더욱 장기화될 소지도 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작은 러시아의 경제규모에도 불구하고 전쟁 관련 대러시아 경제제재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서방 주요국들은 러시아의 일부 개인·은행을 대상으로 한 외국 자본에 대한 접근

34) OECD(2022a).

35) OECD(2022a)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 경제를 합해도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에 불과하고 무역 비중도 이와 유사한 수준이며, 대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 및 러시아의 여타 국가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이 1~1.5% 수준에 그치는 등 금융 연계성도 크지 않다.

제한,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접근 제한 등의 경제제재를 단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고 중앙은행 기준금리(+10.5%p) 및 러시아 국채 리스크 프리미엄 모두 크게 상승하였으며, 국가 채무 불이행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와 함께 위험회피 심리 고조, 불확실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 여건도 악화되었다. 다수의 신흥국 및 러시아와 상대적으로 긴밀한 경제관계를 보이는 중동부유럽 국가에서도 리스크 프리미엄이 확대되고 자국 통화가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여객·화물기 운항이 우회 또는 중지됨에 따라 기업의 비용이 상승하였으며, 일부 다국적 기업의 경우 러시아에서의 영업을 중단하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적으로도 군비 증가 압력, 에너지 시장 구조 변화, 지급시스템 분절화(payment system fragmentation), 외환보유액의 통화 구성 변화 등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전 세계의 정치·경제적 구조가 다수의 블록으로 재편될 경우 전문화(specialization), 규모의 경제, 정보와 노하우 확산 등에 따른 이익이 축소될 우려가 충분하다. 또한 일부 국가의 SWIFT 퇴출로 인해 이를 대체할 다른 지급시스템 개발 노력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시스템 운용이 현실화할 경우 그간 전 세계 단일 시스템 사용에 따른 효율성 편익이 감소하고 금융시장 및 국가간 지급결제 시스템에서의 미 달러화의 주도적인 역할이 줄어들 가능성도 상존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IMF는 2022년 4월 20일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세계경제에 미칠 충격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하방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36] 당시 IMF는 기본 시나리오에서 세계경제가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3.6% 성장을 예상, 1월 전망치 대비 2022년과 2023년 전망치를 각각 0.8%p와 0.2%p 만큼 하향 조정하였다. 주요국 중에서 유로존 경제의 경우, 2022년과 2023년에 2.8%와 2.3%의 성장을 전망하여 1월 대비 각각 0.6%p와 0.2%p

36) IMF(2022b).

하향 조정함으로써 성장 둔화가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평가하였다. IMF는 상기 보고서에서 공급망 악화로 원자재가격이 상승하고 공급 불안 및 시장심리 악화가 경제활동 위축 및 물가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였다. 이와 함께 IMF는 공급 충격으로 2022~23년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은 불가피하며, 2023년 이후에는 공급 충격이 다소 완화되고 총수요 감소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주요국 목표치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게다가 IMF는 세계경제 하방 시나리오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되거나 장기화되면 세계경제의 성장 및 물가 충격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2. 중동부유럽 경제 영향

전술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파급경로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매우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특히 EU의 대러 경제 제재 당사국이면서 러시아와 근접하고 있는 중동부유럽 경제에 대한 영향은 보다 종합적이면서도 다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러시아와 가장 밀접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좀 더 단순하게 성장과 물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등으로 나누어 중동부유럽 경제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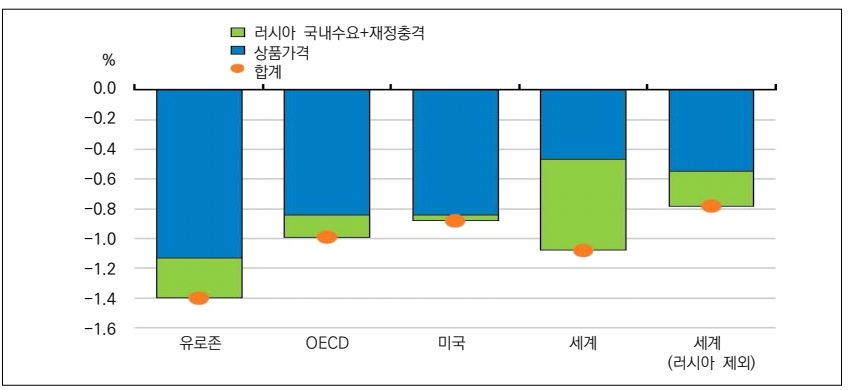
가. 성장 및 물가

전쟁 초기 OECD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적 영향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며 전쟁의 지속 기간과 각국의 정책 대응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기적으로 글로벌 경제성장에 상당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인플레이션을 큰 폭으로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였다.[37] 거시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쟁 발발 이후 1년간 전 세계 성장률을 1%p 이상 하락시키고 인플레이션은 약 2.5%p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38] 여기서 주목할 점은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와 접경 국가를 중심으로 유럽지역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중동부유럽 지역의 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가스 가격이 여타 지역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데다 전쟁 이전 러시아와의 기업 활동 및 에너지 부문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전술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도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상승에 따른 확대 폭이 중동부유럽을 비롯한 유럽의 신흥국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확대에 대응하여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각각 평균적으로 1%p 이상, 1.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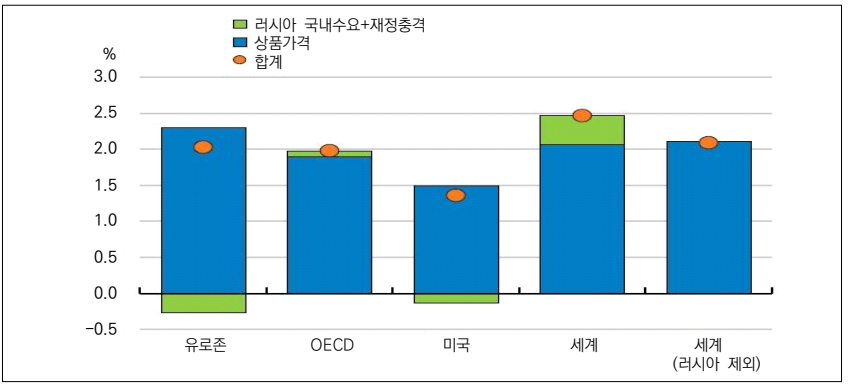
그림 3-1. GDP에 미치는 영향



주: 전쟁 발발 이후 1년 기준.
자료: OECD(2022a).

37) OECD(2022a).
38) OECD(2022a)의 전제조건에는 전쟁 직후 2주간 원자재·금융시장에 발생한 충격이 최소 1년간 지속, 러시아의 경기 부진(10% 이상 역성장) 및 인플레이션 확대(약 15%p) 등이 포함되었다.

그림 3-2. 인플레이션 영향



주: 전쟁 발발 이후 1년 기준.
자료: OECD(2022a).

2022년 9월 26일 발표된 OECD 세계경제전망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유럽의 가스 수급 불안이 심화되어 세계경제 충격이 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는 하방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39] 상기 보고서에서 OECD는 2022년 세계경제 전반의 모멘텀이 약화되고 유럽의 경기 둔화가 뚜렷하다고 진단하였으며, 2023년 성장세도 완만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심화 및 장기화로 인한 수급불안 지속으로 에너지, 식품을 비롯한 물가가 광범위하게 급등하였으며, 이러한 고물가에 대한 대응으로 금융여건은 지속적인 긴축기조가 유지되어 2022년 2/4분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이 정체된 결과가 바탕이 되었다. 특히 유럽은 연간 가스 가격이 3배 이상 급등하였으며, 이로 인해 GDP 대비 경제 전반의 에너지 지출 비율이 대폭 상승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의 피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IMF의 세경경제전망 중 2022년 4월 전망치와 10월 전망치를 2021년 10월 전망치와 비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충격을 포함한 IMF의 전망치 조정을 비교해볼 수 있다. 2022년 4월의 전망치 조정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초기의

39) OECD(2022b).

전망이 반영되었으며, 10월 전망치 조정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현실적으로 그 여파가 반영된 거의 추정치에 가까운 전망치 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의 선진권을 대표하는 유로존의 2022년 4월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21년 10월 대비 1.5%p 하향 조정되었다. 이에 비해 중동부유럽 국가 중 체코와 슬로바키아에는 보다 더 큰 폭의 하향 조정이 이루어져 유로존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충격이 더 클 것으로 전망하였다. 하지만 중동부유럽의 폴란드와 헝가리에 대해서는 유로존과 거의 비슷한 1.4%p의 하향 조정에 그쳤다. 하지만 여기에는 폴란드와 헝가리가 전쟁의 여파를 반영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과 정책금리 인상과 인플레 억제 및 자국통화 환율 방어에 소극적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2021년 10월 대비 2022년 10월 전망치 조정은 슬로바키아와 체코에 대해 유로존 보다 훨씬 큰 폭의 하향 조정이 이루어졌고 폴란드는 4월 조정 폭보다 약간 작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하향 조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에너지 가격상한제를 비롯한 적극적인 대응정책을 실시하고 금리인상에 가장 소극적이었던 헝가리는 2021년 10월에 비해 2022년 10월 경제성장 전망치가 오히려 상향 조정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전쟁 초기에 비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좀 더 큰 폭의 충격을 IMF는 분석, 예측하고 있다. 2022년 4월 전망치 조정에서 유로존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3.6%p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에 비해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모두 더 큰 폭의 상향 조정이 이루어져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은 유로존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2022년 10월 전망치에도 유사하게 반영되었으며, 중동부유럽 국가 중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은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p만큼 상향 조정되었다.

표 3-2. IMF의 중동부유럽 주요국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변화

(단위: %, %p)

국가	2021년 10월	2022년 4월	2021년 10월 대비 조정 폭	2022년 10월	2021년 10월 대비 조정 폭
폴란드	5.1	3.7	−1.4	3.8	−1.3
체코	4.5	2.3	−2.2	1.9	−2.6
헝가리	5.1	3.7	−1.4	5.7	+0.6
슬로바키아	5.2	2.6	−2.6	1.8	−3.4
유로존	4.3	2.8	−1.5	3.1	−1.2

자료: IMF(2021, 2022a, 2022b).

표 3-3. IMF의 중동부유럽 주요국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변화

(단위: %, %p)

국가	2021년 10월	2022년 4월	2021년 10월 대비 조정 폭	2022년 10월	2021년 10월 대비 조정 폭
폴란드	3.3	8.9	+5.6	13.8	+10.5
체코	2.3	9.0	+6.7	16.3	+14.0
헝가리	3.6	10.3	+6.7	13.9	+10.3
슬로바키아	3.0	8.4	+5.4	11.9	+8.9
유로존	1.7	5.3	+3.6	8.3	+6.6

자료: IMF(2021, 2022a, 2022b).

나.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러시아의 대EU 에너지 수출 전면 중단 가능성은 중동부유럽을 비롯한 향후 EU 경제의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대두되었다. 단기간 내에 여타 국가로부터의 공급 대체 가능성이 낮고 가스 비축량도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출 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충격이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OECD의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영향을 시산해 볼 결과 EU의 에너지 수입이 20% 감소할 경우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EU 전체로는 GDP가 1%p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OECD는 추정하였다.[40] 부문별로는 국내 에너지생산, 항공운송, 화공품·금속제조업 등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40) OECD(2022a).

EU 회원국 중에서도 에너지·식료품 관련 지출 비중이 중동부유럽의 저소득 국가 및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전쟁으로 인한 가격 상승의 영향이 저소득 계층에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중동부유럽 각국 정부는 전쟁 이전부터 에너지가격 상승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전쟁 이후 이러한 조치들을 더욱 강화화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소득지원 측면에서 심사를 통해 자격을 갖춘 저소득 가구에 일정 금액을 이전하거나 가격정책 측면에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전기·가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연료 및 전기 관련 소비세 인하, 에너지가격 동결 등의 정책이 주로 시행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많은 중동부유럽을 비롯한 EU 국가에서는 화석연료 수입의 러시아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에너지의 가격변동 충격에 대한 취약성, 공급 부족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 최근까지 EU는 천연가스 및 석탄 수입의 40% 이상, 원유 수입의 약 25% 가량을 러시아에 의존해 왔다. 특히 가스는 유럽 가구의 주요 난방 공급원일 뿐 아니라 발전, 비료 등 산업생산의 중요한 투입요소이다. 장기적으로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화석 연료 사용 감축을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3. 진출기업의 현지 비즈니스 환경 변화

2022년 10월 16일부터 27일까지 연구진은 비세그라드 4국(V4) 진출 10개의 기업과 V4 현지의 4개 KOTRA 무역관 면담과 함께 폴란드 경제전문가인 현지 학자와 헝가리 투자·수출 진흥 정부기관 등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특히 정량적 분석의 대안으로 기업면담을 통해 현지 진출기업 관련 정보

부족을 극복하고 실질적이고 심층적인 현지 비즈니스 환경 분석을 통해 한국 정부 및 기업에 대한 핵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현지 조사를 수행하였다.

표 3-4. 면담기업의 주요 현황

기업	기업분류	진출형태	주력업종	진출연도
폴란드 A	중소·중견기업	기타	운수 및 창고업	2017
폴란드 B	대기업	판매법인	제조업	1996
폴란드 C	대기업	판매법인	제조업	1993
폴란드 D	대기업	판매법인	제조업	1997
체코 A	대기업	판매법인	제조업	2019
체코 B	대기업	생산법인	제조업	2006
슬로바키아 A	중소·중견기업	생산법인	제조업	2021
슬로바키아 B	대기업	기타	운수 및 창고업	2013
헝가리 A	중소·중견기업	생산법인	제조업	2018
헝가리 B	대기업	생산법인	제조업	2019

주: 진출연도는 각국의 법인등록 기준.
자료: 저자 작성.

우선 KOTRA 바르샤바, 프라하, 부다페스트, 브라티슬라바 무역관 면담을 통해 V4 현지 사업 환경 및 최근 변화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변화된 비즈니스 환경, 주요 사업 리스크, 현지 경영 애로사항 등에 대해 현지 진출기업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와 동시에 현지 투자·수출 유치 기관 및 전문가와 대러 제재 관련 자국 정책 및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심층 면담을 병행하였다.

총 10개의 현지 진출기업 면담은 폴란드 진출기업 4개, 체코 진출기업 2개, 헝가리 진출기업 2개, 슬로바키아 진출기업 2개 등으로 구성된다. 현지진출 형태는 생산법인 4개, 판매법인 4개, 물류법인 2개 등이며, 대기업 계열이 7개, 중소·중견기업 3개이다. 2개의 물류법인 이외에 4개의 기업이 자동차, 중장비, 부품 관련 업체이며, 그리고 나머지는 전자 부문이 2개 업체, 전기차 배터리·부품이 2개 업체이다.

가. 현지 비즈니스 환경 변화의 공통점과 차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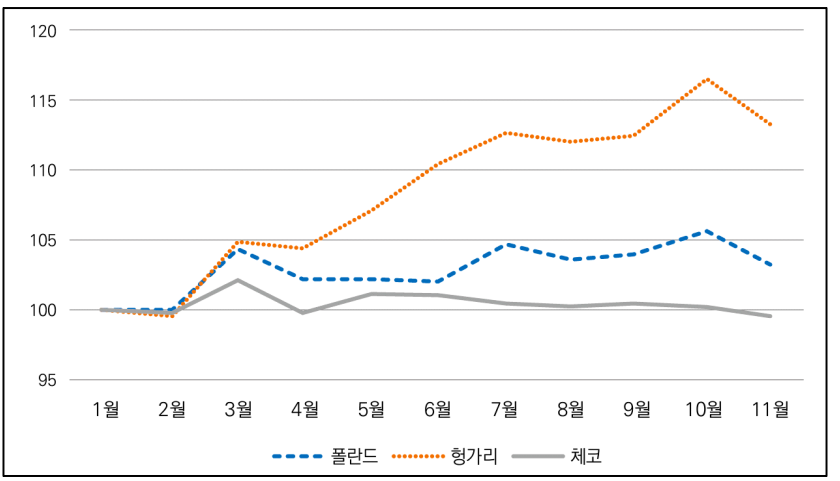
V4 진출 우리기업과 현지 KOTRA 무역관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우크라이나 사태 전후 현지 사정과 어려움은 대체로 공통적인 측면이 많았으나, 특정 부분이나 정도의 차이에 있어서는 국별로 다른 측면도 있다. 에너지 가격 급등에 의한 어려움은 V4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나, 유로화보다는 자국통화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심하였으며, 특히 헝가리 진출기업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폴란드는 극단적인 반러 성향이고 헝가리는 친러 성향이나 이것이 에너지 부문에서의 어려움 정도에 절대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가스 수입이 중단되었고, 현재 원자력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폴란드는 전력난이 심각하며, 일부 전력을 서유럽에서 수입하고 있다. 특히 한국기업들도 많이 진출한 산업단지가 위치한 브로츠와프는 최근 정전이 자주 발생하여 진출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우리 기업의 공장 신설을 검토 중 폴란드가 아닌 슬로바키아 국경 지역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이유도 현재 인근에서 전력 공급이 가장 원활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헝가리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중 에너지 가격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용수조달, 전력공급, 인재채용, 물가상승 등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 헝가리의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는데, 유통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며, 공급량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는 방식이 아닌 업체별 개별계약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매우 크며,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대되었다. 헝가리 진출 A사는 면담에서 최근 전기료 급등이 가장 강력한 비즈니스에 대한 영향이며,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 등이 그 다음 이슈라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헝가리의 전기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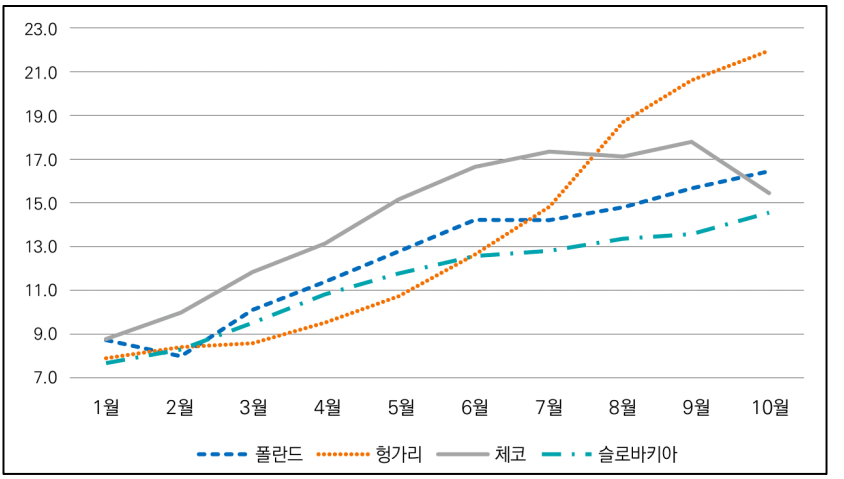
가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며, 이 보다도 장기공급 계약이 어렵고 전력 시장에 투기적인 요소와 불확실성이 많아 안정적인 사업계획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유럽의 셍겐 역내에서 인건비를 비롯한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가장 저렴하여 헝가리를 생산거점으로 결정한 측면이 있는데, 최근 전력비용 급등은 이러한 이점을 완전히 대체하고도 남는다는 평가이다. 헝가리 진출 B사는 최근 헝가리 에너지비용이 대략 5배 이상 상승하였고, 최근까지 가격변동 불확실성이 매우 큰바, 생산계획 자체를 수립하기 어려울 정도임을 호소하였다.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도 2021년 말 대비 헝가리의 전력비용은 2~3배, 가스비용 6~7배 인상되었으며, 전반적인 물가상승 압력에 포린트화 평가절하로 수입물가 및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심각한 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림 3-3. V4 환율 변동 추이



주: 자국화폐/유로, 2022.01=100.
자료: Eurostat DB(검색일: 2022. 12. 12).

그림 3-4. V4 물가상승률



자료: Eurostat DB(검색일: 2022. 12. 12).

현지 고용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인력난을 호소하였는데, 특히 소득이나 인건비가 선진국 수준에 가까운 체코와 슬로바키아에서 보다 심각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체코는 근무의지가 없는 사람을 제외하면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구인이 어려운 편이다. 고용측면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고용지수가 악화되었다가 최근 일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다시 악화되었다. 현재 루마니아, 조지아, 세르비아 등에서 비자를 받아 오는 우수 인력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은 비교적 낮은 인건비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그나마 숨통이 트이고 있는 실정이다.

슬로바키아는 과거 진출한 기아자동차와 연관된 협력 업체가 다수 진출해 있으며, 최근에는 진출기업 수가 현저하게 줄어든 상황이다. 이는 슬로바키아 정부의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정책이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인건비도 비싼 편이며, 그나마 고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슬로바키아는 실업률이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직원 고용이 어려우며, 폴란드와 헝가리 등 주변국과 비교했을 때 외국인 고용도 가장 어려운 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슬로바키아 정부에

서 난민의 취업 비자 지원 정책으로 고용 문제가 일부 완화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전체적인 고용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생산직은 시간당 급여를 지급 받는 시스템인데 외국인 근로자는 장시간 근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직원 채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슬로바키아 진출기업과 무역관 모두 현지 비즈니스 환경에서 제일 어려운 점으로 인력공급난을 들고 있다. 영어가 되는 고급인력은 산업단지보다는 브라티슬라바가 고용환경이 더 유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인건비가 매우 비싼 편이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출신 노동력이 급격히 줄어들어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우크라이나 출신 트럭 운전사가 동원령 이후 본국으로 귀국한 사람들이 많아 이것이 육로운송의 어려움으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폴란드 트럭 업체는 현재 기사 부족을 이유로 물류비를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유류비 상승보다 트럭기사 부재가 물류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폴란드는 실업률이 낮은 편에 속하며, 노동시장에는 항상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고급인력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 한편 폴란드에는 우크라이나 난민 중 약 100만 명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폴란드 정부는 고용시장에 긍정적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인력수급 문제는 폴란드에서 오래 전부터 주요 현안 중의 하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된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최근에 일부 기업은 인력공급 부족, 고급인력 유출 문제로 벨라루스까지 채용 공고를 내는 상황이다.

헝가리 또한 최근 고용률이 매우 높고 실업률이 거의 자연실업률에 가까워 기본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고용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다. 게다가 물가상승 압력으로 내년 초에는 임금인상 요구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체인력 구인난이 심각하며, 최근 필리핀 등 동남아 인력과 세르비아 인력 등을 통해 이를 다소나마 완화하고 있다.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에 따르면, 헝가리는 최근 완전고용 상태에 가까워 대체인력 고

용이 매우 어렵고 서유럽으로의 인력 유출도 매우 심한 편이며, 취업 3개월 이전 퇴직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에 헝가리 정부는 2022년 1월 취업허가 없이 정부가 인정하는 에이전시를 통해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하는 대상국을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11개국에서 4개국을 추가하였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물류 및 공급망 관련 어려움은 해상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폴란드가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환율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은 유로존 국가인 슬로바키아가 안정적인 편이다. 폴란드는 체코 등 주변국과 비교했을 때 면적이 넓고, 항만을 보유하고 있어 차별성이 있는 국가이다. 폴란드 진출 A사에 따르면, 물류는 2022년도 상반기 대비 10월 현재 상황이 좋아지고 있으며, 물류 가격도 하락 추세이다. 또한 사태 초기 대비 현재 해상물류 가격은 하락했으나, 육상 물류비용은 상승하였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오데사, 마리우폴 항구의 인프라가 파괴되어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주변국인 루마니아와 폴란드에는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폴란드 정부는 주변국인 체코와 비교했을 때 환율개입을 하지 않는 편이며, 금리도 인상하지 않아 화폐가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하였으며, V4 중 헝가리에 이어 두 번째 환율 변동성이 큰 국가이다. 한편 슬로바키아는 급격한 물가 상승이 문제가 되고 있으나, 유로존이기 때문에 다른 중동부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현지 비즈니스에서 매우 중요한 환율 리스크는 없다.

나. 주요국별 현지 비즈니스 환경 변화 주요 내용

1) 폴란드

KOTRA 바르샤바 무역관에 따르면, 중동부유럽 국가 중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특히 주목받고 있는 국가이다. 폴란드는 전후 복구에 대한 기대감과 난민 유입 등으로 인한 고용측면의 긍정적인 경제 효과 등도 기대할 수 있으

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거의 모든 지원이 폴란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폴란드는 체코 등 인근 주변국과 비교했을 때 면적이 넓고, 항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V4 국가 중 폴란드가 인구 및 경제규모가 50%를 점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비즈니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물류, 인건비, 인력수급 등의 이슈가 대표적이나, 이는 전 산업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산업별로 파급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폴란드의 물류 상황은 2022년도 상반기 대비 10월 현재는 상황이 좋아지고 있으며, 대체적인 물류 가격도 하락 추세이다. 인력수급 문제가 폴란드에서 오래 전부터 이슈화 되었지만,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계기로 더욱 심화된 측면이 있다. 일부 기업은 폴란드의 인력공급 부족, 고급인력 유출 문제로 인해 벨라루스에까지 채용 공고를 내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현지 생산 공장은 인력채용 계획을 축소하고 신규 채용을 하지 않을 계획인 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다.

바르샤바 무역관은 폴란드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전쟁 위험이라는 부정적 요인과 재건 기대와 같은 긍정적인 요인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건설업은 건축자재 공급에 차질이 생겨 가격이 상승했으며, 재건사업이 시작될 경우 자재 공급이 더욱 어려워질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폴란드를 중심으로 전후 인프라 구축 및 재건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폴란드 정부는 인프라 구축 관련 마스터 플랜을 이미 마련하고 있다. 에너지는 여타 인근 국가와 비교했을 때 폴란드 상황이 다소 개선되었지만, EU의 전체적인 탈탄소 기조에 맞추어 곧 석탄 사용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에 폴란드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위해 원자력발전소 1기를 2032년 가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46년까지 6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과 폴란드 관계에 대해 바르샤바 무역관은 폴란드가 한국의 무기 등을 비롯한 방산물자 및 원전 건설과 같은 분야에서 최근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전통적으로 폴란드는 미국 무기를 선호하는 편이나, 미국, 독일 등 국가의 공급 기한이 길어 한국을 방산협력 파트너로 선택하게 되었다. 이번 한국산 무기 공급은 이상이 없을 경우 향후 30년간 한·폴란드 경제 관계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폴란드 정부는 원자력 발전의 10% 정도를 소형모듈원전(Small Modular Reactor)으로, 또 다른 10%를 중형모듈원전(Middle Modular Reactor)으로 충당하고자 하며, 일부 대기업은 자체 SMR 구축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폴란드는 노후화된 석탄 발전 시설을 SMR로 교체를 희망하고 있으나, SMR은 대규모 원전과 비교했을 때 단가가 높은 편으로 경제성 측면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폴란드 진출기업 A사는 바르샤바를 포함하여 폴란드의 3개 도시에 법인이 있으며, 인근 중동부유럽의 체코와 슬로바키아에도 법인이 있다. A사에 따르면, 지난 수에즈 운하 사태 이후 철도 운송 빈도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물류 산업은 3년 전 코로나19 팬데믹, 2년 전 수에즈 운하 사건,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르기까지 이슈가 많이 발생하였다. 폴란드는 해상 선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국 업체 입장에서는 덴마크, 이탈리아 등 외국 선사 이용 시 불리한 조건 등 어려움이 많은 편이다. 철도운송은 해상보다 빠르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으며, 반면 한국 발 물류가 해상으로는 6주 걸리지만 철도운송으로는 4주 걸린다. 일부 업체는 물품의 가치가 높을 경우 또는 창고 보관비용 절감을 위해 철도운송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철도운송의 불안정성이 일정 부분 증가한 점은 사실이고, 실질적으로 물류 업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고객사 입장에서 위험요인으로 인해 다른 대체 운송을 선호한다. 또한 러시아를 경유할 경우 전쟁은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어려워 철도운송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A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해상 운임은 2021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급등했으나, 현재는 안정화된 상황이다. 현재 전체적으로 글로벌 물동량이 감소했으며, 러시아발 선박 부재로 인해 가격이 조정되었다. 일반적으로 10월 말부

터 블랙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기간의 전자상거래 물량이 많으며, 중국 발 원자재 등을 한창 운송하는 기간임에도, 현재 상당 부분 감소한 상황이다. 해상 운임은 빠르게 변동하는 반면, 철도 운임은 중국의 성별 보조금 영향으로 실질적 수요 및 공급에 따른 영향이 운임에 반영되는 시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A사는 트럭을 이용한 육상 운송은 유류비 인상, 인력 부족으로 인건비 상승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최근 내륙 지역에 가뭄이 극심해 곡물 및 석탄 운송을 정부에서 철도운송으로 강제해 연쇄적으로 기존에 철도로 이송하던 물량을 트럭으로 운송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럭 운전기사는 대부분 우크라이나 출신이었는데, 자국 상황이 악화되어 귀국해 인력 수급이 어려워졌으며, 결과적으로 인건비 상승이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TV 등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코로나19로 판매량이 급증한 바 있으나, 최근 가스비를 비롯한 물가상승으로 소비가 위축되어 재고량이 80%에 달하여 가정용 TV보다 자동차용 디스플레이에 집중하고 있다. 자동차는 반도체 등 공급망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이지만, 수요 부족보다 공급 부족이 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상승하였다.

A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트럭 운전기사 등 인력 부족, 가격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나, 러시아 발 물량 부재로 해상 운임은 다소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단, 대러 제재로 인해 사전에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이 증가했으며, 운송 중 거래 기업 가운데 러시아 업체가 있는 경우 문제가 종종 발생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러시아 회사보다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중국 회사를 통해 거래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 또한 러시아행 혹은 러시아발 물류는 최근 카자흐스탄을 거점으로 유입 혹은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종합적으로 물류 부문에서 미래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심화되어 가격 협의가 필요한 사전 계약 등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중국 및 글로벌 업체와 경쟁이 불가피하다.

A사는 폴란드에서 전쟁 변수는 이제 고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프라를

전쟁 전 상황으로 복구하기까지는 최소 2~3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즉, 전쟁 후 인프라 복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항구에 선박이 복구되기 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다. 일부 한국 업체는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사업 대비를 위해 이미 현지에 복귀해 준비하는 경우도 있으며, 운송 물량이 늘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마리우폴 항구의 인프라가 파괴되었는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항구를 보유한 주변국인 루마니아와 폴란드에는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다.

A사에 따르면,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가스 수입이 중단되었으며, 원자력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현재 폴란드는 전력난이 심각하며, 일부 전력을 서유럽에서 수입하고 있다. 산업단지가 위치한 브로츠와프 지역에는 최근 정전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배터리 업체를 비롯한 우리 기업들이 최근 중동부유럽에 공장 신설을 검토중인 경우 슬로바키아 국경 지역을 많이 고려하는 편인데, 해당 지역이 현재 전력 공급이 가장 원활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A사는 우리 정부의 정책과 관련하여 기존 한국정부의 대유럽 정책이 서유럽 위주이기 때문에 향후 중동부유럽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중동부유럽에는 한국기업이 특히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한국, 중국, 베트남 등에서 원자재 공급이 많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적선사가 중동부유럽으로 선박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선사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폴란드의 경우 현재 삼성, LG, SK 등 대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연간 약 500~700개 컨테이너 정도의 기본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기본적인 물량 및 수요는 충분한 상황인데도 국적선사의 공급이 없어 해외기업을 통해 물류를 진행하고 있다.

폴란드 진출기업 B사는 폴란드에서 생산 공장, 연구원, 판매법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고가 제품 위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판매가격이 상승해 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증가 중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석유,

가스 등 에너지 불안 요소 및 관련 비용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었다. 물가 상승은 에너지 부문에서 촉발되어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B사는 아직 제품 가격 인상을 단행하지 않았지만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가격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금리인상, 물가상승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소폭 개선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현재 물가상승으로 인한 판매 감소보다 임금인상 압박이 더 큰 상황이다.

B사는 공급망 이슈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부터 시작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최근 중국과 동남아에서 수입하는 제품 및 부품의 물류비가 상승하였다. 또한 폴란드와 러시아 생산 공장에서 제품을 공급받았는데, 러시아 공장이 가동을 중단해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 이로 인해 B사는 유럽 내 공급량만큼은 역내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공장 증설 등을 계획하고 있다.

B사에 따르면, 폴란드는 헝가리와 EU 회복기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며, 러시아·미국·중국·EU 등 주요국과의 외교 관계, 난민문제 등으로 일정 기간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좋지 않았고, 최근 민주주의 후퇴 및 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미국과의 관계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약 400만 명의 난민이 유입되었으며, 대부분이 여성 및 아이들이지만 자연실업률에 가까운 폴란드에 고용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폴란드는 지리적으로 우크라이나와 국경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희망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우려가 더 큰 편이다. 또한 2023년까지는 폴란드는 환율 불안정, 수요 감소, 물가상승,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위험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폴란드 진출기업 C사는 폴란드가 유로화가 아닌 자국화폐(즈워티)를 사용하고 있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지 비즈니스 환경의 어려움을 제

일 먼저 언급하였다. C사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는 주변국인 체코와 비교했을 때 환율개입을 거의 하지 않는 편이며, 금리도 인상하지 않아 화폐가치가 더욱 하락하는 상황이다.

C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이동에 대한 수요가 급감해 차량 판매 부문이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 소비심리는 개선되고 있지만 반도체 등 공급망 이슈로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차량 주문 후 차량 인도까지 시차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반도체 공급 이슈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 감소에 의한 판매 감소 영향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폭스바겐 등 유럽의 차량생산업체가 독일에 완성차를 공급하기 위해 폴란드 물량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자동차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기아차는 최근 폴란드에서 점유율이 급등하여, 3위를 기록하였다.

C사는 트럭기사 부족, 유류비 상승 등으로 물류 문제가 심각해진 점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어려워진 비즈니스 여건 중 하나로 들고 있다. 폴란드 트럭기사는 대부분 우크라이나 출신이었는데, 동원령 이후 본국으로 귀국한 사람들이 많아 차량 운행이 감소하였다. 트럭 업체는 현재 기사 부족을 이유로 물류비를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유류비 상승보다 트럭기사 부재가 물류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폴란드에서는 신차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고차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하였다.

C사는 폴란드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2023년 폴란드 총선 전후 정책 변동 리스크가 클 것으로 전망하였다. 폴란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도입 등으로 사업 환경이 안정적이지 않으며, 불확실성이 심하다. 즉, EU 측과 갈등으로 EU회복기금 지원이 동결되었고 기업 과세 측면에서도 여러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폴란드는 실업률이 낮은 편에 속하며, 노동시장에는 항상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고급인력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 폴란드 전기차 시장은 전체 1~3% 수준이며, 전기차 및 급

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조건이 어려워 향후 전기차 점유율은 일정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 진출기업 D사는 가전제품 판매 법인으로 최근 상황에 대해 코로나19 기간에 TV 수요가 증가해 판매가 급증했으나, 2022년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판매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TV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판매가 증가한 것 대비 2022년 시장 수요가 감소했으나,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및 TV 교체시기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유럽 내 모든 법인 및 지점이 전년대비 2022년 성과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고용인원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현재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물가상승으로 인한 임금 상승 압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D사는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물류비 상승, 공급망 문제 등으로 제품 수입 및 이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폴란드 정부는 현재 우크라이나 난민 중 약 100만 명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시장에 긍정적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태 초기 대비 현재 해상물류 가격은 하락했으나, 육상 물류비용은 상승했고, 물류담당자들이 장기계약을 선호해 물류비용이 상승하였다.

D사는 2023년까지는 소비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사업계획 축소, 인력 감축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 감소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으로 향후 일정 기간 지속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환율 변동 리스크도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된다. 폴란드 내 생산시설 증설을 희망하고 있으나 전기, 용수 등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아직까지 추가적인 투자 조건이 적합하지 않은바, 향후 폴란드 내 기반시설 증축이 필요하다.

바르샤바에 소재하고 있는 Vistula 대학의 Nicolas Levi 교수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나라로 우크라이나 난민이 약 400만 명 유입된 것으로 추산하였다. 폴란드 가정집에서 지내는 난민 가족 수

가 상당하며,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폴란드인들에게 매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우크라이나 난민은 대부분 여성과 아이들이며, 일부는 폴란드에서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등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경우도 많다. 폴란드 국경지대는 우크라이나와 매우 인접하며, 폭격 등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극심한 상태이다.

Levi 교수에 따르면, 폴란드는 최근 우크라이나 인접국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폴란드는 정치·외교적으로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 물자 지원 등을 통해 EU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폴란드는 발트 3국과 더불어 EU의 대러 경제제재 등 반러시아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Levi 교수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경제적 영향으로 물가상승 외에도 기존에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수입하던 상품공급 중단으로 인한 어려움 등을 들고 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식료품, 생필품, 전기세, 유류비 등 생활 밀접한 부분의 가격 상승이 극심하다. 폴란드에는 현재 국민들 사이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다 같이 불편함을 견디며, 극복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

2) 체코

KOTRA 프라하 무역관에 따르면,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와 달리 체코는 에너지 보조금, 외국인 노동자 채용 등에 보수적이기 때문에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체코는 실업률이 낮은 수준으로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데,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기업 운영비용이 증가한 상황에서 임금인상 압박이 심해졌다. SKODA의 경우 지속적으로 운영비용이 증가할 경우 체코로부터 사업장을 이동시킬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부터 체코 정부는 요금상한제를 시작할 예정인데, 가계와 중소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지 진출기업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체코에도 이번 전쟁

으로 약 30~40만 명의 난민이 유입되었는데 대체로 여성과 어린이이기 때문에 인력난 해소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체코는 공급망 문제로 타격을 받았으며, 일부 전후 복구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장요인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전후복구 과정에서 국방 부문의 기회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체코 정부는 국방비 증액을 위해 노력 중이며, 한국산 방산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프라하 무역관이 보는 체코는 현재 EU 의장국으로써 EU의 에너지 정책 이행을 위해 노력 중이며, 천연가스 대체를 위해 원전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체코는 천연가스 대체를 위해 석탄 사용을 결정하였다. 체코는 대러 천연가스 의존도가 100% 수준이었으며, 현재 네덜란드에 LNG 터미널을 임차하고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전체 천연가스 소비량의 1/3은 수입, 1/3은 보관하고 있으며, 나머지 1/3은 독일 및 폴란드 터미널 임차를 시도하고 있다. 체코 정부는 2023년 3월 원전 입찰을 계획 중이며, 현재 1기 건설 계획을 발표했으며, 최대 2기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전 수주에는 안보상의 이유로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했기 때문에 프랑스, 미국, 한국 간 3파전이 예상되고 있다. 한수원은 2019년부터 공식적으로 체코에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프라하 무역관에 따르면,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은 폴란드보다 체코에서 먼저 증대되었는데, 체코는 현재 장갑차를 2026년까지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며, 기존에 우리나라 방산 업체가 입찰 실패 경험이 있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체코의 경우 미국산 무기를 주로 사용하는 폴란드와 달리 러시아산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 구소련 기술을 보강 및 수정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체코 정부는 이를 벗어나길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연속성 측면에서는 한국산 무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을 수도 있다. 최근 체코는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기부하고 독일에서 기부 받았기 때문에 독일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또한 최근 스웨덴에서 전차 200대를 구입한 바 있다.

프라하 무역관이 보는 체코의 외교관계를 요약하자면, 체코 국민의 반러 감

정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심화되고 있으며, 안보상의 이유로 중국을 배제하고 있다. 프라하는 대만과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공식적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일례로 5G 입찰에서 중국의 화웨이가 배제되어 큰 이슈가 된 바 있다.

프라하 무역관에 따르면, 2022년 초 체코의 경제전망은 긍정적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경제성장률을 2022년 2%, 2023년 1.1%로 하향 조정하였다. 체코는 현재 물가 상승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에너지 가격과 임금상승 압박이 가장 심각하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부터 3차례에 걸쳐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체코 기업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며, 체코 정부는 외국투자 대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를 점차 축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국에 위치해 있는 산업단지는 일부에서는 최소필요투자금 조건에 해당될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현재 별도의 인센티브 없이 운영되고 있다.

체코 진출기업 A사는 물류운송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를 경유하는 철도운송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항만운송 기간 및 비용이 증가했고, 컨테이너 확보가 어려워졌다고 밝히고 있다. 즉, 우크라이나 사태는 당사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간접적으로 물류 운송에 애로사항이 다수 발생하였다. 전체 판매 상품의 90%에 해당하는 장비는 기존에도 해상으로 운송했으므로 큰 변화는 없지만, 철도로 운송하던 부품 등은 해상운송으로 갑자기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그리고 현재 해상운송은 운임 상승, 컨테이너선 확보 어려움, 운송 기간 확대 등의 애로사항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선박운임 비용은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초 약 2.5~3배 이상 상승한 바 있다.

A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이 심화되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생산 부품 공급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여파가 종료되는 시점과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시점이 겹치면서 원자재 확보와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내 코로나19로

인한 셧다운으로 핵심 부품 공급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2022년 여름 이후 원자재 확보에 차질이 생겨 전체적으로 매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A사는 현재 유럽 전역이 극심한 물가상승을 경험하고 있어, 향후 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체코 15%, 독일 8~9%, 영국 12% 등 대부분 유럽 국가가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의 투자가 감소되는 부분이며, 건설시장은 투자 감소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아직까지 A사는 직접적인 영향을 체감하지 않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A사가 고용 축면에서 느끼는 체코의 상황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고용지수가 악화되었으며, 일부 회복되고 있는 추세이다. 체코는 근무의지가 없는 사람을 제외하면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구인이 어려운 편이다. 현재 루마니아, 조지아, 세르비아 등 동남부 유럽에서 비자를 받아 오는 우수 인력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체로 비교적 낮은 인건비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A사는 유럽 전체 및 체코의 건설시장 전망과 관련하여 2023년 시장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2024년부터는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쟁 전 우크라이나에서의 점유율이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전후 복구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단, 현재 금리 인상, 투자 축소,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해 시장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기존에 딜러를 통해 고객에 제공하고 있는 무이자 또는 저리 할부금융 지원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부담이 증가하였다.

체코 진출기업 B사가 보는 에너지 관련 상황은 우선 코로나19 대유행을 기점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최근에는 수요 증가로 인해 더욱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초반에는 단기전을 예상했으나,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및 원자재가격이 상승하였고, 업체 수배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체코는 전력을 연간 단위로 공급하는데, 일시적인 패닉 구매

에 따른 수요 급증으로 가격이 상승했으나, 점차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 가격에 대한 예측은 어렵지만, 가격이 더 이상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은 에너지 가격 예측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선물 구매가 아닌 현물 구매를 하는 업체들도 빈번하다. 체코 정부는 사용량의 90% 정도를 비축해서 독일 등과 비교해 공급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상황이다. 즉, 체코의 전기 공급은 가격상승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아직 수급 문제는 아니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3) 슬로바키아

KOTRA 브라티슬라바 무역관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유로존이기 때문에 다른 중동부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환율 리스크는 없으나,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해 문제가 되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과거 진출한 기아자동차와 연관된 협력 업체가 다수 진출해 있으며, 최근에는 진출기업 수가 현저하게 줄어든 상황이다. 슬로바키아 정부의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정책이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건비도 비싼 편에 속해 신규 투자는 많지 않다. 단, 일부 기업은 기존 시설을 확장 및 확장이전 사례가 있으며, 기존 진출기업은 대체로 슬로바키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브라티슬라바 무역관은 슬로바키아가 실업률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직원 고용이 전반적으로 어렵고, 주변국과 비교했을 때 특히 외국인 고용이 어려운 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기아차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슬로바키아 정부에서 난민의 취업 비자 지원 정책으로 고용 문제를 일부 해결하기도 하였다. 생산직은 시간당 급여를 지급 받는 시스템인데 외국인 근로자는 장시간 근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직원 채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슬로바키아 진출기업 A사는 가장 큰 문제가 전기세와 원자재가격이며, 원자재 원가 압박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밝혔다. 원자재 수급 문제와 가격 상승

문제는 제품 생산에 가장 큰 걸림돌인 셈이다. 한국 자동차생산기업은 반도체 확보에 맞춰 생산 일정을 조정하는 방식을 채택했으나, 유럽 업체는 모든 부품이 모이면 생산하는 방식을 선호해 생산 속도가 상대적으로 유럽 업체가 느리다. A사의 슬로바키아 진출은 고객사의 위치에 따라 선정한 것이며, 2020년 대비 2022년 10월 현재 물류비용은 2~3배 상승하였다. 슬로베니아 코퍼항을 이용하고 있는 중이며, 글로벌 경기침체로 해상운임 비용이 최근 소폭 하락하였다.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중국 항만 운영이 중단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항공 운송을 이용한 경우도 있다. 노무관계 이슈도 심각한데, 정부에서 비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는 문제, 슬로바키아 직원의 병가 등 잦은 결근 비율 등의 문제가 심각한 편이다.

슬로바키아 진출기업 B사는 현지에서 IT와 물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력공급 어려움, 물류량 감소, 물류비용 증가 등으로 향후 일정기간 동안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B사는 다른 지역보다 수도인 브라티슬라바는 비교적 영어가 가능한 탑티어(top-tier) 인력 채용이 수월한 편으로 보고 있다. 슬로바키아와 워킹홀리데이 비자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인턴 및 학생채용이 어려우며, 기본적으로 비자 프로세스가 너무 복잡하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채용 및 퇴직 시 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TV 사업이 초호황이었는데, 이는 당시 정부에서 경기부양정책의 일환으로 지원된 자금으로 TV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물류사의 가용 용량(capacity)이 줄어 선사, 항공 등 모든 물류비용이 증가하였다. 이용비용은 코로나19 전과 비교했을 때 2~3배 증가했으나, 통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더욱 어려워졌다.

B사는 우크라이나 사태 전부터 이미 수요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은 10~20% 수준으로 보고 있다. 물류비용 상승분에 대부분은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고 있으며, 유류비와 인건비 등이 반영된 것이다. 트럭기사들은 주로 동유럽 공장에서 서유럽으로 운송을 하는데, 서유럽에 정착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트럭기사 구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한편 유류비가 물

류비에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 수준이다. B사는 사업 특성상 주력 관계사의 판매 계획에 따라 움직이지만, 향후 일정기간 동안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 헝가리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은 2018년 대비 2022년 헝가리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수가 3~4배 증가했으며, 현지에 체류하는 한인 수가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헝가리는 셍겐 역내에서 인건비가 가장 저렴한 편이나 최근 인건비가 많이 올라 중동부유럽 국가 중 인건비가 저렴한 폴란드와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수준에 달하고 있다. 최근 한국기업이 중동부유럽 진출 시 헝가리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헝가리에 삼성SDI와 SK온이 진출함에 따라 관련 협력사들이 동반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 진출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다.

부다페스트 무역관에 따르면, 헝가리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은 에너지 가격 급등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용수조달, 전력공급, 인재채용, 물가상승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에너지 가격이 급증했는데, 유통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며, 공급량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는 방식이 아닌 업체별 개별계약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 차이와 불확실성이 크다. 에너지 외 용수, 전력, 인력 공급 문제 등도 심각한 편인데, 이러한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된 이슈로 헝가리 진출 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미리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가 상승은 에너지, 원자재, 물류 등 전반적인 생산 및 유지비용 증가로 연결되어 기업 운영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임금인상 압박도 심화되고 있다.

부다페스트 무역관은 헝가리의 정치, 외교적 성향이 기회요인이자 위협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헝가리의 오르반 정권은 친한 기조가 강하지만, 반면

반EU 기조는 EU 기금 지원 사업에 대해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현재 헝가리 정부는 대EU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한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국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헝가리는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EU 기금을 받지 못해 정부의 자금이 필요한 곳에 투입되지 못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다페스트 무역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인력, 에너지, 물류 등 다방면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기업 협력사 중 최근 헝가리 진출 계획을 검토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진출 계획을 연기 및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도 종종 있다. 고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헝가리 정부는 최근 외국인고용 패스트트랙 제도 적용국가에 4개국을 추가하였다. 이는 정부에서 인증한 기업을 통해 외국인을 더 쉽게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헝가리 진출기업 입장에서는 외국인노동자 고용이 보다 수월해지는 효과가 있다. 러시아를 경유하는 물류 운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상운송 비용이 올라 전반적으로 물류난이 심각해졌으나, 현재는 에너지, 인력 문제가 더 커져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약화되었다. 현지 진출기업 입장에서는 전쟁 종료 전까지 원자재 상승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헝가리 진출기업 A사는 헝가리 사업에서 전기료 급등 및 가격 불안정성, 인력부족, 물가상승, 물류비 상승 등을 주요 어려움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A사는 전력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에너지 가격 급등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기본적으로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헝가리의 전기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며, 이보다도 장기공급 계약이 어렵고 전력 시장에 투기적인 요소와 불확실성이 많아 안정적인 사업계획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헝가리는 최근 고용률이 매우 높고 실업률이 거의 자연실업률에 가까워 기본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고용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다. 특히 대체인력 구인난이 심각한 편인데, 최근 필리핀 등 동남아 인력과 세르비아 인력 등을 통해 이를 다소나마 완화하고 있다. 전반적인 물가상승 압력

에 포린트화 평가절하로 수입물가 및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심각한 편이다. 이러한 물가상승 압력은 2023년 초 임금인상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물류비용이 전반적으로 인상되었으며, 특히 기름값 인상으로 육로운송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내륙국가인 헝가리 특성에 따라 육로운송 환경이 중요하며, 아시아 발 물류는 주로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를 거쳐 헝가리로 들어온다.

A사는 헝가리 정부의 대외정책 영향 가운데 헝가리 정부의 반EU 정책으로 EU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이 중단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폴란드와 함께 헝가리는 EU 정책에 반하는 경향이 많고 EU 집행위로부터 민주주의 후퇴 등 EU가 지향하는 방향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를 받은 바 있으며, 최근에는 EU 기금 지원이 중단되었다. EU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이 그동안 친환경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었는데, 지원 중단에 따라 이 분야에 발전이 제약될 것이 우려된다. EU 기금의 헝가리 지원 중단은 교육 부문 투자와 인건비 충당에도 상당한 차질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A사에 따르면, 헝가리는 전반적인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한 가운데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향후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이 최근 많이 확대되고 있으나, 공급 불안정성이 심한 편이어서 원자력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8년 남부에 원전 증설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최근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21년 말 대비 2022년 10월 현재 헝가리의 전력비용은 2~3배, 가스비용 6~7배 인상되었다. 물가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일부 에너지 가격을 고정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 휘발유와 경유 모두 특정 용량까지 리터당 480 포린트로 고정하고 있고 이는 헝가리 개인 등록 차량에만 적용하고 있다.

A사는 최근 단기적인 전망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망은 확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 가격 불안정성, 환율불안, 헝가리 정부 재정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단기적 전망은 불투명하다. 하지만 유럽

의 전기차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확대 전망은 분명한바, 이러한 단기적인 불투명성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버텨야 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헝가리 진출기업 B사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의 주요 영향으로 전기료 급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전기료 급등이 B사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헝가리 현지 비즈니스에 대한 영향이며, 그 다음으로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 등도 주요 어려움 중 하나이다. 유럽의 셍겐 내에서 인건비를 비롯한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가장 저렴하여 헝가리를 생산거점으로 결정한 측면이 있는데, 최근 전력비용 급등은 이러한 이점을 완전히 대체하고도 남음이 있다. B사가 체감하는 바에 따르면, 최근 헝가리의 전력비용은 5배 이상 상승하였고, 최근까지 가격변동 불확실성이 매우 커서 생산계획 자체를 수립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또한 최근 물가상승 압력으로 임금인상 요구도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헝가리는 최근 완전고용 상태에 가까워 대체인력 고용이 매우 어렵고 서유럽으로의 인력 유출도 심한 편이며, 특히 취업 3개월 이전 퇴직 비율이 높다. 이에 헝가리 정부는 2022년 1월 취업허가 없이 정부가 인정하는 에이전시를 통해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하는 대상국을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11개국에서 4개국을 추가하였다.

B사에 따르면, 유럽의 중장기적인 전기차 시장에 대한 확고한 전망을 바탕으로 현재 헝가리에서의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글로벌 시장에서 유럽 시장이 전기차 수요가 가장 먼저 확대되고 있고 향후 확대 전망도 여타 시장에 비해 가장 확실하다. 이에 B사는 태양광 발전 등 자체적인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최근 직면하고 있는 전력난 및 비용 불확실성을 극복할 계획도 고려하고 있다.

헝가리 투자·수출진흥청에 따르면, 헝가리는 유럽의 대기업 외에도 한국, 중국 등의 다국적 기업이 EU 시장을 겨냥해 최근 생산 공장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외국 기업이 헝가리를 주시하고 있는 이유로는 EU 회원국이면서 2020년 6%와 2021년 8% 같이 높은 경제성장률, 정부 지원금 지급과 같은 친기업 정책 등을 꼽을 수 있다. 독일 기업은 최근 기존에 중국에 있었던 생산 기지를 공

급망 재편 차원에서 EU 회원국인 헝가리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SK, 삼성 등 다국적 기업도 EU 시장에 자사 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헝가리에 생산 공장 투자를 많이 진행한다.

헝가리 투자·수출진흥청은 헝가리가 EU 회원국이면서도 친러 국가임을 잘 인지하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모스크바, 이스탄불, 베를린 3각관계에서 밸런스 유지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 투자·수출진흥청의 설명이다. 헝가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도 기존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헝가리 투자·수출진흥청은 현재 시점을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발생한 수출입 구조 변동, 공급망 문제 대두 및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대러 경제제재 여파 등에 적응해야 되는 시기로 인식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대중국 및 대인도 수출입이 감소했으며, 품목별로는 식료품과 섬유 제품의 교역량이 증가하였다. 물류비 상승, 자동차·석유 산업의 공급 문제, 생산기지 이전 등으로 거의 모든 산업이 공급망 이슈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헝가리 투자·수출진흥청에 따르면, EU는 에너지 의존도, 거시경제 환경 악화, 경쟁력 저하, 공급망 등 해결이 필요한 시급한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EU의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너무 높아 대러 제재로 감소한 공급량은 빠른 시일 내 저렴한 가격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거시경제와 무역시장의 위험이 공존해 향후 일정 기간 동안 불확실성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유럽 내 수요 감소는 장기 경기침체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 헝가리 투자·수출진흥청은 헝가리가 한국과 에너지, 의료, 농업, 식품 등 다방면에서 기술협력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헝가리 정부는 에너지원 전환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열(Thermo) 발전 기술 협력에 대한 수요가 많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의료기술 관련 협력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농업과 식품 분야의 생산효율 개선 및 신규 기술도입을 위한 협력 가능성도 충분하다.

제4장 한국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한국과 중동부유럽의 경제관계

가. 폴란드

한·폴란드 교역 증가에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로 수출입 관세 폐지가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대폴란드 수출은 65억 9,600만 달러, 수입은 11억 200만 달러를 기록, 2006년 대비 각각 39억 8,300만 달러, 8억 3,100달러 증가하였다. 한·폴란드 교역은 최근 다소 정체되어 있고, 급격한 변동 요인이 없어 뚜렷한 교역 증가 혹은 감소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국의 대폴란드 수출은 현지 진출 대기업 중심의 자동차 및 전자 관련 기업 간 교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폴란드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 감소 혹은 종료 시 교역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상존한다.

표 4-1. 한국-폴란드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수지
	수출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2022. 10	6,376	12.3	896	-4.9	5,480
2021	6,596	17.0	1,102	32.1	5,494
2020	5,639	6.1	834	8.2	4,805
2019	5,315	22.6	771	14.5	4,544
2018	4,334	39.1	673	7.2	3,661
2017	3,116	7.0	628	16.0	2,488
2016	2,912	3.7	541	-22.2	2,371

표 4-1. 계속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수지
	수출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2015	2,807	-27.1	696	-9.9	2,111
2014	3,850	6.9	773	-0.3	3,077
2013	3,601	-2.1	775	44.9	2,826
2012	3,677	-10.3	535	42.2	3,142
2011	4,101	-6.4	376	37.5	3,725
2010	4,381	5.6	274	17.1	4,107
2009	4,147	0.7	234	-23.9	3,913
2008	4,117	17.3	307	2.0	3,810
2007	3,509	34.3	301	11.2	3,208
2006	2,613	122.4	271	133.0	2,342
2005	1,175	45.6	116	30.9	1,059

자료: 한국무역협회(2022), 「K-stat 국가별 수출입」,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1. 22).

2021년 기준 양국 간 품목별 교역 현황을 살펴보면 기계 및 운수장비, 화학품 및 관련 제품 수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수입은 기계 및 운수장비와 비식용원재료(연료 제외), 화학품 및 관련 제품 순이며, 무역수지 흑자는 54억 9,400만 달러 규모이다. 기계와 운수장비의 수출 금액은 31억 8,0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48.2%를 차지하였고, 전년대비 금액은 2억 600만 달러가 증가했으나 비중은 4.5%p 감소하였다.[41]

기계 및 운수장비 관련 수출 중 자동차 부품, 승용차, 평판디스플레이 등이 주력 상품이다. 화학품 및 관련 제품도 수출 금액 20억 5,2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31.1%를 차지했고, 2020년부터 수출이 급증하였다. 기타 정밀 화학원료, 축전지, 필름, 집적회로 반도체 등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상품을 집중적으로 수출하였다.[42]

41) 한국무역협회(2022), 「K-stat 국가별 수출입」,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1. 22).
42) 위의 자료.

기계 및 운수장비 수입 비중은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연료를 제외한 비식용원재료(비중 11.7%)의 수입도 2019년부터 주요 품목 2위로 급등하였다. 단일 품목으로는 기타 금속광물의 수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43]

한국의 대폴란드 투자는 2019년에 최고조에 달한 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감소했으나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한국의 대폴란드 투자규모는 11억 6,300만 달러로 전년대비 약 2.2배 증가했으며, 2020~21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지만 2018년 투자규모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2022년 상반기 누적 6억 3,000만 달러에 이른바, 하반기까지 누적 시 팬데믹 시기의 투자 규모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44]

폴란드에 설립된 법인 수도 2019년에 36개로 가장 많은 법인이 설립된 해로 기록되었다. 설립 법인 수는 2020년 22개, 2021년 27개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연간 20개 이상 설립되었다.[45]

한국의 대폴란드 투자는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협력업체들이 함께 진출하는 형태를 보였다. 1993년 대우전자가 폴란드에 진출하면서부터 투자가 시작되었고, 1995년 대우자동차가 폴란드 투자를 결정하면서 중소 협력업체의 진출 및 투자를 유도하였다. 2008년 체코와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현대 및 기아차 공장을 지원하기 위해 폴란드 남부 지방에 자동차 관련 투자가 집중되었다. 전자제품 생산기지로서의 투자를 위해 LG 클러스터가 폴란드에 형성되었으며, 삼성전자의 아미카 공장 인수 등이 있었다. 2016년 LG화학의 브로츠와프 배터리 공장 투자 이후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46]

---

43) 위의 자료.
44) 한국수출입은행(2022), 「해외직접투자통계」,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1. 22).
45) 위의 자료.
46) 위의 자료.

표 4-2. 한국의 대폴란드 투자 현황

연도	신규 법인 수	투자금액(백만 달러)
2022. 6	15	630
2021	27	569
2020	22	739
2019	36	1,163
2018	29	535
2017	14	216
2016	21	54
2015	10	39
2014	8	55
2013	7	22
2012	4	27
2011	8	90
2010	12	55
2009	1	30
2008	13	94
2007	17	119
2006	20	228
2005	18	78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22), 「해외직접투자통계」,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1. 22).

폴란드는 중동부유럽에서 중요한 자동차 생산기지로 GM, 폭스바겐, 피아트 등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이미 폴란드에 진출해 있다. 한국기업의 폴란드 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 제조업체의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폴란드에 투자 진출한 대우자동차 사례와 2008년부터 체코에 진출한 현대자동차와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기아자동차를 지원하기 위해 폴란드 남부지방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사례를 꼽을 수 있다. 최근 한국기업의 전기차용 배터리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바, 관련 업체의 투자진출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기업들의 폴란드 투자진출은 주로 수도인 바르샤바를 중심으로 판매법인 또는 지점 등이 진출하였다. 2016년부터 중동부유럽 및 러시아 등 옛 공산

권 국가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 건설에 집중하여 투자가 이루어졌다.[47] 바르샤바 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는 삼성전자, LG 전자, 현대, 기아, 롯데화학 등과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판토스와 같은 중견 기업 등도 포함되어 있다.

제조업 분야 진출은 폴란드 남서쪽의 브로츠와프 및 카토비체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2016년 LG화학이 유럽 최초로 전기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폴란드 브로츠와프 인근에 투자했고 이와 동시에 자동차 부품 관련 중소 협력업체들이 동반 진출하였다. 카토비체에는 SK 이노베이션과 같은 대기업이 진출했고 그 밖에 유신정밀, 우보테크, 이레 등 관련 중견 기업도 다수 포함되었으며, 현대차, 기아차, 폭스바겐 등 유럽 소재 완성차 업체 등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들의 진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자동차 부품 기업들은 슬로바키아, 체코, 독일로의 육로 물류 이동이 용이한 폴란드 남서쪽 카토비체 인근 중소도시에 집중적으로 진출하였다.

폴란드에 진출한 한국기업 중 제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운수·창고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이 있다. 폴란드에는 총 113개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다.[48] 진출형태로는 생산법인 62개사, 판매법인 9개사, 연락사무소 4개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체코

한국의 대체코 수출은 2021년 기준 29억 5,400만 달러로 2016년 대비 약 5.2배 증가, 수입은 10억 940만 달러를 나타내며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초과하였고, 무역수지 흑자도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냈다. 수입이 수출의 37%에 불과하나, 최근 수출 증가세에 비해 수입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무역수지 흑자는 2021년 기준 18억 6,000만 달러로 대체코 수출이 감소했던 2019년과 유럽재정위기가 있었던 2013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인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47) KOTRA(2019), p. 22.
48) KOTRA, 2020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DB(2022. 2. 7. 기준, 검색일: 2022. 11. 22).

표 4-3. 한국-체코 교역 현황

연도	수출		수입		수지 (백만 달러)
	수출액 (백만 달러)	증감률 (%)	수입액 (백만 달러)	증감률 (%)	
2022. 10	2,585	7.2	843	-7.9	1,742
2021	2,954	9.7	1,094	15.9	1,860
2020	2,694	27.4	944	10.8	1,750
2019	2,114	-13.8	852	-1.4	1,262
2018	2,452	10.8	864	20.7	1,588
2017	2,212	1.7	716	15.6	1,496
2016	2,176	6.6	619	7.3	1,557
2015	2,040	12.6	577	3.4	1,463
2014	1,812	7.7	558	0.1	1,254
2013	1,683	-5.8	557	-2.6	1,126
2012	1,786	4.3	572	14.2	1,214
2011	1,713	47.0	501	52.5	1,212
2010	1,165	51.0	329	-2.5	836
2009	771	-6.9	337	-14.5	434
2008	829	-14.2	395	6.9	434
2007	966	71.3	369	42.6	597
2006	564	66.5	259	72.7	305
2005	339	8.3	150	38.4	189

자료: 한국무역협회(2022), 「K-stat 국가별 수출입」,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1. 22).

한국의 대체코 주요 교역 품목에서 기계 및 운수장비, 기타 제조제품 등 수출과 수입 품목 간 유사성을 보인다. 수출은 기계 및 운수장비(66.5%), 기타 제조제품(14.7%), 재료별 제조제품(10.7%) 순이고, 수입은 기계 및 운수장비(52.7%), 기타 제조제품(25.8%), 재료별 제조제품(10.4%) 순이다. 세부 품목으로는 자동차부품이 최대 수출 품목이자 최대 수입 품목이다. 2021년 대체코 무역수지 흑자는 18억 6,000만 달러로 이 중 74.7%가 기계 및 운수장비에 해당한다.

표 4-4. 한국의 대체코 품목별 수출입(2021년 기준)

품목명	2021년				
	수출액 (백만 달러)	증감률 (%)	수입액 (백만 달러)	증감률 (%)	수지 (백만 달러)
총계	2,954	9.7	1,094	15.9	1,860
기계 및 운수장비	1,965	8.6	576	8.0	1,389
기타 제조제품	433	4.6	282	21.8	151
재료별 제조제품	315	3.4	114	21.4	201
화학물 및 관련제품	233	46.7	51	11.6	182
식품 및 산동물	4	35.9	6	46.2	-2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1	-30.5	57	91.9	-56
음료 및 담배	1	-38.9	8	60.6	-7
광물성연료,윤활유 및 관련물질	1	16.4	0	-11.3	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0	-2.8	0	-96.0	0
동식물성유지 및 왁스	0	-100.0	0	10,869.8	0

자료: 한국무역협회(2022), 「K-stat 국가별 수출입」,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1. 22).

한국의 대체코 투자는 연도별 기복이 큰 편이나 한국이 대체코 아시아 최대 투자국이다. 한국의 대체코 투자는 제조업, 그중에서도 자동차산업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투자 주체는 대부분 대기업이다.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지역관련 세제혜택과 일자리 관련 지원금을 투자 인센티브로 받았고, 지역 노동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육 지원금도 수령하였다. 대표적인 한국기업의 대체코 투자는 2008년 현대자동차의 진출과 2014년 넥센타이어의 진출이다. 2021년 체코전력공사(ČEZ)의 전기차배터리 공장건설 프로젝트에 폭스바겐 그룹의 스코다와 LG에너지솔루션이 잠재 투자자로 거론되고 있다.

표 4-5. 한국의 대체코 투자 현황

연도	신규 법인 수	투자금액(백만 달러)
2022. 6	0	103
2021	2	125
2020	3	22

표 4-5. 계속

연도	신규 법인 수	투자금액(백만 달러)
2019	6	65
2018	10	245
2017	3	98
2016	4	80
2015	5	7
2014	4	5
2013	6	118
2012	2	3
2011	8	12
2010	2	13
2009	1	94
2008	12	231
2007	15	536
2006	7	112
2005	2	1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22), 「해외직접투자통계」,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1. 22).

체코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대부분 2006년 체코에 생산법인을 설립한 현대자동차와 관계 협력사이다. 현대자동차는 체코 투자청의 투자인센티브를 받았는데, 단일 투자건으로 가장 큰 규모이며, 1·2차 협력사가 동반 진출한 점이 특징적이다. 판매 및 서비스 법인은 수도인 프라하에 위치해 있으며, 생산시설을 둔 제조업체들은 동부지역에 위치한다.

체코에 진출한 한국기업 중 제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 운수·창고업, 건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이 있다. 체코에는 총 35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다.[49]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24개사, 도소매업 4개사, 운수 및 창고업 3개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9) KOTRA, 2020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DB(2022. 2. 7. 기준, 검색일: 2022. 11. 22).

다. 슬로바키아

한국의 2021년 대슬로바키아 수출 규모는 28억 3,600만 달러로 15년 전 대비 2.2배 증가했으나 최고치를 달성했던 9년 전 수출 규모의 61.3%를 기록, 전반적인 교역 규모 하락세를 기록하였다. 2021년 대슬로바키아 수출 규모는 2006년 대비 15억 6,900만 달러가 증가했으나, 최고치를 기록한 2012년 대비 17억 8,800만 달러 감소하였다. 약 10년 전 교역 규모 증가는 기아자동차와 삼성전자의 진출로 많은 투자가 발생했고, 또한 관련 협력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진출기업들이 원가절감 등의 이유로 필요 부품 현지 조달을 시작하면서 생산 비용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교역량은 감소하였다. 수입 규모는 6억 6,400만 달러로 2020년에 최고치 기록 후 23.8% 감소하였다. 수출과 수입의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21억 7,200만 달러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여 대EU 무역에서 발생하는 적자의 폭을 줄이는 데 기여하였다.

표 4-6. 한국-슬로바키아 교역 현황

연도	수출		수입		수지 (백만 달러)
	수출액 (백만 달러)	증감률 (%)	수입액 (백만 달러)	증감률 (%)	
2022. 10	2,338	-0.3	639	10.4	1,699
2021	2,836	28.3	664	-23.8	2,172
2020	2,211	-4.5	871	74.4	1,340
2019	2,315	-14.9	500	166.5	1,815
2018	2,719	-1.9	188	5.9	2,531
2017	2,773	-5.2	177	-19.2	2,596
2016	2,926	-17.4	219	-5.1	2,707
2015	3,543	-17.6	231	3.2	3,312
2014	4,299	-2.5	224	20.0	4,075
2013	4,407	-4.7	187	9.7	4,220
2012	4,624	12.7	170	20.8	4,454
2011	4,103	-7.2	141	41.5	3,962
2010	4,424	41.0	100	56.5	4,324

표 4-6. 계속

연도	수출		수입		수지 (백만 달러)
	수출액 (백만 달러)	증감률 (%)	수입액 (백만 달러)	증감률 (%)	
2009	3,137	-9.4	64	-21.2	3,073
2008	3,462	27.9	81	14.4	3,381
2007	2,707	113.6	71	40.2	2,636
2006	1,267	83.2	50	60.8	1,217
2005	692	94.0	31	34.4	661

자료: 한국무역협회(2022), 「K-stat 국가별 수출입」,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1. 22).

품목별 수출입 모두 기계 및 운수장비에 집중되어 있다. 2021년 전체 수출에서 기계 및 운수장비의 수출 비중은 81.6%, 전체 수입에서 기계 및 운수장비의 수입 비중은 89.9%이다. 세부 품목으로는 자동차부품의 수출과 수입이 압도적이다.

라. 헝가리

한국의 대헝가리 수출은 2018년까지 연도별 변동이 크게 나타났으나 2019년부터 20억 달러를 초과했고, 수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2021년 기준 대헝가리 수출 규모는 40억 5,200만 달러로, 2022년의 수출 규모는 10월에 이미 2021년 전체 수출 규모를 초과하였다. 수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무역수지는 33억 2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2021년 대헝가리 수입 규모는 7,500만 달러로 여전히 연도별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4-7. 한국-헝가리 교역 현황

연도	수출		수입		수지 (백만 달러)
	수출액 (백만 달러)	증감률 (%)	수입액 (백만 달러)	증감률 (%)	
2022. 10	4,689	47.2	637	1.1	4,052
2021	4,052	38.4	750	10.6	3,302
2020	2,926	18.1	678	36.6	2,248
2019	2,478	26.0	496	-28.5	1,982
2018	1,967	63.1	694	-1.7	1,273
2017	1,206	26.5	706	8.4	500
2016	953	-6.2	651	-11.5	302
2015	1,016	-31.4	735	42.7	281
2014	1,481	-29.9	515	10.3	966
2013	2,114	82.6	467	-1.7	1,647
2012	1,157	-21.6	475	0.8	682
2011	1,476	-38.1	471	17.5	1,005
2010	2,385	40.0	401	31.7	1,984
2009	1,704	12.7	304	-15.8	1,400
2008	1,513	-19.9	361	40.3	1,152
2007	1,890	57.4	258	12.7	1,632
2006	1,201	9.2	229	51.4	972
2005	1,099	36.1	151	22.4	948

자료: 한국무역협회(2022), 「K-stat 국가별 수출입」,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1. 22).

대헝가리 주요 수출품은 기계 및 운수장비(43%)와 화학물 및 관련 제품(40.5%)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수입은 기계 및 운수장비(66.1%)가 주를 이루고 있다. 헝가리 진출 한국기업인 삼성전자, 한국타이어가 헝가리 내에서 한국 소재의 주요 수입처이기 때문에 기계, 화학소재 등의 수출이 활발하다. 대헝가리 제약 관련 수출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유럽 및 CIS 지역 수출 마케팅을 위한 파트너사인 EGIS가 헝가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4-8. 한국의 대헝가리 품목별 수출입(2021년 기준)

품목명	2021년				
	수출액 (백만 달러)	증감률 (%)	수입액 (백만 달러)	증감률 (%)	수지 (백만 달러)
총계	4,052	38.4	750	10.6	3,302
기계 및 운수장비	1,742	27.9	496	3.5	1,246
화학물 및 관련제품	1,642	50.4	48	51.7	1,594
기타 제조제품	333	42.1	96	15.8	237
재료별 제조제품	316	41.0	68	3.5	248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15	63.2	5	50.0	10
음료 및 담배	1	-21.1	3	1,692.8	-2
광물성연료,윤활유 및 관련물질	1	-46.9	0	100.6	1
식품 및 산동물	0	-45.3	29	129.8	-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0	-28.8	5	67.4	-5
동식물성유지 및 왁스	0	145,833.3	0	0.0	0

자료: 한국무역협회(2022), 「K-stat 국가별 수출입」,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1. 22).

한국의 대헝가리 투자는 1992년부터 시작되어 최근 집중적인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다.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에도 한국기업들이 8억 4,7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2022년 상반기에만 6억 9,80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대헝가리 투자는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협력업체의 동반진출이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 한국타이어 등이 중소기업들과 동반 진출하였다. 2016년 말부터 2018년까지 건설·서비스업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 등 전기차 배터리 제조시설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 4-9. 한국의 대헝가리 투자 현황

연도	신규 법인 수	투자금액(백만 달러)
2022. 6	17	698
2021	25	847
2020	27	328
2019	43	740
2018	20	394
2017	8	13
2016	8	40
2015	2	8
2014	4	1
2013	8	40
2012	1	0
2011	1	1
2010	8	14
2009	2	8
2008	4	3
2007	8	15
2006	17	70
2005	3	13

자료: 한국무역협회(2022), 「K-stat 국가별 수출입」,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1. 22).

한국기업의 대헝가리 투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한국타이어, SK이노베이션 등을 꼽을 수 있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헝가리 투자진출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협력업체가 동반 진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최근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제조시설을 투자하면서 일시적으로 한국의 투자진출이 증가했다. 2018년 상반기에는 한국이 헝가리 내 전체 외국인 투자액 1위를 달성할 정도였으며, 이는 대기업의 진출이 대규모 투자로 이어진다는 점을 증명하였다. 헝가리에 투자 진출한 한국기업 수는 총 46개사이며, 분야별로는 제조업이 23개사, 운수 창고업 5개사, 도소매업 3개사 등이다.

표 4-10. 한국의 대슬로바키아 품목별 수출입(2021년 기준)

품목명	2021년				
	수출액 (백만 달러)	증감률 (%)	수입액 (백만 달러)	증감률 (%)	수지 (백만 달러)
총계	2,836	28.3	664	-23.8	2,172
기계 및 운수장비	2,313	30.2	597	-24.9	1,716
재료별 제조제품	179	21.0	33	-17.4	146
기타 제조제품	177	14.9	27	2.7	150
화학물 및 관련제품	164	27.2	4	-3.7	160
음료 및 담배	1	-11.3	0	45.7	1
광물성연료,윤활유 및 관련물질	1	20.9	0	53.9	1
식품 및 산동물	1	13.1	2	0.5	-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0	-10.4	0	-98.8	0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0	-90.5	1	-28.0	-1
식물성유지 및 왁스	0	3,081.8	0	0.0	0

자료: 한국무역협회(2022), 「K-stat 국가별 수출입」,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1. 22).

한국의 대슬로바키아 투자는 2017년 이후 전반적인 감소 추세이다. 슬로바키아 투자 진출은 2004년 슬로바키아의 EU 가입 이후 활성화되었는데, 서유럽을 제외하면 폴란드, 체코에 이어 3번째로 많은 투자 규모를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V4 중에서 가장 적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투자 진출 산업은 제조업으로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모비스가 대표적인 슬로바키아 진출기업이다. 슬로바키아의 외국인투자 진출은 자동차와 전자산업, 철강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데, 한국의 투자 진출기업 역시 자동차와 전자산업 위주이다. 대기업 협력 업체들의 진출 완료 후에는 명확한 진출 증가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 4-11. 한국의 대슬로바키아 투자 현황

연도	신규 법인 수	투자금액(백만 달러)
2022. 6	1	13
2021	3	15
2020	5	23
2019	1	32
2018	2	22
2017	5	63
2016	6	9
2015	6	9
2014	7	15
2013	6	16
2012	3	212
2011	5	31
2010	8	22
2009	3	53
2008	9	118
2007	21	134
2006	17	292
2005	14	228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22), 「해외직접투자통계」,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1. 22).

한국기업의 슬로바키아 투자진출 활성화는 2004년 슬로바키아가 EU에 가입하면서 시작되었다. 주요 투자진출 사업은 제조업이며, 대표적인 진출기업은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모비스 등이다.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대부분 자동차와 전자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들의 협력업체 진출 완료 이후 명확한 증가세가 더 이상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슬로바키아에는 총 43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다.[50]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32개사, 도소매업 5개사, 운수 및 창고업 3개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0) KOTRA, 2020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DB(2022. 2. 7. 기준, 검색일: 2022. 11. 22).

2. 한·중동부유럽 경제협력 방향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중동부유럽 진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는 공급망 문제, 에너지 가격 급등, 고용난 등의 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우리 정부의 중동부유럽과의 경제협력에 있어 상기 부문에 대해 협력 상대국 정부에 분명한 문제제기와 함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 기업들도 기진출기업의 경험을 참고하여 상기 부문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와 해결방안을 가지고 중동부유럽 진출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문제가 되었던 글로벌 공급망이 어느 정도 정상화 추세를 보이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다시 악화되었다. 전쟁 발발 초기에 급격히 상승하였던 해상운송 비용은 다시 안정세를 찾았지만,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철도운송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심화되었다. 또한 전쟁의 여파로 트럭 운전사가 부족하여 육상운송 비용이 계속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부유럽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주로 아시아발 물류운송이 해상, 항공, 철도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는 해상운송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업체 입장에서 중동부유럽으로 보내는 물류에 한국 국적 선사를 이용할 수 없어 주로 덴마크, 이탈리아, 독일 등의 외국 선사를 이용하고 있어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폴란드 진출기업 A사는 우리 정부의 대유럽 정책이 주로 서유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최근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중동부유럽에 더욱 관심을 가져줄 것을 희망하였다. 즉, 현재 중동부유럽에 삼성, LG, 현대, SK 등 대기업과 협력 업체들이 대거 진출해 있어 폴란드의 경우에만 한정해도 연간 약 500~700개 컨테이너 정도의 기본 수요가 보장되는바, 이 지역을 겨냥한 한국 국적 선사를 운영할 만하다는 것이다. 중동부유럽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서유럽 시

장을 겨냥한 네덜란드와 독일의 항만보다는 남쪽으로는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그리고 북쪽으로는 폴란드 항만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EU 핵심국 정부 및 기업들은 최근 EU 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해 중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저렴한 V4로 관련 공급망을 이전하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EU 역내 공급망 강화 차원에서 자동차·배터리, 전자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도 최근 V4 진출이 활발하다. 특히 최근 들어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에너지가격 급상승에도 불구하고 V4 진출에 적극적인 것은 유럽의 전기차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확대 전망이 분명하고 EU의 배터리 공급망 강화 움직임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투자를 통한 EU 내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투자기업에 안정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과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며, 차세대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U의 공급망 재편에 참여하는 투자기업은 거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투자유치국의 인센티브 혜택을 통해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한국은 이미 V4를 비롯한 중동부유럽에 자동차, 전자 등의 생산거점을 구축하고 있는바, 이를 유럽의 공급망 재편사업 참여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헝가리 진출기업을 비롯한 V4 진출기업이 공통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현지 비즈니스 환경 변화 중 에너지 가격 급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생산비의 급격한 증가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비즈니스 계획 수립을 가장 어렵게 하는 불확실성의 확대로 이어지는 문제이다. 이에 따라 최근 현지 진출 입지 가운데 전력 사정이 가장 안정적인 산업단지를 선호하는 경향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와 함께 현지 경영에서 에너지 비용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소를 비롯한 현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진출을 병행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지 정부는 이러한 병행 투자에 대해 일괄적인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매우 인색한 편이며 각각 별개의 투자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향후 중동부유럽 주요국 정부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이러한 병행 투자의 중요성을 이슈화할 필요가 있다. 즉, 한·중동부유럽 경제협력에 있어 주요 축인 현지 생산거점 투자와 신재생에너지 부문 투자를 패키지화하면 양국의 협력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중동부유럽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있어 현지의 고용난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다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CIS 출신 노동자의 공급이 병목현상을 보여 더욱 심화되었으며, 물가상승으로 인한 임금인상 압력도 최근 들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헝가리 정부가 최근에 시행한 외국인노동자 고용여건 개선과 노동공급 대상국 확대 조치를 폴란드 등 여타 V4 정부에도 정부간 경제협력기구를 통해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 진출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우리의 정부기관에 현지 고용 전문가를 파견하여 이와 같은 고용난 타개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의 중소기업에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한국과 중동부유럽의 경제협력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앞으로 우리의 유럽시장 겨냥 생산 거점은 주로 헝가리와 폴란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협력을 중심으로 향후 한·중동부유럽 경제협력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셋째, 양측의 경제협력 틀이 방산협력이나 정부조달시장 등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EU 및 셰겐 역내에서 생산비, 고용인력, 현지 정부의 투자인센티브, 한국과의 협력 의지 등으로 V4 중 2개국은 지속적인 협력 강화 추세이나, 나머지 2개국은 기존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선에 머물러 있다. 헝가리와 폴란드에는 최근까지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폴란드와는 방산, 원전 등 협력 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소득수준과 인건비 수준이 거의 선진국에 육박한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경우 이들의 EU 가입 초기에는 우리 기업

의 진출이 가장 활발하였으나, 최근에는 기진출기업의 재투자 혹은 대체투자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V4 진출에 있어 이러한 각국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진출 업종에 가장 적절한 국가에 투자 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의 유럽 시장을 겨냥한 생산 거점은 당분간 헝가리와 폴란드를 중심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중동부유럽 국가는 공통적으로 에너지 집약적 산업 기반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바, 이에 대한 단기적, 중장기적 대응은 유사한 정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공통적으로 V4를 비롯한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감축해야 하는 석탄 등 에너지 자원의 활용을 단기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성 증대와 에너지 소비 감소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V4 국가들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에너지의 새로운 공급원과 새로운 공급루트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폴란드는 최근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소비 급증, 저탄소 경제 전환, 신재생에너지 공급 불안정성 등으로 최근 원전 개발을 계획, 추진하고 있다. 폴란드의 1인당 평균 에너지 소비량은 아직까지 EU 최하 수준이나, 최근 들어 급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폴란드는 현재 국내 전력생산의 약 70% 정도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데, 2050년까지 석탄 자원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51] 2020년 기준 폴란드의 대러시아 석탄 수입은 국내 생산의 15%에 달한다. 유럽 그린딜에 따른 2050년 탄소 제로 대안인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는 공급 측면에서 불안정성을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폴란드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PPNE: Program of Polish Nuclear Energy)은 폴란드 에너지 정책 2040(Energy Policy of Poland until 2040)의 일환으로 2014년에 처음 발표되었으며, 2020년에 업데이트되었다.[52] 동

51) World Nuclear Association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폴란드는 총 전력생산 158TWh에서 석탄 69%, 천연가스 11%, 풍력 10%, 바이오 연료 및 폐기물 6%, 수력 2%, 태양광 1% 등으로 구성된다. World Nuclear Association, "Nuclear Power in Poland (Updated May 2022),"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2. 10. 1).

프로그램의 주체는 국영기업인 폴란드 원자력발전공사(Polish Nuclear Power Plants)로 대규모 가압수형 원자로를 활용하여, 6~9기가와트급 설비용량의 원자력발전소를 총 6기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2033년부터 1~1.6기가와트급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시작으로, 이후 매 2~3년마다 설비를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2045년까지 원자력 순발전용량 7.7기가와트로 총 발전량의 약 27%를 달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하지만 원전 개발에는 발전시설 사용 기술 선정, 발전소 건립 및 운용과 폐기물 저장, 해체 등 장기간 계획이 필요하며,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상기 계획은 전반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에 대체로 무게를 두고 있어 최초 원자로는 2026년 이후에나 착공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1단계 폴란드 원전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 미국과 프랑스 업체의 입찰가격을 인하하는 정도의 기능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으나, 총 6단계에 걸쳐 전개되는 폴란드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수주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결국 폴란드의 최초 원자력발전소 건설인 400억 달러 규모의 1단계 사업은 미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로 선정되었으나,[53] 1단계 사업 수주의 성공 여부를 떠나 2단계를 비롯한 향후 지속될 폴란드의 원전사업 참여와 함께 한국과 폴란드 간의 중장기 경제협력 틀에서 폴란드 원전 수주에 대해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폴란드와 미국 정부 간 원자력 협약(agreement) 내용을 검토하여 한·폴란드 정부 간 원자력 협약 체결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전반적인 한·폴란드 경제협력 방안과 폴란드 원전 수주 방안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기업의

52) Polish Ministry of Climate 2020, "Polish Nuclear Power Programme," Sicherheit in der Kerntechnik, "Kerntechnische Anlagen," p. 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0. 1)

53) 폴란드와 미국 정부는 지난 2022년 10월 28일 1단계 사업자 결정을 공식 확인했다. 또한 11월 2일 폴란드 정부는 각료회의를 통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원자로를 사용하는 총 3기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공식 승인했다. 폴란드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에 따르면, 초제보(Choczewo) 주 내 해안도시인 코팔리노(Kopalino), 루비아토보(Lubiatowo) 시에 1단계 3개의 원자로와 해상풍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다. USTD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1. 7) 각종 내외신 종합.

유럽 생산거점을 폴란드에 구축한 상황을 적극 활용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공급망 협력방안과 연계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한국형 혁신 소형 원자로 i-SMR 폴란드 진출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소형원전 도입을 고려하는 폴란드 대형 기업들과 초기 단계부터의 협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한국형 SMR 모델의 시장 선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한국산 방산물자 폴란드 수출 성공사례에서 어떤 틈새전략이 유효하였는지, 기술이전 조건 등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검토도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즉, 폴란드 국민이 선호하는 미국산 및 유럽산 방산물자와의 경쟁에서 우리가 승리한 요인, 예를 들면 납기 조건과 기술이전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이처럼 총 6단계에 달하는 폴란드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중, 폴란드 정부는 첫 원전 건설인 1단계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2단계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폴란드 민간 주도 원전 건설에 관한 협정은 한국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지난 2022년 10월 31일 부총리 겸 폴란드 국가자산부 장관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울에서 퐁트누프(Pątnów)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 협력,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폴란드의 최대 민간 에너지사 제 파크(ZE PAK: Zespół Elektrowni Pątnów-Adamów-Konin), 폴란드 국영 에너지그룹(PGE: Polska Grupa Energetyczna S.A.)이 참여하며 곧 사업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 2022년 말까지 예비 개발 계획을 준비하기로 합의하였다. 퐁트누프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는 제 파크사가 퐁트누프 지역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석탄 화력발전소를 2024년까지 폐쇄하고 원자력발전소로 대체하는 사업이며, 1400MW급 원자로 최소 2기에서 최대 4기가 건설될 예정이다.

최근 한수원 중심의 해외 원전 협력은 인근 체코와 루마니아에서도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폴란드에서의 원전 협력은 우리 원전 기술의 유럽 진출에 그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수원은 한전기술 등 관련 회사들과 2022년 11월 9일 부지 조사단을 구성, 신규 원전부지인 퐁트누프 발전소를

방문하였다. 또한 폴란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정부 및 민간주도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한 양국 기업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11월 10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정부와 사업 관계자 및 현지 공급사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APR1400 공급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와 함께 한수원은 지난 11월 7일과 8일, 체코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하여 협력하고 있는 체코 현지 기업 12곳을 방문해 사업 진행 현황을 설명하고 사업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였다.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국과 중동부유럽은 최근 한국의 무기 등을 비롯한 방산물자 및 정부조달시장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폴란드는 미국 무기 선호 현상이 존재하나, 미국, 독일 등 국가의 공급기한이 길어 한국을 선택하게 되었다. 폴란드 사정에 정통한 폴란드 학자 Nicolas Levi(Vistula University) 교수와의 면담에서 그는 최근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방산 부문에서 기술력과 신속한 공급능력을 갖춘 국가는 없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이번 한국산 무기 공급은 이상이 없을 경우 향후 30년간 한·폴란드 경제 관계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양국 정부가 주도하는 발전, 송배전, 통신, 교통, 물류, 의료 등 정책성 공공사업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기술 및 생산기반을 토대로 양국의 민관이 공동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최근 폴란드 정부가 주도하는 원전, 화력 등 발전시설 구축과 의료시설 현대화, 신공항 건설 등 공공사업에 한국정부는 국내기업이 해외진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상대국의 협력수요 파악과 공동연구개발 확대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강유덕. 2017.「EU의 對러시아 경제제재와 이후 EU-러시아 무역관계의 변화: 對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중심으로」.『통합유럽연구』, 8(2).

박정호, 연원호, 강구상, 조동희, 이승신, 김규판, 안성배, 배찬권. 2022.「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의 경제적 영향」. 오늘의 세계경제, 제22-6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엄구호 외. 2017.「대러 제재(Sanction) 현황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KOTRA.

정귀희. 2022.「EU의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 감축 위한 중·단기 종합 계획」.『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2-05. 에너지경제연구원.

조동희, 이현진, 윤형준. 2022.「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EU 제재의 제약요인과 영향」.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제5-9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TRA. 2019.『2019 국별 진출전략: 폴란드』.

[영문자료]

Ianchovichina. E., S. Devarajan, and C. Lakatos. 2016. "Lifting Economic Sanctions on Iran, Global Effects and Strategic Response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7549. World Bank Group. (February)

IMF. 2021.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1: Recovery During A Pandemic." (October)

_____. 2022a. "World Economic Outlook: Countering the Cost-of-Living Crisis." (October)

_____. 2022b. "World Economic Outlook: War Sets Bsck the Global Recovery." (April)

OECD. 2022a.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Economic and Social Impact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War in Ukraine." (March 17)

_____. 2022b.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2 Issue 2, Preliminary version." (September 26)

US Congress. 2022. “Russia’s War on Ukraine: The Economic Impact of San ctions.” IN FOCUS. (May 3).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USTDA. https://www.ustda.gov/(검색일: 2022. 11. 7).

[온라인 자료]

한국무역협회. 2022.「K-stat 국가별 수출입」. https://stat.kita.net/stat/cstat/peri/ctr/CtrTotalList.screen(검색일: 2022. 11. 22).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2022.「EU, 러시아 화석연료 퇴출 위한 ‘REPowerEU’ 계획 발표」.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overseasMrktNews/overseasMrktNewsDetail.do?type=0&nIndex=1823014(검색일: 2022. 8. 10).
한국수출입은행. 2022.「해외직접투자통계」. https://stats.koreaexim.go.kr/main.do(검색일: 2022. 11. 22).
BBC. 2013. “Russian money in Cyprus: Why is there so much?” (March 18). https://www.bbc.com/news/business-21831943(검색일: 2022. 12. 8).
Council of the EU. “EU adopts fifth round of sanctions against Russia over its military aggression against Ukraine.”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04/08/eu-adopts-fifth-round-of-sanctions-against-russia-over-its-military-aggression-against-ukraine/(검색일: 2022. 12. 15).
_____. “EU adopts its latest package of sanctions against Russia over the illegal annexation of Ukraine’s Donetsk, Luhansk, Zaporizhzhia and Kherson regions.”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10/06/eu-adopts-its-latest-package-of-sanctions-against-russia-over-the-illegal-annexation-of-ukraine-s-donetsk-luhansk-zaporizhzhia-and-kherson-regions/(검색일: 2022. 12. 12).
_____. “EU adopts new set of measures to respond to Russia’s military aggression against Ukraine.”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02/28/eu-adopts-newset-of-measures-to-respond-to-russia-s-military-aggression-againstukraine/(검색일: 2022. 3. 18).
_____. “EU adopts package of sanctions in response to Russian recognition of the non-government controlled areas of the Donetsk and Luhansk

oblasts of Ukraine and sending of troops into the region."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02/23/russian-recognition-of-the-non-government-controlled-areas-of-the-donetsk-and-luhansk-oblasts-of-ukraine-as-independent-entities-eu-adopts-package-of-sanctions/(검색일: 2022. 3. 18).

_____. "EU imposes sanctions on state-owned outlets RT/Russia Today and Sputnik's broadcasting in the EU."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03/02/eu-imposes-sanctions-on-state-owned-outlets-rt-russia-today-and-sputnik-s-broadcasting-in-the-eu/(검색일: 2022. 3. 18).

_____. "Russia's military aggression against Ukraine: EU agrees new sectoral measures targeting Belarus and Russia."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03/09/russia-s-military-aggression-against-ukraine-eu-agrees-new-sectoral-measures-targeting-belarus-and-russia/(검색일: 2022. 3. 18).

_____. "Russia's military aggression against Ukraine: EU bans certain Russian banks from SWIFT system and introduces further restrictions."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03/02/russia-s-military-aggression-against-ukraine-eu-bans-certain-russian-banks-from-swift-system-and-introduces-further-restrictions/(검색일: 2022. 3. 18).

_____. "Russia's military aggression against Ukraine: EU imposes sanctions against President Putin and Foreign Minister Lavrov and adopts wide ranging individual and economic sanctions"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02/25/russia-s-military-aggression-against-ukraine-eu-imposes-sanctions-against-president-putin-and-foreign-minister-lavrov-and-adopts-wide-ranging-individual-andeconomic-sanctions/(검색일: 2022. 3. 18).

_____. "Russia's military aggression against Ukraine: fourth EU package of sectoral and individual measures."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03/15/russia-s-military-aggression-against-ukraine-fourth-eu-packageof-sectoral-and-individual-measures/(검색일: 2022. 3. 18).

European Commission. 2022. "Ukraine: EU agrees fifth package of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Russia." (April 8).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2332(검색일: 2022. 12. 15).
European Council. "European Council conclusions, 30-31 May 2022."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05/31/european-council-conclusions-30-31-may-2022/(검색일: 2022. 12. 12).
_____. "The Versailles declaration, 10 and 11 March 2022."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03/11/the-versailles-declaration-10-11-03-2022/(검색일: 2022. 3. 18).
_____. "Statement by the Presidents of the European Council and European Commission on Russian aggression against Ukraine."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02/22/statement-by-the-presidents-of-the-european-council-and-european-commission-on-russian-aggression-against-ukraine/(검색일: 2022. 3. 18).
European Council and Council of the EU. 2022. "EU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Russia over Ukraine(since 2014)."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sanctions/restrictive-measures-against-russia-over-ukraine/(검색일: 2022. 4. 1).
_____. "Timeline - EU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Russia over Ukraine."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sanctions/restrictive-measures-against-russia-over-ukraine/history-restrictivemeasures-against-russia-over-ukraine/(검색일: 2022. 12. 15).
European Council for an Energy Efficient Economy. 2022. "Baltic states become first in Europe to stop Russian gas imports." (April 4). https://www.eceee.org/all-news/news/baltic-states-become-first-in-europe-to-stop-russian-gas-imports/(검색일: 2022. 12. 8).
Polish Ministry of Climate 2020. "Polish Nuclear Power Programme." Sicherheit in der Kerntechnik. "Kerntechnische Anlagen." https://www.nuklearesicherheit.de/kerntechnische-anlagen/(검색일: 2022. 10. 1).
Reuters. 2014. "Russia bans all U.S. food, EU fruit and veg in sanctions response; NATO fears invasion." (August 6). https://www.reuters.com/article/uk-ukraine-crisis-nato-idUKKBN0G60Y620140806(검색일: 2022. 12. 8).
_____. 2021. "Biden warns Putin of sanctions, aid for Ukraine military if Russia

invades." (December 8). https://www.reuters.com/markets/currencies/biden-putin-set-crucialcall-over-ukraine-2021-12-07/(검색일: 2022. 3. 18).
_____. 2022. "EU to tighten sanctions on Russian oil companies, but stops short of import ban – source." (March 15).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eu-tighten-sanctions-russian-oil-companies-stops-short-import-ban-source-2022-03-14/(검색일: 2022. 3. 21).
Russia Fossil Tracker. "Payments to Russia for fossil fuels." https://www.russiafossiltracker.com/(검색일: 2022. 12. 15).
The Office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Lithuania. 2022. "Prime Ministers of Baltic States and Poland call on the EU to ban Russian and Belarusian road freight transport and to block ships from entering EU ports." (March 24). https://lrv.lt/en/news/prime-ministers-of-baltic-states-and-poland-call-on-the-eu-to-ban-russian-and-belarusian-road-freight-transport-and-to-block-ships-from-entering-eu-ports(검색일: 2022. 12. 8).
World Nuclear Association. "Nuclear Power in Poland (Updated May 2022)." https://world-nuclear.org/information-library/country-profiles/countries-o-s/poland.aspx(검색일: 2022. 10. 1).

[DB 자료]

KOTRA. 2020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DB(2022. 2. 7. 기준).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com/index.do?MENU_ID=1350(검색일: 2022. 11. 22).
Eurostat DB(검색일: 2022. 12. 12, 2022. 12. 15).
MAGYAR NEMZETI BANK. https://www.mnb.hu/(검색일: 2022. 12. 11).
Narodowy Bank Polski. https://www.nbp.pl/(검색일: 2022. 12. 11).
OECD.Stat DB(검색일: 2022. 12. 11).
UN Comtrade DB(검색일: 2022. 12. 6).
Česká národní banka. https://www.cnb.cz/cs/(검색일: 2022. 12. 11).
Центральный Банк России. https://www.cbr.ru/(검색일: 2022. 12. 8).

[인터뷰/간담회 자료]

폴란드 Vitsula 대학 Nicolas Levi 교수 간담회(2022. 10. 19, 폴란드 바르샤바).

헝가리 투자·수출진흥청 Ibolya Balint 팀장, Szilard Boros 선임 간담회(2022. 10. 24, 헝가리 부다페스트).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이정훈 관장, 정상현 차장, 남호선 과장 간담회(2022. 10. 18, 폴란드 바르샤바).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이규정 과장 간담회(2022. 10. 24, 헝가리 부다페스트)

KOTRA 브라티슬라바 무역관 조세정 관장, 윤지용 과장 간담회(2022. 10. 25,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KOTRA 프라하 무역관 김성주 관장, 이승현 과장, 정지연 과장 간담회(2022. 10. 21, 체코 프라하).

Executive Summary

The Impact of Anti-Russian Sanctions and Implications for the Economy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

Cheolwon Lee and Cho Rong Kim

The Russia-Ukraine war and EU sanctions against Russia are having a negative impact not only on Russia but also on the overall EU economy, and these negative effects are expected to continue into 2023 as the war prolongs.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which enjoy relatively strong trade, business and energy-related links with Russia, have been hit particularly hard.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bordering Russia and Ukraine are relatively dependent on Russia for energy, and are expected to suffer the greatest economic damage in terms of trade relations.

Policies toward Russia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have maintained various stances depending on country, ranging from Poland, which consistently maintains an anti-Russian stance, to Hungary, a typical pro-Russian country, or have recently undergone a change in stance.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located on the EU border or those close to Russia and have some legacy of past socialist alliances, regardless of their pro-Russian or anti-Russian ties, generally have close economic ties with Russia. Therefore, after the invasion of Ukraine, the EU's sanctions on Russia will inevitably have a serious impact on the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in various sectors such as trade, investment, and finance as well as the energy sector, which is expected to suffer a direct short-term impact.

In 2004 and 2007, Korean companies entered Central and Eastern Europe in large numbers including the four Visegrad countries (Poland, Czech Republic, Slovakia, Hungary), set production bases in Europe, and then made further investments. The Visegrad V4 countries represent the largest export market for Korea in the EU, accounting for 28.3% of its exports to the EU in 2020. As such, Central and Eastern Europe, where Korea has the most active economic cooperation in Europe, is expected to suffer the most serious and diverse negative impacts from geopolitical crises, including the recent Russia-Ukraine war. We analyze that major countrie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will experience slightly different economic impacts and show disparate policy tendencies toward Russia in the face of geopolitical crises, and accordingly, it will be necessary for Korean companies to prepare differentiated countermeasures. In particular, it is time to review Korean companies' strategy toward Europe based on an in-depth analysis of the economic impact of the geopolitical crisis on countrie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EU sanctions against Russia on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from various angles after the outbreak of war between Russia and Ukraine,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Korea's economic relationship with Central and Eastern Europe. This study is largely composed of the following three issues. First, it shows how these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have close economic relations with Russia, second, how the geopolitical crisis originating from Russia will affect the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economy, and finally, third, how Korean companies and governments should respond to economic relations with Central and Eastern Europe. Therefore, following the introduction in Chapter 1, Chapter 2 sheds ligh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nd Eastern Europe and Russia, including trade, investment, and energy. And in Chapter 3, the EU's sanctions against Russia and their future trajectory, the impact on the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economy, and the changes in the local business environment of the companies entering the

market were analyzed. Finally, in Chapter 4, based on the above-mentioned analysis and econom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entral and Eastern Europe, implications for Korean companies and governments were derived.

〈책임〉

이철원

서강대학교 경제학 학사 및 석사
서강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선임연구원
(現, E-mail: cwlee@kiep.go.kr)

저서 및 논문

『중국의 대유럽 투자와 유럽의 정책대응』(공저, 2020)
『유럽 친환경자동차산업 정책분석과 시사점: E-모빌리티를 중심으로』(공저, 2021) 외

〈공동〉

김초롱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교 노어노문학 학사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교 법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연구원
(現, E-mail: crkim@kiep.go.kr)

저서 및 논문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 거버넌스 개선 방안 연구: 러시아를 중심으로』(공저, 2019)
『푸틴 4기 한 · 러 투자 활성화 방안: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공저, 2020) 외

연구자료 발간자료 목록

■ 2022년

22-01 일본 디지털전환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 김규판

22-02 주요 선진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변화와 시사점 / 정형곤·이아라

22-03 Global Supply Chains in a Post-Covid Multipolar World: Korea's Options / Shahid Yusuf and Danny Leipziger

22-04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평가와 시사점 / 김준동

22-05 중국의 녹색금융 발전전략과 주요 내용 / 문지영·이효진

22-06 방글라데시 기후변화 영향 분석 및 시사점 / 노윤재 · 김민희 · 김소은

22-07 국내외 ESG 평가사별 점수 비교: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 박지원 · 이예림

22-08 시진핑 3기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 과제와 시사점: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 양평섭·김홍원

22-09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글로벌 규범 현황과 시사점 / 이천기

22-10 한-호주 공급망 협력 방향: 핵심광물과 수소를 중심으로 / 조승진·신민이

22-11 대러시아 제재가 중동부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이철원·김초롱

22-12 미중 전략경쟁 시기의 대만 문제와 한국의 경제안보 / 허재철

■ 2021년

21-01 유럽 친환경자동차산업 정책분석과 시사점: e-모빌리티를 중심으로 / 이현진·이철원·윤형준

21-02 디지털전환 시대의 국경 간 전자조달 논의동향과 시사점 / 박지현

21-03 미·중 마찰의 주요 쟁점과 한·중 경제협력 방향 / 양평섭·최지원

21-04 북한 대외 채무의 쟁점과 과제: 국제 규범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 최유정·한하린

21-05 미국의 스위스 환율조작국 지정 원인 분석 및 평가 / 조동희·오태현·이현진

21-06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방안 연구 / 박혜리·박지현

KIEP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21-07 코로나19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 박순찬

21-08 미국과 EU의 농업보조 변화와 정책 시사점 / 서진교

21-09 유럽 주요국 녹색당의 성공 및 실패 요인 분석 / 조동희·장영욱·이현진·윤형준

21-10 인도네시아 탄소 중립 대응 정책과 한국의 그린뉴딜과의 협력 방안 / 이재호

■ 2020년

20-01 중국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 구축과 사례연구 / 김홍원·김주혜

20-02 일본의 개방형 혁신전략: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 정성춘

20-03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연구 / 박민숙·이효진

20-04 디지털세 논의에 관한 경제학적 고찰 / 이규엽·김현수

20-05 EU GDPR 위반사례의 분석과 시사점 / 이규엽·엄준현

20-06 대외자산 수익률 결정요인 분석 / 김효상 · 양다영 · 김소영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전문가, 기업 및 일반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 기획성과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gh@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과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기 관 회 원 □ 개 인 회 원 □ 연 구 자 회 원 □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Policy References 22-11



The Impact of Anti-Russian Sanctions and Implications for the Economy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

Cheolwon Lee and Cho Rong Kim

본 연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발발 이후 EU의 대러시아 제재가 중동부유럽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우리의 대중동부유럽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슈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중동부유럽 국가가 러시아와 얼마나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지, 둘째, 그에 따라 러시아발 지정학적 위기가 중동부유럽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마지막 셋째, 한국 기업과 정부는 중동부유럽과의 경제관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이다. 현지 진출기업 면담 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중동부유럽 진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는 공급망 문제, 에너지 가격 급등, 고용난 등의 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94320
9 788932 224930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ISBN 978-89-322-2493-0
978-89-322-2064-2(세트)

정가 7,000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001 · www.kiep.go.kr